

경남지역 적대세력사건

【결정사안】

신청인 권숙현 등 74명이 한국전쟁 동안 경상남도지역에서 진실규명대상자 표정준 등 총 80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강제연행 되었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문헌자료와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1948. 3월~1953. 4월 경상남도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동래군, 밀양군, 사천군, 산청군, 양산군, 울주군, 의령군, 의창군, 진양군, 진주시, 창원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8개 시·군에서 진실규명 대상자 80명과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54명 등 총 134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하거나 강제연행, 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2. 조사결과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는 울산·부산지역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빨치산과 지방좌익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 점령기 및 퇴각기’에는 인민군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유지, 공무원, 대한청년단 등의 우익단체 활동가 등 우익계나 그 가족이 희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좌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희생 대상자를 색출하였다. 또한 인민군 점령 당시 각 지방의 내무서, 분주소, 형무소 등에 소위 ‘반동분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퇴각기에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황재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당한 사건도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 중 좌익사상이 강하게 작용했던 지역에서는 마을 내부의 좌우익대립으로 인한 피해 사건도 발생하였다. ‘함양군 지곡면 정무생 희생사건’과 ‘하동군 금성면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인민군 퇴각 이후에는 경찰이 치안을 회복하지 못한 지리산 주변 지역 등에서 지방좌익에 의한 개별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강제연행사건의 피해자는 주로 의용군으로 징집되거나 짐꾼으로 차출된 경우로 빨치산과 지방좌익에게 강제 연행되었다.

[전 문]

[사 건] 마-9178 등 77건, 경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신청인] 권숙현 등 74명

[결정일] 2009. 11. 17.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접수 및 처리과정

신청인 권숙현 등 74명은 2005. 12. 6.부터 2006. 11. 30.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1948. 3월~1953. 4월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동래군, 밀양군, 사천군, 산청군, 양산군, 울주군, 의령군, 의창군, 진양군, 진주시, 창원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8개 시·군¹⁾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강제연행, 상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본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조사대상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제22, 23, 24, 25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2007. 1. 23, 2. 6, 2. 13, 2. 20.)에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110건의 사건 중 10건이 집단희생조사국으로 이관되었고, 21건이 각하되었으며, 2건이 타 지역으로 재배정되어 77건이 조사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사건 77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 인민군 점령기, 인민군 퇴각기와 인민군 퇴각 이후로 분류하였으며, 각 시기 내에서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사건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병합하여 총 68

1) 본 보고서에 기재된 시·군과 읍·면 등 지명은 사건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건의 사건으로 조사하였다.²⁾ 조사결과 사건명에는 사건 발생지역, 진실규명 대상자의 이름, 사건유형(희생·강제연행·상해)을 적시하여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다만, 진실규명 대상자가 2인 이상이거나 일가가 피해를 당한 경우는 '산청군 금서면 박계원·고해분 부부 희생사건', '사천군 삼천포읍 조두실 일가 희생사건' 등과 같이 그 특성을 사건명에 반영하였다.

〈표 1〉은 경남지역 적대세력사건의 진실규명 신청 접수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74명의 신청인이 사건을 신청했으며, 분류, 병합한 68개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는 총 80명이다. 희생사건과 강제연행사건, 상해사건으로 분류하여 기재하였다.

〈표 1〉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현황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조사개시 결정시 사건명	신청인(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개시 결정일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희생사건									
1	2006. 11. 30.	마 -9178	거창군 거창읍 표정준·표영수의 공비에 의한 희생사건	권숙현(權淑賢, 33세)	표정준(表正俊, 74세)	시아버지	2007. 2. 13. (24차)	거창군 거창읍 표영수·표정준 희생사건	
					표영수(表瑛洙, 29세)	남편			
2	2006. 5. 22.	마 -3589	거창지역 김형락의 공비에 의한 희생사건	김동신(金東信, 2세)	김형락(金炯洛, 26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거창군 남상면 김형락 희생사건	
3	2006. 11. 30.	마 -9369	부산지역 이수용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이연춘(李延春, 23세)	이수용(李首龍, 49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동래군 기장면 이수용·김수광 희생사건	병합
	2006. 11. 30.	마 -10302	부산지역 김수광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김맹덕(金孟德, 1세)	김수광(金守光, 33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4	2006. 4. 6.	마 -2940	밀양지역 조오현의 빨치산에 의한 행불사건	조재길(趙在吉, 2세)	조오현(趙五顯, 28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밀양군 상동면 조오현 희생사건	

2) 동일한 피해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병합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제 3 권

연 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조사개시 결정時 사건명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개시 결정일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5	2006. 11. 30.	마 -10235	밀양지역 손제민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박수연 (朴壽連, 51년생)	손제민 (孫濟旼, 35세)	시아버지	2007. 2. 20. (25차)	밀양군 단장면 손제민 희생사건	
6	2006. 11. 30.	마 -8320	산청지역 권태국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우진 (權宇鎭, 4세)	권태국 (權泰國, 50세)	할아버지	2007. 2. 20. (25차)	산청군 단성면 권태국 희생사건	
7	2006. 11. 30.	마 -9572	양산지역 김일성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김연필 (金娟畢, 4세)	김일성 (金一成, 41세)	아버지	2007. 1. 23. (22차)	양산군 동면 김일성 희생사건	
8	2006. 7. 7.	마 -4246	울주지역 김기오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김종하 (金宗河, 3세)	김기오 (金基五, 38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울주군 범사면 김기오 희생사건	
9	2006. 5. 10.	마 -3465	의령지역 전명권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영배 (田榮培, 9세)	전명권 (田命權, 33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의령군 정곡면 전명권 희생사건	
10	2006. 11. 23.	마 -7992	창원지역 김기련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안해시 (安海時, 22세)	김기련 (金基鍊, 24세)	남편	2007. 2. 20. (25차)	창원군 북면 김기련 희생사건	
11	2006. 10. 19.	마 -6006	하동지역 이용규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이보희 (李寶姬, 50년생)	이용규 (李容奎, 24세)	아버지	2007. 1. 23. (22차)	하동군 양보면 이용규 희생사건	
12	2006. 11. 23.	마 -7380	함안지역 이재근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이창근 (李昌根, 22세)	이재근 (李在根, 22세)	6촌형	2007. 1. 23. (22차)	함안군 군북면 이재근 희생사건	
13	2006. 1. 16.	마 -810	함안지역 이진호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이병우 (李秉佑, 19세)	이진호 (李珍浩, 42세)	아버지	2007. 1. 23. (22차)	함안군 산인면 이진호 희생사건	
14	2006. 11. 7.	마 -6551	함안지역 안기수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배상시 (裴相時, 25세)	안기수 (安基洙, 32세)	남편	2007. 1. 23. (22차)	함안군 칠곡면 안기수 희생사건	
15	2006. 11. 29.	마 -8298	함양지역 서오목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서동윤 (7세)	서오목 (徐梧默, 49세)	고모	2007. 2. 13. (24차)	함양군 마천면 서오목 희생사건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조사개시 결정時 사건명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개시 결정일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16	2006. 11. 14.	마 -6813	합천지역 김영동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김중겸 (金琮謙, 7세)	김영동 (金榮東, 28세)	아버지	2007. 1. 23. (22차)	합천군 합천읍 김영동 희생사건	
17	2006. 11. 30.	마 -10331	고성지역 이정수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이삼수 (李三洙, 11세)	이정수 (李貞洙, 23세)	형	2007. 2. 13. (24차)	고성군 거류면 이정수 희생사건	
18	2006. 11. 30.	마 -9983	사천지역 임태용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임정의 (林正義, 67년생)	임태용 (林泰龍, 25세)	삼촌	2007. 2. 20. (25차)	사천군 곤명면 임태용 희생사건	
19	2006. 11. 30.	마 -9857	사천지역 조두실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조종권 (趙鍾權, 15세)	조두실 (趙斗實, 62세)	큰아버지	2007. 2. 20. (25차)	사천군 삼천포읍 조두실 일가 희생사건 ³⁾	병합
	2006. 11. 30.	마 -9856	사천지역 박봉기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박문욱 (朴文煜, 15세)	박봉기 (朴鳳基, 43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2006. 11. 30.	마 -9858	사천지역 김보배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조종권 (趙鍾權, 15세)	김보배 (金保排, 53세)	큰어머니	2007. 2. 20. (25차)		
	2006. 11. 30.	마 -9859	사천지역 조종채의 좌익세력에 의한 주장(생존) 사건	조종권 (趙鍾權, 15세)	조종채 (趙鍾彩, 17세)	사촌형	2007. 2. 20. (25차)		
	2006. 11. 30.	마 -9860	사천지역 조종출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조종권 (趙鍾權, 15세)	조종출 (趙鍾出, 15세)	사촌형	2007. 2. 20. (25차)		
20	2006. 11. 30.	마 -9855	사천지역 이내윤의 인민군 강제연행사건	이정구 (李政九, 9세)	이내윤 (李來允, 22세)	삼촌	2007. 2. 13. (24차)	사천군 삼천포읍 이내윤 희생사건	
21	2006. 11. 24.	마 -7671	양산지역 오차홍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오삼홍 (吳參洪, 24세)	오차홍 (吳且洪, 25세)	형	2007. 1. 23. (22차)	양산군 동면 오차홍 희생사건	

제 3 권

연 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조사개시 결정時 사건명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개시 결정일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22	2006. 10. 19.	마 -6089	울주지역 대한청년단장 이기생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이금이 (李壽伊, 12세)	이기생 (李己生, 41세)	아버지	2007. 2. 6. (23차)	울주군 두서면 이기생 희생사건	병합
	2006. 10. 19.	마 -8477		윤미자 (尹美子, 9세)		시아버지			
23	2006. 11. 9.	마 -6664	진양지역 김성호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김중남 (金重男, 11세)	김기호 (金沂鎬, 57세)	큰아버지	2007. 1. 23. (22차)	진양군 대곡면 김기호·김성호 형제 희생사건	
					김성호 (金成鎬, 9세)	아버지			
24	2006. 11. 30.	마 -9581	하동지역 김순기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김만중 (金萬重, 10세)	김순기 (金舜基, 45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하동군 양보면 김순기 희생사건	
25	2006. 11. 30.	마 -10452	하동지역 엄갑수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엄태호 (嚴泰浩, 15세)	엄갑수 (嚴甲守, 38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하동군 금성면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	병합
	2006. 11. 30.	마 -10454	하동지역 엄금암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박순이 (朴順伊, 14세)	엄금암 (嚴金巖, 38세)	시아버지			
	2006. 11. 30.	마 -10455	하동지역 엄재수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하말순 (河末順, 14세)	엄재수 (嚴在守, 35세)	시아버지			
	2006. 11. 30.	마 -10456	하동지역 엄재홍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엄중성 (嚴鍾成, 4세)	엄재홍 (嚴在洪, 33세)	아버지			
26	2006. 11. 30.	마 -9587	함양지역 이운택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이찬수 (李燦秀, 15세)	이운택 (李允宅, 47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함양군 안의면 이운택 희생사건	
27	2006. 3. 22.	마 -2603	함양지역 박덕성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박경숙 (朴敬淑, 15세)	박덕성 (朴德成, 39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함양군 서상면 박덕성 희생사건	
28	2006. 10. 17.	마 -5718	함양지역 김중환의 공비에 의한 희생사건	김순애 (金順愛, 16세)	김중환 (金鍾煥, 22세)	오빠	2007. 2. 20. (25차)	함양군 마천면 김중환 희생사건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조사개시 결정時 사건명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개시 결정일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29	2006. 6. 20.	마 -3983	함양지역 허문석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노노미 (盧老味, 23세)	허문석 (許文錫, 36세)	남편	2007. 2. 13. (24차)	함양군 지곡면 허문석 희생사건	
30	2006. 2. 1.	마 -982	함양지역 정무생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정진경 (鄭鎭京, 5세)	정무생 (鄭武生, 43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함양군 지곡면 정무생 희생사건	
31	2006. 10. 10.	마 -5559	합천지역 이성주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이태유 (李泰有, 18세)	이성주 (李性柱, 47세)	삼촌	2007. 1. 23. (22차)	합천군 봉산면 이성주 희생사건	
32	2006. 11. 30.	마 -9380	산청지역 도태호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도진오 (都珍五, 8세)	도태호 (都泰昊, 69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산청군 신안면 도태호 희생사건	
33	2006. 10. 24.	마 -6206	진주시지역 박성준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박진구 (朴珍球, 15세)	박성준 (朴性俊, 46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진주시 명석면 박성준 희생사건	
34	2006. 11. 2.	마 -6511	통영지역 강갑이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강철암 (姜鐵岩, 7세)	강갑이 (姜甲伊, 44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강갑이 희생사건	
35	2006. 11. 23.	마 -7454	산청지역 김광호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김부철 (金富哲, 1세)	김광호 (金光鎬, 34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김광호 희생사건	
36	2006. 1. 25.	마 -980	남해지역 김윤찬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김행규 (金幸珪, 59년생)	김윤찬 (金允贊, 21세)	삼촌	2007. 1. 23. (22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김윤찬 희생사건	
37	2006. 11. 30.	마 -9973	함양지역 나승운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라상목 (羅相睦, 58년생)	나승운 (羅勝雲, 38세)	할아버지	2007. 2. 13. (24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나승운 희생사건	
38	2006. 11. 30.	마 -8826	산청지역 박녹이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조현조 (趙賢朝, 22세)	박녹이 (朴綠伊, 35세)	남편	2007. 2. 20. (25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녹이 희생사건	

제 3 권

연 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조사개시 결정時 사건명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개시 결정일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39	2006. 10. 20.	마 -6118	남해지역 박주원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정옥이 (3세)	박주원 (朴周元, 42세)	시아버지	2007. 1. 23. (22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주원 희생사건	
40	2006. 5. 19.	마 -3577	산청지역 이동식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이강주 (李康周, 4세)	이동식 (李東植, 30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이동식 희생사건	
41	2006. 4. 14.	마 -2994	함양지역 전만식·전태 식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전병순 (全炳淳, 23세)	전태식 (全泰植, 52세)	큰아버지	2007. 2. 13. (24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전태식·전만식 형제 희생사건	
					전만식 (全萬植, 48세)	아버지			
42	2006. 11. 30.	마 -8451	함양지역 최만규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김두자 (金斗子, 1세)	최만규 (崔萬圭, 33세)	시아버지	2007. 2. 13. (24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최만규 희생사건	
43	2006. 11. 30.	마 -9244	진주지역 황학구의 인민군에 의한 납치사건	황귀영 (黃貴榮, 11세)	황학구 (黃學久, 19세)	오빠	2007. 2. 13. (24차)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황학구 희생사건	
44	2006. 11. 30.	마 -9015	고성지역 박동교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박삼교 (朴三, 教, 11세)	박동교 (朴東教, 33세)	형	2007. 2. 13. (24차)	고성군 하이면 박동교 희생사건	
45	2006. 11. 6.	마 -6545	동래지역 신명동의 공비에 의한 납치사건	신옥재 (辛玉才, 2세)	신명동 (辛明同, 26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동래군 장안읍 신명동 희생사건	
46	2006. 11. 30.	마 -8759	산청지역 이술조의 공비에 의한 희생사건	이국상 (李國相, 4세)	이술조 (李述祚, 27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산청군 단성면 이술조 희생사건	
47	2006. 11. 30.	마 -9379	산청지역 박계원·고해 분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박을수 (朴乙洙, 5세)	박계원 (朴啓元, 45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산청군 금서면 박계원·고해분 부부 희생사건	
					고해분 (高海分, 43세)	어머니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조사개시 결정時 사건명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개시 결정일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48	2006. 11. 30.	마 -8828	산청지역 이상봉의 공비에 의한 희생사건	이두환 (李斗煥, 6세)	이상봉 (李尙鳳, 44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산청군 신안면 이상봉 희생사건	
49	2006. 11. 30.	마 -10451	하동지역 김영두의 공비에 의한 희생사건	김영하 (金榮河, 17세)	김영두 (金榮頭, 22세)	형	2007. 2. 13. (24차)	하동군 청암면 김영두 희생사건	
50	2006. 11. 21.	마 -7101	하동지역 김대석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김도야 (金道也, 3세)	김대석 (金大錫, 23세)	아버지	2007. 1. 23. (22차)	하동군 청암면 김대석 희생사건	
51	2006. 11. 22.	마 -8325	하동지역 남강희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남상대 (南相大, 8세)	남강희 (南剛熙, 28세)	삼촌	2007. 2. 20. (25차)	하동군 청암면 남강희 희생사건	
52	2006. 11. 30.	마 -9452	하동지역 김용세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김복덕 (金福德, 6세)	김용세 (金容世, 36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하동군 청암면 김용세 희생사건	
53	2006. 11. 30.	마 -8324	산청지역 하춘섭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사건	하용갑 (河龍甲, 13세)	하춘섭 (河春涉, 21세)	형	2007. 2. 20. (25차)	하동군 옥종면 하춘섭 희생사건	
54	2006. 11. 14.	마 -6808	함양지역 강인석의 공비에 의한 희생사건	강성구 (姜性求, 14세)	강인석 (姜仁錫, 30세)	삼촌	2007. 2. 13. (24차)	함양군 서상면 강인석 희생사건	
55	2006. 8. 2.	마 -4629	함양지역 박윤석의 빨치산에 의한 납치사건	박성도 (朴成道, 5세)	박윤석 (朴允錫, 32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함양군 백전면 박윤석 희생사건	
강제연행사건									
56	2006. 11. 30.	마 -10336	고성지역 최점림의 인민군에 의한 납치사건	최용판 (崔龍判, 5세)	최점림 (崔占林, 20세)	6촌형	2007. 2. 13. (24차)	고성군 영오면 최점림 강제연행 사건	
57	2006. 10. 9.	마 -5551	남해지역 박채영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박상홍 (朴祥洪, 2세)	박채영 (朴采英, 21세)	삼촌	2007. 1. 23. (22차)	남해군 남해읍 박채영 강제연행 사건	

제 3 권

연 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조사개시 결정時 사건명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개시 결정일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58	2006. 11. 22.	마 -7216	남해지역 하영모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하동선 (河東先, 3세)	하영모 (河永模, 29세)	아버지	2007. 1. 23. (22차)	남해군 삼동면 하영모 강제연행 사건	
59	2006. 11. 30.	마 -9883	산청지역 공영진의 인민군에 의한 납치사건	공차진 (20세)	공영진 (17세)	동생	2007. 2. 20. (25차)	산청군 생비량면 공영진 강제연행 사건	
60	2006. 3. 3.	마 -1964	마산지역 오성환의 인민군에 의한 납치사건	오경세 (吳慶世, 10세)	오성환 (吳成煥, 28세)	아버지	2007. 2. 20. (25차)	의창군 진북면 오성환 강제연행 사건	
61	2006. 10. 16.	마 -5670	합천지역 이동수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이사수 (李四洙, 20세)	이동수 (李東秀, 26세)	조카	2007. 1. 23. (22차)	합천군 합천읍 이동수 강제연행 사건	
62	2006. 11. 30.	마 -9242	산청지역 안학영의 빨치산에 의한 납치사건	안판옥 (安判玉, 65년생)	안학영 (安學榮, 23세)	삼촌	2007. 2. 20. (25차)	산청군 오부면 안학영 강제연행 사건	
63	2006. 11. 30.	마 -9972	함양지역 최순도의 인민군에 의한 납치사건	최희영 (崔熙永, 10세)	최순도 (崔淳燾, 23세)	아버지	2007. 2. 13. (24차)	함양군 서상면 최순도 강제연행 사건	
64	2006. 11. 22.	마 -7305	하동지역 김상곤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김종순 (金鐘順, 52년생)	김상곤 (金相坤, 21세)	아버지	2007. 1. 23. (22차)	하동군 북천면 김상곤 강제연행 사건	
상해사건									
65	2006. 11. 23.	마 -7433	함안지역 조경래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조기건 (趙己建, 60년생)	조경래 (趙敬來, 32세)	아버지	2007. 1. 23. (22차)	함안군 군북면 조경래 상해사건	
66	2006. 10. 30.	마 -10166	함양지역 김정대의 인민군에 의한 총상사건	장명순 (長命順, 21명)	김정대 (金政大, 25세)	남편	2007. 1. 23. (22차)	함양군 서하면 김정대 상해사건	

연 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조사개시 결정時 사건명	신청인 (당시 나이)	진실규명대상자		조사개시 결정일	조사결과 사건명	비고
					성명 (당시 나이)	신청인과 의 관계			
67	2005. 12. 6.	마 -110	사천지역 박문수의 인민군에 의한 부상사건	박문수 (朴文守, 18세)	박문수 (朴文守, 18세)	본인	2007. 2. 20. (25차)	사천군 남양면 박문수 상해사건	
68	2006. 11. 23.	마 -7533	함양지역 이업분의 공비에 의한 총상사건	이규명 (李圭明, 14세)	이업분 (李業分, 46세)	어머니	2007. 2. 13. (24차)	함양군 안의면 이업분 상해사건	

나. 신청내용

신청인 권숙현 등 74명은 한국전쟁 전후 경상남도 고성군 등 18개 시·군 일대에서 좌익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마-9178 등 68건의 신청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당시 희생당하거나 강제연행, 또는 상해를 입은 진실규명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이 제출한 진실규명 신청서와 진술조서를 통하여 확인한 주요 진술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희생사건					
1	마-9178	거창군 거창읍 표정준·표영수 희생사건	권숙현 (女, 33세)	목격 (희생)	-1949. 7. 6. 신청인의 시아버지 표정준, 남편 표영수가 거창읍 동번리 자택에서 빨치산들에게 희생당하였음. 빨치산들이 양식과 돈을 약탈한 뒤 총을 쏘고 달아났음. -시신수습 하였음.
2	마-3589	거창군 남상면 김형락 희생사건	김동신 (男, 2세)	전문 (작은 아버지)	-1949. 8. 20. 신청인의 아버지인 남상면사무소 직원 김형락이 감악산 연수사에 업무차 갔다가 공비들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 3) '사천군 삼척포읍 조두실 일가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 중 조종채는 생존하였으므로 강제연행사건으로 처리하였다.
- 4) '양산 오차홍 희생사건(마-7671)'은 오삼홍의 이름으로 2006. 11. 24. 신청되었으나, 오삼홍이 2007. 9. 14.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3	마-9369	동래군 기장면 이수용·김수광 희생사건	이연춘 (男, 23세)	목격 (시신 수습)	-1949. 7월(음력) 신청인의 아버지인 청 강리 이장 이수용이 청강리 무곡마을에서 지방 죄악들에게 돌에 맞아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마-10302		김맹덕 (男, 1세)	전문 (마을 사람들)	-1949. 7월(음력) 신청인의 아버지인 청 년단장 김수광이 집에 침입한 빨치산들에 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4	마-2940	밀양군 상동면 조오현 강제연행사건	조재길 (男, 2세)	전문 (가족)	-1949. 2월 신청인의 아버지 조오현은 빨치산들의 활동자금 및 식량 제공 요구 를 거절한 이유로 강제연행 된 후 행방불 명되었음. 당시 조오현은 상동면사무소 서기였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5	마-10235	밀양군 단장면 손제민 희생사건	박수연 (女, 51년생)	전문 (가족)	-1949. 6월(음력) 신청인의 시아버지인 손제민이 빨치산에게 누설자로 지목되어 단장면 미촌리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6	마-8320	산청군 단성면 권태국 희생사건	권우진 (男, 4세)	전문 (대한 청년단원)	-1949. 8. 9. 신청인의 할아버지인 대한 축성회 국민회 총무 권태국이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끌려가 8. 10. 산청군 단성면 수산리 어천부락 뒷산에서 인민재판을 받 고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7	마-9572	양산군 동면 김일성 희생사건	김연필 (男, 4세)	전문 (가족)	-1949년 여름 신청인의 아버지인 김일성 이 양산군 동면에서 죄악세력에게 협조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죄악에게 갈에 찔려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8	마-4246	울주군 범사면 김기오 희생사건	김종하 (男, 3세)	전문 (친척)	-1949. 10월 신청인의 아버지 사방관리 소 계장 김기오는 범사면 서사리 모래골 에서 동료 2명과 순찰 도중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9	마-3465	의령군 정곡면 전명권 희생사건	전영배 (男, 10세)	목격 (시신)	-1949. 3. 6. 신청인의 아버지인 민보단 단장 전명권이 정남국민학교 앞 논에서 지방죄악에게 죽창으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10	마-7992	창원군 북면 김기련 희생사건	안해시 (女, 22세)	전문 (마을사람)	-1949. 12. 12. 신청인의 남편 김기련은 면사무소 야간 당직 중 지방 죄악들에게 갈에 찔려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11	마-6006	하동군 양보면 이용규 희생사건	이보희 (女, 1950년생)	전문 (시신 수습한 큰어머니)	-1949. 12. 29.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한 청년단 훈련부장 이용규는 빨치산에게 끌 려가 집 뒷산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12	마-7380	함안군 군북면 이재근 희생사건	이창근 (男, 22세)	목격 (시신 수습)	-1949. 4. 25. 신청인의 육촌형 이재근 은 아산대(빨치산)에게 마을 경비초소로 끌려가 군북면장 이○○의 집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13	마-810	함안군 산인면 이진호 희생사건	이병우 (男, 19세)	목격 (시신 수습)	-1949. 10. 4. 신청인의 아버지인 산인면 부면장 이진호가 자택에서 지방좌익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14	마-6551	함안군 칠곡면 안기수 희생사건	배상시 (女, 23세)	목격 (시신 수습)	-1949. 10. 4.(음력 8. 13.) 신청인의 남 편인 칠곡면 오곡리 이장 안기수는 자경 단 활동 중 무장공비의 기습을 받아 희생 당하였음.
15	마-8298	함양군 마천면 서오목 희생사건	서동윤 (男, 14세)	목격 (연행)	-1949. 4. 10. 신청인의 고모인 서오목은 여관 겸 술집을 경영하던 중 자택에서 빨 치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되었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16	마-6813	합천군 합천읍 김영동 희생사건	김중겸 (男, 2세)	전문 (희생을 목격한 어머니)	-1949. 7. 4.(음력 6. 9.) 신청인의 아바 지인 장계리 이장 김영동이 자택에서 지 방좌익에게 빨치산을 신고하였다는 이유 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17	마-10331	고성군 거류면 이정수 희생사건	이삼수 (男, 11세)	목격 (희생)	-1950. 8. 16. 신청인의 형 이정수가 거 류면 은월리 자택에서 지방유지 집안의 사위라는 이유로 인민군과 좌익세력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18	마-9983	사천군 곤명면 임태웅 희생사건	임정의 (男, 1967년생)	전문 (가족)	-1950. 7. 30. 신청인의 삼촌 임태웅은 축동지서 순경으로 인민군을 피해 도피 중 곤명면 치안대에 잡혀 곤명면 완사리 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19	마-9857	사천군 삼천포읍 조두실 일가 희생사건	조종권 (男, 15세)	목격 (강제 연행 및 이송)	▶조두실 관련진술 -1950. 8. 18. 신청인의 큰아버지인 지방 유지 조두실이 실안동 치안대원에게 잡혀 자택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8. 21. 바다에 수장되었음. 조두실의 아들 조순암이 대 한청년단원이었음. -시신수습 하였음.
	박문욱 (男, 15세)		전문 (생환자 조종채)	-1950. 8. 23.~25.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한청년단원 박봉기는 실안동 치안대원 에게 잡혀 장인 조두실의 집에서 인민재 판을 받고 8. 27. 장모 김보배, 처남 조 종채, 조종출과 함께 수장되었음. -시신수습 하였음.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19	마-9858	사천군 삼천포읍 조두실 일가 희생사건	조종권 (男, 15세)	목격 (강제 연행 및 이송)	▶김보배, 조종채, 조종출 관련 진술 -1950. 8. 23. 신청인의 큰어머니 김보배와 사촌 형인 조종채, 조종출은 우익집안사람이라는 이유로 실안동 치안대원에게 잡혀 자택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1950. 8. 27. 박봉기와 함께 수장되었음. 네 사람 중 조종채는 생환하였음. -김보배 시신수습 하였음.
	마-9859				
	마-9860				
20	마-9855	사천군 삼천포읍 이내윤 희생사건	이정구 (男, 9세)	전문 (가족)	-1950. 8월경 신청인의 삼촌 이내윤은 자택에서 인민군에게 남양도기 회사원이라는 이유로 강제연행 되어 3일 간 남양면분주소 유치장에 감금된 후, 행방불명되었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21	마-7671	양산군 동면 오차홍 희생사건	오삼홍 (男, 24세) 박미옥 ⁴ (女, 19세)	전문 (희생 목격한 어머니)	-1950. 8월 신청인의 형 오차홍은 귀가 중 민보단 단장인 큰형 오○○으로 오인 받아 양산군 동면에서 공비들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22	마-6089	울주군 두서면 이기생 희생사건	이금이 (女, 14세)	목격 (희생)	-1949. 6. 16.(음력 5. 20.)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한청년단장 이기생이 빨치산 대장(박○○)이 마을에 나타난 사실을 신고한 이유로 울주군 전읍리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마-8477		윤미자 (女, 9세)	전문 (가족)	
23	마-6664	진양군 대곡면 김기호·김성호 형제 희생사건	김중남 (男, 11세)	목격 (연행)	-1950. 8. 13.경 신청인의 아버지인 공무원 김성호와 큰아버지인 지방유지 김기호 형제가 자택에서 인민군에게 강제연행된 후, 8. 15.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시신수습 하였음.
24	마-9581	하동군 양보면 김순기 희생사건	김만중 (男, 10세)	전문 (가족)	-1950. 8. 30.경 신청인의 아버지인 국민회 하동군 양보면 지부장 김순기는 지방좌익에게 강제연행되어 양보지서에 감금되었음. 인민군이 양보면에서 후퇴한 이후에 양보지서 앞 냇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시신수습 하였음.
25	마-10452	하동군 금성면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	엄태호 (男, 15세)	목격 (희생)	-1950. 8. 28.(음력 7. 15.) 엄갑수 등 엄씨 일가 8명이 지방좌익에 의해 수협창고에 감금되었다가 마도 백사장에 생매장되었음. 금성면 갈사리 연막부락에서 해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25	마-10454	하동군 금성면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	박순이 (女, 14세)	전문 (가족)	방 전부터 좌익 활동을 하였던 하씨와 갈 등이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그 갈등이 불거져 인민군 점령 당시 엄씨 일가가 희 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마-10455		하말순 (女, 16세)	목격 (희생)	
	마-10456		엄종석 (男, 4세)	전문 (어머니)	
26	마-9587	함양군 안의면 이윤택 희생사건	이찬수 (男, 15세)	전문 (같이 피난 갔던 교사)	-1950. 7. 28. 신청인의 아버지인 안의 국민학교 교장 이윤택은 동료 교사와 피 난 가던 중 초동리 박골마을에서 지방좌 익에게 붙잡혀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27	마-2603	함양군 서상면 박덕성 희생사건	박경숙 (女, 15세)	전문 (인민재판을 목격한 주민)	-1950. 7. 28.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한 청년단장 박덕성은 피난 가던 중 좌익세 력에게 붙잡혀 인민재판을 받고 서하면 강변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28	마-5718	함양군 마천면 김종환 희생사건	김순애 (女, 16세)	전문 (시신수습한 어머니)	-1950. 7월경 신청인의 오빠 김종환은 군 복무 중 발병한 늑막염을 치료하기 위해 집에 와 있다가 마천면에서 지방좌익에게 붙들려 인민재판을 받고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29	마-3983	함양군 지곡면 허문석 희생사건	노노미 (女, 23세)	목격 (시신)	-1950. 7. 27.경 신청인의 남편 허문석 은 대한청년단 지곡면 분단장으로 치안대 장 백○○에게 끌려가 지곡면 청평리 창 촌마을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30	마-982	함양군 지곡면 정무생 희생사건	정진경 (男, 5세)	전문 (가족)	-1950. 8. 30. 신청인의 아버지 정무생 은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분회장으로 지 방좌익들에게 공배마을 회관에서 인민재 판을 받고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31	마-5559	합천군 봉산면 이성주 희생사건	이태유 (男, 18세)	목격 (시신)	-1950. 8. 1. 신청인의 아버지 이성주는 피난 중 밤에 식량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인민군의 검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자 택 앞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32	마-9380	산청군 신안면 도태호 희생사건	도진오 (男, 7세)	전문 (시신수습한 형)	-1950. 9. 25.(음력 8. 14.) 신청인의 아 버지 도태호는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려 는 인민군에게 항의하다 정자나무 아래에 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33	마-6206	진주시 명석면 박성준 희생사건	박진구 (男, 15세) 구도순 (女, 8세) ⁵⁾	전문 (희생목격한 김○○)	-1950. 9. 26. 신청인의 아버지 박성준 은 자택에서 후퇴하던 인민군에게 끌려간 후 마을에서 2km 떨어진 남성리 웅장골 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시신수습 하였음.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34	마-7294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강갑이 희생사건	강철암 (男, 7세)	전문 (생환한 송○○)	-1950. 8월경 신청인의 아버지 강갑이는 동영군 도산면 법송리 이장이었는데 치안대 원에게 끌려가 도산분주소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함양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35	마-7475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김광호 희생사건	김부철 (男, 1세)	전문 (가족)	-1950. 8월경 신청인의 아버지인 진주시 나동면사무소 산림계 직원 김광호는 피신 중 치안대원에게 잡혀 진주 형무소에 감 금되었음. 이후 인민군 후퇴 시 산청군 외송면 고개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36	마-980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김윤찬 희생사건	김행규 (男, 1959년생)	전문 (가족)	-1950. 9. 25. 신청인의 삼촌인 경남도 청 지적과 직원 김윤찬은 추석에 고향인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에 왔다가 인민군에 게 지리산 방향으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 되었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37	마-9973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나승운 희생사건	라상목 (男, 1958년생)	전문 (가족)	-1950. 9. 27. 신청인의 할아버지인 병 곡면 연덕리 청년단장 나승운은 진주내무 서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대항 재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38	마-8826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녹이 희생사건	조현조 (女, 22세)	목격 (희생)	-1950. 8월경 신청인의 남편 박녹이는 전 쟁 전에 빨치산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 등 치안대로 잡혀가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산청읍 병전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39	마-6118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주원 희생사건	정옥이 (女, 3세)	전문 (가족)	-1950. 9. 21. 신청인의 시아버지인 남해 군청 내무과장 박주원은 자택에서 인민군에 게 끌려가 9. 25. 산청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40	마-3577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이동식 희생사건	이강주 (男, 4세)	전문 (함께 희생당한 김연준의 가족)	-1950. 7. 27.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한 청년단원 이동식은 대한청년단 사무실에 서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인민군 후퇴 시 산청군 적산 계곡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41	마-2994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전태식· 전만식 형제 희생사건	전병순 (男, 23세)	목격 (희생)	-1950. 9. 27.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한 청년단장 전만식과 큰아버지 전태식은 인 민군에게 끌려가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 다가 인민군 후퇴 시 함양군 지곡면 대항 재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42	마-8451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최만규 희생사건	김두자 (女, 1세)	전문 (가족)	-1950. 9. 25.(음력 8. 14.) 신청인의 시 아버지인 청년단 감찰부장 최만규는 자택 에서 치안대원에게 잡혀 문산 농협 창고 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함양군 지곡면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43	마-9244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황학구 희생사건	황귀영 (女, 11세)	전문 (가족)	-1950. 8월경 신청인의 오빠인 진주농업 대학 학도호국단장 황학구는 자택에서 인 민군에게 잡혀가 임시수용소인 진주농고 에 감금된 후 행방불명되었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44	마-9015	고성군 하이면 박동교 희생사건	박삼교 (男, 11세)	목격 (시신수습)	-1951. 6. 9. 신청인의 형인 고성군 하이 면 월흥리 이장 박동교는 자택에서 빨치 산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45	마-6545	동래군 장안읍 신명동 희생사건	신옥재 (女, 2세)	전문 (가족)	-1951. 6월 신청인의 아버지 신명동은 장안읍 임랑리 부주골마을 입구에서 경비 를 서던 중 공비들에게 동료 한 명과 강 제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46	마-8759	산청군 단성면 이술조 희생사건	이국상 (男, 4세)	목격 (연행)	-1950. 10. 4. 신청인의 아버지인 단성 면 창촌리 이장 이술조는 자택에서 빨치 산에게 단성면 길리로 끌려가 인민재판을 받고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47	마-9379	산청군 금서면 박계원·고해분 부부 희생사건	박을수 (男, 5세)	전문 (가족)	-1951. 5. 12.(음력 4. 7.) 신청인의 부모 인 박계원과 고해분은 마을사람들에게 빨 치산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려다 빨치산에 게 잡혀 집 뒷산에서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48	마-8828	산청군 신안면 이상봉 희생사건	이두환 (男, 6세)	전문 (어머니)	-1953. 3. 7. 신청인의 아버지 이상봉은 1949년 빨치산을 지서에 신고하고 보복이 두려워 피신하였다가 4년 후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 지방좌익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49	마-10451	하동군 청암면 김영두 희생사건	김영하 (男, 16세)	목격 (상해)	-1950. 6. 27. 신청인의 형 김영두는 자 택에서 빨치산에게 끌려가다 총상을 입고 진주도립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50	마-7101	하동군 청암면 김대석 희생사건	김도야 (男, 3세)	전문 (가족)	-한국전쟁 중 신청인의 아버지인 김대석 은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 행방 불명되었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51	마-8325	하동군 청암면 남강희 희생사건	남상대 (男, 8세)	전문 (대한 청년단원)	-1951. 2. 10. 신청인의 삼촌인 대한청년 단 기동대 소대장 남강희는 하동군 청암 면을 순찰하고 돌아오던 중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52	마-9452	하동군 청암면 김용세 희생사건	김복덕 (女, 6세)	전문 (가족)	-1950. 10. 28. 신청인의 아버지인 김용 세는 빨치산의 짐꾼으로 끌려간 후 행방 불명되었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53	마-8324	하동군 옥종면 하춘섭 희생사건	하용갑 (男, 13세)	목격 (연행)	-1952. 1월경 신청인의 형 하춘섭은 지 방자치대원으로 마을에서 보초를 서던 중 빨치산에게 잡혀가 행방불명되었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54	마-6808	함양군 서상면 강인석 희생사건	강성구 (男, 14세)	목격 (시신)	-1950. 10. 27.(음력 9. 17.) 신청인의 삼 촌인 특공대원 강인석은 사상국민학교에 서 근무 중 빨치산의 습격으로 희생당하 였음. -시신수습 하였음.
55	마-4629	함양군 백전면 박윤석 희생사건	박성도 (男, 5세)	전문 (가족)	-1951. 2. 19. 신청인의 아버지인 운산리 이장 박윤석은 탄피를 주워 집에 보관하 고 있다는 이유로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시신수습 못하였음.
강제연행사건					
56	마-10336	고성군 영오면 최점림 강제연행사건	최용판 (男, 5세)	전문 (아버지)	-1950. 8. 20. 신청인의 육촌 형 최점림 은 영오면 오서리를 점령한 인민군에게 강제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음.
57	마-5551	함양군 서하면 대황재 박채영 희생사건	박상홍 (男, 2세)	전문 (가족)	1950. 9. 25. 신청인의 삼촌인 남해 후생 병원 직원 박채영은 후퇴하던 인민군에게 강제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음.
58	마-7216	남해군 삼동면 하영모 강제연행사건	하동선 (男, 3세)	전문 (가족)	-1950. 9월경 신청인의 아버지인 목공기 술자 하영모는 남해군 삼동면 지족조선소 에 가던 중 인민군에게 강제연행된 후 행 방불명되었음.
59	마-9883	산청군 생비량면 공영진 강제연행사건	공차진 (男, 20세)	목격 (연행)	-1950. 8월경 신청인의 동생 공영진은 생비량면 가계리에서 인민군에게 의용군 으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60	마-1964	의창군 진북면 오성환 강제연행사건	오경세 (男, 10세)	전문 (가족)	-1950. 8월경 신청인의 아버지 오성환은 진북면 추곡리 내추마을에서 후퇴 중이던 인민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조사결과 사건명	신청인 (성별, 당시 나이)	사건인지 과정	주요 진술내용
61	마-5670	합천군 합천읍 이동수 강제연행사건	이사수 (男, 20세)	전문 (가족)	-1950. 8월경 신청인의 조카인 창덕국민 학교 교사 이동수는 인민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62	마-9242	산청군 오부면 안학영 강제연행사건	안판옥 (男, 1965년생)	전문 (가족)	-1950. 10. 26.(음력 9. 16.) 신청인의 삼촌 안학영은 피신 중 할머니 제사를 모 시러 집에 왔다가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63	마-9972	함양군 서상면 최순도 강제연행사건	최희영 (男, 10세)	전문 (가족)	-1951. 4. 14. 신청인의 아버지 최순도는 서상면 소로마을 서한경의 집에 고용인으 로 있던 중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 명되었음.
64	마-7305	하동군 북천면 김상곤 강제연행사건	김종순 (女, 1952년생)	전문 (친척)	-1951. 12. 9.(음력 11. 10.) 경 신청인의 아버지 김상곤은 북천면 서항리에서 빨치 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상해사건

65	마-7433	함안군 군북면 조경래 상해사건	조기건 (男, 60년생)	전문 (가족)	-1948. 8. 1. (음력 7. 7.) 신청인의 아버 지 조경래는 동촌리 신창마을 회의 중 마 을회관을 습격한 빨치산들에게 총상을 입 고 후유증을 겪다 1985년에 사망하였음.
66	마-10166	함양군 서하면 김정대 상해사건	장명순 (女, 21세)	전문 (진실규명대 상자)	-1950. 7월경 신청인의 남편 김정대는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청년단 간부로 인 민군에게 체포되어 문산내무서에 감금되 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함양군에서 총상 을 입고 생환하였으나 총상 후유증을 겪 다가 1996년 사망하였음.
67	마-110	사천군 남양면 박문수 상해사건	박문수 (男, 18세)	진실규명 대상자	-1950. 7월경 신청인 박문수는 인민군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사천군 남양면 와룡 산에서 참호를 파던 중 인민군의 발길에 채여 언덕 아래로 떨어져 진주도립병원 에서 왼쪽 발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음.
68	마-7533	함양군 안의면 이업분 상해사건	이규명 (男, 14세)	목격 (상해)	-1950. 10월 초 신청인의 어머니 이업분 은 자택에서 안의지서를 습격한 빨치산에 게 총상을 입고 팔을 절단한 후 후유증을 겪다 1975년 사망하였음.

사망하여 아내인 박미옥을 신청인으로 2009. 7. 8. 신청인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 5) '진주지역 박성준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마-6206)'은 박진구의 이름으로 2006. 10. 24. 신청되었으나, 박진구가 2007. 12. 10. 사망하여 아내인 구봉옥을 신청인으로 2009. 6. 9. 신청인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이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사건발생 시기, 장소, 피해규모,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와 가해주체 및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과제

본 사건의 진실규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의 발생 시기·장소 및 피해규모를 규명한다.

둘째, 진실규명 대상자의 피해사실 여부를 규명한다.

셋째, 사건의 가해주체 및 이유를 규명한다.

4. 조사방법

사건조사를 위해 관련 문헌자료와 기관 소장 자료를 검토했으며,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가. 문헌자료 조사

문헌자료 조사는 사건 관련 논문 등의 선행연구 자료, 한국전쟁 관련 피해자가 등재되어 있는 각종 명부,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수집기록물, 신문자료, 국가기록원 소장 재판기록, 각 시·군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규명 대상자의 희생 및 강제연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⁶⁾,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⁷⁾, 『6.25동

6)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피살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있다. 한국전쟁 중 인민군과 좌익에게 희생된 민간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통계국장을 비롯한 9명이 참여하였고, 이들이 만든 양식을 지방 행정계통을 통해 조사하도록 했다. 2003년 월간조선사에서는 『6.25 피살자 59994명』을 펴냈다. 이 책을 통해서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

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내무부 치안국, 1954)⁸⁾, 『월북자 명단』(공보처 통계국, 1951)⁹⁾, 『순국 반공 청년운동 유공자 관계 서류록』(이하 ‘유공자 관계 서류록’)¹⁰⁾, 『거제포로수용소 DB』¹¹⁾, 『희생자 인명 DB』¹²⁾ 등 각종 명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진실규명 대상자의 피해사실과 피해규모를 파악하였고, 파악한 내용은 참고인 및 신청인의 진술로 다시 확인하였다.

둘째, 진실규명 대상자들의 경력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의 소장 자료를 수집·검토하였다. 경남도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등 시·군청과 각 지역 경찰서와 교육청, 사방관리소,¹³⁾ 각 읍·면사무소 및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진실규명 대상자들이 근무했던 경력을 일부 확인하였다. 또한, 진실규명 대상자들의 제적등본을 입수하여 생년월일과 사망연월일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였다.

셋째, 신청인 및 참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빨치산·지방좌익 등의 제적등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각 읍·면사무소,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입수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각급 법원 『판결문』¹⁴⁾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각 지역의 시·군지 등의 지역사 자료와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진실규명 대상 사건의 실재 여부와 한국전쟁 당시 경상남도의 지역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국 극동군 사령부 일일정보 요약(1950. 6. 1.~1951. 4. 11.)』¹⁵⁾과 『미(美)전쟁

처 통계국, 1952)에서 누락된 희생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 7)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피납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있다. 이 명부에는 82,959명의 피납자가 등재되어있다.
- 8)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에는 피납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납치 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일 기재되어있다. 이 명부에는 17,940명이 등재되어있다.
- 9) 『월북자 명단』에는 월북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월북연월일, 경력, 당력, 주소, 본적 등 9개 항목이 기재되어있다. 국가기록원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던 자료로 10,290명이 등재되어 있다.
- 10) 『순국 반공 청년운동 유공자 관계 서류록』(내무부 상훈과, 1963)
-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http://www.imhc.mil.kr>>, 『거제포로수용소 DB』에는 수용자의 포로번호, 성명, 계급, 처리상태, 처리일자, 생년월일, 아버지 성명, 통지자 주소 등 8개 항목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 12)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사업회, <<http://www.war625.com>>, 본 단체는 한국전쟁 당시 반공투사, 대한청년단, 노무자, 우익인사 등 민간인 신분 희생자들의 원혼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활성화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희생자 인명 DB』는 40년간 본 단체에서 발굴·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 13) 사방관리소는 당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현재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통폐합 되어 있다.
- 14) 『판결문 색인부(공안 및 관련사범)』(법무과, 1950)
- 15)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Intelligence Summary 1950. 6. 1.~1951. 4. 11; 진실·화해를

제 3 권

범죄 조사단 보고서』(이하 KWC)¹⁶⁾ 자료를 통해 경남지역에 대한 북한의 점령정책, 북한에서 내려온 정치간부의 활동,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중 경남지역 적대세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서는 KWC #171로 함양군 서하면 전만식·전태식 형제 희생사건(마-2994)을 포함하는 '대항재 희생사건'을 다루고 있다. KWC #171 문서는 1950. 9. 27.~28. 함양 근처에서 국군, 경찰, 민간인 등 약 50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경남지역의 당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은 KWC #382, #384, #893, #1147 등으로 확인하였다. KWC #382에는 1950. 7. 5.~6. 진주 인근에서 빨치산에 의해 민간인 50명, 군인 20명이 희생된 사실, KWC #384에는 1950. 8. 25. 진주 지역 인근에서 인민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 KWC #893에는 1950. 9. 12.~9. 16. 거창 지역에서 인민군에 의해 국군, 경찰,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 KWC #1147에는 1950. 9. 3.경 창녕군에서 인민군에 의해 민간인 3명이 희생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다섯째, 한국전쟁 동안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함양군청, 함양경찰서, 하동군청 등에서 기존에 조사한 자료 중 진실규명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공호국희생자 합동위령탑(서울 남산)에 각명된 명단 및 설립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끝으로 전반적인 한국전쟁의 흐름과 한국전쟁 당시 지역적 상황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종 한국전쟁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된 논문을 참조하였다.¹⁷⁾

나. 참고인 진술조사

참고인 진술조사는 참고인 1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고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첫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주민들과 사건이 발생했던 인근 지역에 거주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발굴한 문헌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시 발생했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마이크로필름스캔파일(14롤) M/F연번: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007. 7. 6.

16) NARA, RG 153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War Crimes Branch: Investigation of Atrocities Against POW's in Korea, 1952-5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7) 참조한 책과 논문 명은 본 보고서 해당 사항의 인용 및 각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던 정치 상황을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등 관공서에 근무했던 참고인들을 면담하였다. <표 3>은 참고인 명단과 주요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1	거창군 거창읍 표정준· 표영수 희생사건 (마-9718)	표○○ (남, 17세)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목격 (희생)	손자, 사촌동생	진술조서/ 2009.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부농이었으며, 표정준의 아들 표○○가 제헌의회 국회의원이었음. • 희생시기: 1949. 7. 5.(음력 6. 10.) • 희생장소: 거창읍 동변리 자택 • 제사일: 6. 9.(음력) • 사건내용: 경찰복장을 한 30여 명의 빨치산이 집에 쳐들어와 식량과 돈을 약탈한 후 총을 쏘고 달아났음. • 가해자: 빨치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2		표○○ (남, 19세)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목격 (희생)	일가친척	진술조서/ 2009. 6. 2.	
3	거창군 남상면 김형락 희생사건 (마-3589)	김○○ (남, 13세)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전문 (김○○)	조카	진술조서/ 2009.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남상면사무소 서기 • 희생시기: 1949. 8. 9.(음력 7. 15.) • 희생장소: 거창군 감악산 연수사 • 제사일: 7. 14.(음력) • 사건내용: 감악산 연수사에 갔다가 빨치산에게 잡혀 돌에 맞아 희생당하였음. • 가해자: 빨치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과 마을주민)
4		오○○ (남, 21세)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4.	
5		정○○ (남, 13세)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8.	
6		김○○ (남, 25세)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전문 (감악산에 같이 간 사람)	친구	진술조서/ 2009. 7. 29.	
7	동래군 기장면 이수용· 김수광 희생사건 (마-9369, 마-10302)	김○○ (남, 14세)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	목격 (사건발생 후 현장)	김수광의 외조카	진술조서/ 2009.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광 관련 진술 • 희생자 인적사항: 청년 단장 • 희생시기: 1950. 8월 새벽 3~4시 • 희생장소: 기장군 청강리 무곡마을 • 사건내용: 김수광은 떡메로 머리를 맞아 죽었다고 들음. 희생자의 집 마당은 피가 흥건했음. 이장 이수용은 마을 옆 철길에서 희생됐음. • 가해자: 빨치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과 마을주민)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진술 형태/ 일자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8	동래군 기장면 이수용· 김수광 희생사건 (마-9369, 마-10302)	김○○ (남, 13세)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	전문 (부친과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수광, 이수용 관련 진술 • 희생자 인적사항: 김수광은 청년 단장이었고, 당시 3천평 정도 농사 짓고 있었음. 이수용은 이장. • 희생시기: 1949. 8. 6.(음력 7. 12.) 밤 10시쯤 • 사건내용: 같은 날 빨치산들이 두 패로 나눠서 한 패는 청년단장을, 다른 한 패는 이장을 죽였음. 김수광은 마을청년 4~5명과 함께 있었는데, 빨치산들이 희생자만 끌어내 온몸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음. 이수용 이장은 머리를 돌에 맞아 희생당하였음. • 가해자: 빨치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과 마을주민) 	
9		김○○ (남, 1세)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	전문 (어머니와 친척들)	김수광의 아들(마- 10302의 신청인)	진술조서/ 2009.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용 관련 진술 • 희생자 인적사항: 마을이장 • 희생시기: 1949. 7월 • 희생장소: 기장군 청강리 무곡마을 • 사건내용: 이수용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밖으로 끌고 나가 잔인하게 죽였다고 들었음. • 가해자: 빨치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과 마을주민) 	
10	밀양군 상동면 조오현 희생사건 (마-2940)	윤○○ (남, 22세)	밀양군 상동면 신곡리	목격 (연행)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일제 강점기에 면서기 활동 • 연행시기: 1947. 2월 오후 3시쯤 • 사건내용: 경찰복장을 한 빨치산 10여 명이 마을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희생자를 끌고 갔음. 그 후로 행방불명임. • 연행이유: 빨치산들이 희생자에게 돈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했음. 	
11	밀양군 단장면 손제민 희생사건 (마-10235)	이○○ (남, 23세)	밀양군 단장면 미촌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한천공장에 다니며, 농사 병행 • 희생시기: 1949년 한여름 밤 • 희생장소: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 사건내용: 희생자의 집에 지방좌익과 빨치산 5~6명이 찾아와 희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11							생자를 동회 앞으로 끌고 가 몽둥이로 때려죽인 후 근처에 던져 놓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 지방좌익과 빨치산 •가해이유: 밀고자로 오인 받음.
12	밀양군 단장면 손제민 희생사건 (마-10235)	반○○ (남, 14세)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농사지으며 산 외면 한천공장에서 농한기에 돈벌이를 하고 있었음. •희생시기: 1949. 7. 13.(음력 6. 18.) •사건내용: 빨치산들이 마을 부호 이경일이 집에 없어, 전날 유일하게 마주친 희생자를 누설자로 지목하여 몽둥이로 때려죽였음.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13		이○○ (남, 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대한축성회국민회 산청지부 총무, 양조장 운영 •희생시기: 1949. 8. 9.(음력 7. 15.) •희생장소: 단성면 어천부락 •제사일: 7. 15.(음력)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경찰)
14		이○○ (남, 8세)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목격 (연행)	외손자	진술조서/ 2008.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대한축성회국민회 산청지부 총무, 양조장 운영 •희생시기: 1949. 8. 9.(음력 7. 15.) •희생장소: 단성면 어천부락 •제사일: 7. 15.(음력)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경찰)
15	산청군 단성면 관태국 희생사건 (마-8320)	이○○ (여, 14세)	산청군신안면 신안리	목격 (연행)	외손녀	진술조서/ 2009.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대한축성회국민회 산청지부 총무, 양조장 운영 •희생시기: 1949. 8. 9.(음력 7. 15.) 끌려간 후 사망 •희생장소: 단성면 어천부락 •제사일: 7. 15.(음력)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경찰)
16		권○○ (남, 20세)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전문 (대한청년 단원)	대한청년 단원	진술조서/ 2009.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한국전쟁 전(1949년) •희생장소: 단성면 어천부락 웅석봉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경찰)
17	양산군 동면 김일성 희생사건 (마-9572)	김○○ (남, 26세)	양산군 동면 석산리	목격 (희생)	5촌 조카	진술조서/ 2009.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해방 전에 소방단장(김석철로 불렸음) •희생시기: 1949년쯤 모내기철 •희생장소: 양산시 동면 석산리 •사건내용: 논에서 일하던 중 좌익세력에게 칼로 희생당하였음. •가해자: 지방 좌익과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진술 형태/ 일자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18	울주군 범사면 김기오 희생사건 (마-4246)	김○○ (남, 15세)	울주군 성안리	목격 (시신목격 및 수습)	조카	진술조서/ 2009.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울산읍 사방관 리소 계장 • 희생시기: 1949. 10. 6.(음력 8. 15.) • 사건내용: 산에 빨치산이 숲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2명과 산에 올라갔다가 빨치산들에게 희생당하였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참고인과 아버지) 	
19	의령군 정곡면 전명권 희생사건(마 3465)	전○○ (여, 12세)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전문 (부모님)	동생	진술조서/ 2009.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민보단 단장, 정남국민학교 설립, 의령군의 대표적인 우익인사 • 희생시기: 1950. 2. 7. • 사건내용: 빨치산이 희생자를 뒤 따라가며 총을 쏘자 논으로 피하였으나, 칼에 찔려 희생당하였음. • 가해자: 지방 좌익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 	
20	창원군 북면 김기련 희생사건 (마-7992)	김○○ (남, 16세)	창원군 북면 화천리	목격 (시신)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북면 면사무소 근무 • 희생시기: 1949. 12월 • 희생장소: 창원시 북면 면사무소 • 사건내용: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빨치산에게 목과 팔다리를 칼에 찔려 희생당하였음. 희생자를 죽인 후 면사무소를 방화하였음. 같은 날, 대한청년단장 정모씨가 희생당하였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마을사람들) 	
21	창원군 북면 김기련 희생사건 (마-7992)	김○○ (남, 10세)	창원군 북면 대산리	목격 (시신매장)	친척 (6촌동생)	진술조서/ 2009.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면사무소 직원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경찰 생활을 했음. • 제사일: 12. 23.(음력) • 가해이유: 좌익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면사무소 앞에서 보초를 섰던 사람) 	
22		황○○ (남, 14세)	창원군 북면 대산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북면사무소 근무(김기현으로 불렸음) • 희생시기: 1949. 12월 • 사건내용: 면사무소에서 동료 손영수와 잔무처리를 하던 중 지방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22	창원군 북면 김기련 희생사건 (마-7992)						익에게 목과 팔다리를 칼에 찔려 사망하였음. 시신은 면사무소 앞 배수로에서 발견하였음. 같은 날 대한청년단장 정모씨도 희생당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 지방작익 시신수습: 수습하였음.(마을사람들)
23	하동군 양보면 이용규 희생사건 (마-6006)	김○○ (여, 21세)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목격 (희생)	형수	진술조서/ 2009.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대한청년단 양보면 훈련부장 희생시기: 1949. 10. 31.(음력 9. 10.) 희생장소: 우복리 하성마을 뒷산 사건내용: 경찰복장을 한 빨치산이 집에 찾아와 희생자를 끌고 갔는데, 얼마 후 총소리가 들려 가보니 이미 사망하였음.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24		이○○ (남, 25세)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전문 (대한청년 단원)	대한 청년단 동료	진술조서/ 2009.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49. 늦가을 희생장소: 우복리 하성마을 뒷산 사건내용: 희생자를 빨치산이 잡아가는 도중 격투가 벌어져, 희생자를 총살당하였다고 들었음.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25	함안군 군북면 이재근 희생사건 (마-7380)	조○○ (남, 24세)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49. 4. 25. (음력 3. 28.) 희생장소: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사건내용: 사촌 부락의 야간공민중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희생자를 빨치산이 붙잡아 면장 이○○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아 총으로 희생당하였음. 희생자가 사망한 후인 음력 8월 초에 면장 이○○의 집이 방화되었음.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26	함안군 산인면 이진호 희생사건 (마810)	이○○ (남, 19세)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목격 (시신)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산인면사무소 부면장 희생시기: 1949년 추수 전 희생장소: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사건내용: 빨치산들이 희생자를 마당에 앉혀놓고 희생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쏘았다고 들음. 가해이유: 우익 집안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마을주민)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진술 형태/ 일자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27	함안군 산인면 이진호 희생사건 (마810)	이○○ (남, 26세)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목격 (시신)	옆집 주민	진술조서/ 2009.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의 인적사항: 부면장 • 희생시기: 1949년 추수 전 • 사건내용: 빨치산이 희생자를 마당으로 끌어내 죽인 후, 확인 사살까지 했음. • 가해자: 빨치산 	
28		김○○ (남, 20세)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오곡마을 이장 • 희생시기: 1949. 10. 4.(음력 8. 13.) • 희생장소: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 사건내용: 빨치산들이 마을회관을 습격해 사람들을 내보낸 후, 이장인 희생자만 칼로 찔러 죽였고, 희생자의 집을 방화하였음. • 가해자: 빨치산 • 가해이유: 빨치산들이 산에 먹을 것을 가져다 놓으라고 했는데 희생자가 말을 듣지 않고 지서에 신고를 했음. 	
29	함안군 칠곡면 안기수 희생사건 (마-6551)	배○○ (여, 25세)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목격 (시신수습)	부인	진술조서/ 2009.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이장이었음.(안판수로 불렸음) • 희생시기: 1949. 10. 3.(음력 8. 12.) • 사건내용: 얼굴에 마스크를 한 여러 명이 희생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뒷산으로 올라갔음. 희생자는 마을회관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가슴 부위를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30		안○○ (남, 17세)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목격 (시신수습)	사촌	진술조서/ 2009.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49. 10. 4.(음력 8. 13.) 밤 11시쯤 • 사건내용: 희생자의 집에 난 불을 끄고 마을회관에 갔더니 희생자가 손이 뒤로 묶인 채 칼에 찔려 죽어있었음. 마을사람들로부터 가해자가 빨치산이라고 들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마을주민) 	
31	함양군 마천면 서오목 희생사건 (마-8298)	서○○ (여, 21세)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목격 (연행)	조카	진술조서/ 2009.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여관 겸 술집을 경영하였음. • 연행시기: 1949. 4월경(음력) • 연행장소: 마천면 창원리 자택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32		노○○ (남, 19세)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내용: 마을에 식량을 약탈하러 왔던 빨치산이 희생자를 반동분자라며 끌고 간 후 행방불명임. 이후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33	합천군 합천읍 김영동 희생사건 (마-6813)	김○○ (남, 15세)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마을이장 •희생시기: 1949. 6월경(음력) •희생장소: 합천읍 장계리 자택 •사건내용: 희생자가 빨치산이 마을로 내려오는 걸 보고 지서에 신고한 후 빨치산이 와서 희생자의 집을 부수고, 집 뒤로 끌고 가 총살하였음. 같은 날, 대한청년단장인 이○○의 집도 파손하였으나 이○○은 도망가 목숨을 건졌음. •가해자: 지방좌익,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34		김○○ (남, 14세)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5월경(음력) •희생장소: 자택 •가해주체: 지방좌익, 빨치산 •가해이유: 빨치산을 신고하였음.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35	고성군 거류면 이정수 희생사건 (마- 10331)	김○○ (남, 23세)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목격 (시신)	옆집 주민	진술조서/ 2009.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8월~9월 •희생장소: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참고인 집 앞 •가해자: 인민군 •사건내용: 희생자가 집에 들어온 인민군을 보고 도망가자 인민군이 총을 쏘았음.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36		김○○ (남, 16세)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목격 (시신)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7월~8월 •희생장소: 거류면 은월리 자택 주변 •가해자: 인민군 •사건내용: 희생자가 마을에 들어온 인민군을 보고 피하자 인민군이 총을 쏘았음.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37	사천군 곤명면 임태용 희생사건 (마-9983)	임○○ (남, 25세)	사천군 정동면 대곡리	목격 (시신)	동생	진술조서/ 2009.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사천군 축동 지서 순경으로 근무 •희생시기: 1950. 7월 말~8월 초 •희생장소: 곤양면 완사동 홍사리 골짜기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 지방좌익 •시신수습: 수습 못함(참고인과 형 임○○이 함께 시신을 수습하러 갔으나 폭우로 인해 시신이 떠내려감)
38	사천군 삼천포읍 조두실 일가 희생사건 (마-9856~ 마-9860)	조○○ (남, 17세)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생존자	조두실의 4남	진술조서/ 2009.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조두실과 김보배의 아들 조순암과 사위 박봉기가 대한청년단원이었음. • 희생시기: 조두실은 1950. 8. 21.(음력 7. 8.), 박봉기, 김보배, 조종채, 조종출은 1950. 8. 27.(음력 7. 14.) • 희생장소: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앞 바닷가.
39		조○○ (남, 15세)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목격 (연행)	조두실의 조카	진술조서/ 2009.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일: 조두실 음력 7. 7. 박봉기, 김보배 음력 7. 13. • 사건내용: 희생자들이 각각 피신하였는데, 조두실이 먼저 치안대원에게 잡혀 자택으로 끌려와 인민재판을 받고 수장되었음. 그 후, 조두실의 부인김보배와 아들 조종채, 조종출, 사위박봉기가 치안대원에게 잡혀 조두실의 집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산채로 수장되었음. 그 중 조두실의 아들 조종채만 탈출하여 생존하였음.
40		조○○ (남, 25세)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조두실의 장례를 치름	조두실의 차남	진술조서/ 2009.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늑도 치안대, 실안동 치안대 • 시신수습: 조두실, 김보배, 박봉기의 시신은 수습함.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탁봉윤
41	사천군 삼천포읍 이내윤 희생사건 (마-9855)	김○○ (여, 23세)	사천군삼 천포읍 신벽리	전문 (친척)	6촌제수	진술조서/ 2009.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남양도기 사원 • 연행시기: 1950. 8월경 • 연행장소: 사천군 삼천포읍 신벽리 자택
42		김○○ (남, 17세)	사천군 삼천포읍 신벽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의용군으로 징발된 후 행방불명임. 같은 시기에 마을사람 3~4명도 의용군으로 징발된 후 돌아오지 않았음. • 가해자: 인민군
43		오○○ (남, 14세)	양산군 동면	목격 (희생)	조카	진술조서/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7월 중순(음력) • 희생장소: 양산시 동면 가산리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43			가산리			7. 8.	<p>자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희생자가 빨치산에게 민보단 단장인 형 오○○으로 오인 받아 집 앞에서 희생당하였음. • 가해자: 빨치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44	양산군 동면 오차흥 희생사건 (마-7671)	김○○ (남, 19세)	양산군 동면 가산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희생자의 큰형 인 오○○이 마을 청년단체에서 활동했고 집에서 주점을 했음. • 희생시기: 1948년 쯤 • 희생장소: 양산시 동면 가산리 자택 • 사건내용: 희생자는 형 오○○으로 오해 받아 빨치산에게 집 앞에서 도끼로 희생당하였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45	울주군 두서면 이기생 희생사건 (마-8477)	손○○ (여, 13세)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목격 (시신)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청년단장 • 희생시기: 1950. 4월~5월쯤 • 희생장소: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 사건내용: 희생자가 빨치산을 지서에 신고한 다음 날, 빨치산들이 집에 있던 장작으로 때려 죽였다고 함. • 가해자: 박○○의 빨치산 무리
46	진양군 대곡면	김○○ (남, 8세)		목격 (연행)	조카	진술조서/ 2009.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김기호는 지방 유지, 김성호는 의령군 건설과 근무 • 희생시기: 1950. 8. 18.~20.일경 • 희생장소: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47	김기호· 김성호 형제 희생사건 (마-6664)	김○○ (남, 18세)	의령군 화정면 상2리	전문 (친척)	6촌 할아버지	진술조서/ 2009.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마을에 들어온 인민군 선발대에게 김기호와 김성호 형제가 김기호의 집에서 강제연행 된 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48		김○○ (남, 13세)		전문 (친척)	5촌 조카	진술조서/ 2009. 6. 9.	
49	하동군 양보면	김○○ (남, 23세)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목격 (연행 목격 및 시신수습)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국민회 양보면 지부장 • 희생시기: 1950. 인민군 점령 당시 • 희생장소: 양보파출소 앞 냇가
50	김순기 희생사건 (마-9581)	정○○ (남, 11세)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희생자가 치안대원에 끌려가 감금되었다가, 인민군이 마을에서 후퇴한 후 양보파출소 앞 냇가에서 김수구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51	하동군 양보면 김순기 희생사건 (마-9581)	황○○ (남, 11세)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 지방좌익, 인민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마을주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김수구(대한청년단원)
52	하동군 금성면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 (마-10452)	신○○ (남, 15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7.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대한청년단원 •희생시기: 1950. 8. 28.(음력 7. 15.) •희생장소: 수협창고, 마도 백사장 •사건내용: 해방 전부터 엄씨 일가와 하씨 일가 간에 사이가 안 좋았음. 한국전쟁 전에 하씨 일가 보도연맹가입자로 희생당하였음. 전쟁으로 인민군이 점령하자 하씨 일가가 엄씨 일가 20여 명을 감금하고 구타한 후, 마도 백사장에 생매장하였음. •가해자: 지방좌익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마을주민)
53		고○○ (남, 16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목격 (감금)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8. 28.(음력 7. 15.) •희생장소: 수협창고, 마도 백사장 •희생규모: 엄씨 일가 외 정길수 •가해자: 지방좌익 •가해이유: 엄씨 일가 대부분이 대한청년단원이었음. •시신수습: 수습하였음.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정길수(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던 정길수의 형 대신 엄씨 일가와 함께 희생당하였음.)
54		배○○ (여, 20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정길수의 형수)	진술조서/ 2009.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8. 28.(음력 7. 15.) •희생장소: 수협창고, 마도 백사장 •희생규모: 엄씨 일가 외 정길수 •가해자: 지방좌익 •가해이유: 엄씨 일가 대부분이 대한청년단원이었음. •시신수습: 수습하였음.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정길수(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던 정길수의 형 대신 엄씨 일가와 함께 희생당하였음.)
55	함양군 안의면 이윤택 희생사건 (마-9587)	이○○ (남, 10세)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전문 (피난 갔다 돌아온 교사)	아들	진술조서/ 2009.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안의국민학교 교장 •희생시기: 1950. 7. 27.(음력 6. 14.) •희생장소: 초동리 박골 •제사일: 6. 13.(음력) •사건내용: 인민군이 안의면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가던 중 초동리 박골에서 지방좌익에게 붙들려 희생당하였음. •가해자: 빨치산, 지방좌익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56		박○○ (남, 16세)	함양군 안의면	전문 (마을 사람들)	제자	진술조서/ 2009.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안의국민학교 교장 •희생시기: 1950. 7. 25.경(인민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57	함양군 안의면 이윤택 희생사건 (마-9587)	강○○ (남, 14세)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전문 (마을 사람들)	제자	진술조서/ 2009. 7. 23.	군이 안의면에 들어올 무렵) • 희생장소: 초동리 박골 • 사건내용: 인민군이 안의에 들어 오기 전에 동료 교사들과 피난을 가던 중 초동리 박골에서 총살당하 였다고 들었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58	함양군 서상면 박덕성 희생사건 (마-2603)	한○○ (남, 13세)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목격 (연행)	연행현장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3.	• 희생자 인적사항: 서상면 공의이 며, 대한청년단장이었음. • 희생시기: 1950. 7월 말경 • 희생장소: 서상면소재지 • 사건내용: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 에 피난을 가던 중 서하면 운곡리 에서 지방좌익에게 잡혀 서상면소 재지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희생당 하였음. • 가해자: 인민군
59		박○○ (남, 22세)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연행현장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3.	
60	함양군 마천면 김종환 희생사건 (마-5712)	서○○ (남, 14세)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목격 (연행 장면)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8. 22.	• 희생자의 인적사항: 군인 • 희생시기: 1950. 8. 6.(음력 6. 23.) • 희생장소: 마천면 군유림관리사 무소 도로변 • 사건내용: 희생자가 함양읍에서 마천면 창원리로 피신오던 날, 참 고인 서○○의 아버지 서상인과 함 께 치안대로 끌려가 인민재판을 받 고 희생당하였음. • 가해자: 지방좌익, 인민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희생자의 어머니와 참고인 김○○의 아버지)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서 상인, 전북 남원군 산내면장
61		김○○ (남, 16세)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목격 (연행 장면)	친척	진술조서/ 2009. 9. 4.	
62	함양군 지곡면 허문석 희생사건 (마-3983)	정○○ (남, 24세)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목격 (연행)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3.	• 희생자 인적사항: 지곡면 공배리 이장, 대한청년단 지곡면 분단장 • 희생시기: 1950. 여름 • 희생장소: 지곡면 창평리 창촌마 을 앞산 • 사건내용: 한국전쟁 전에 희생자 가 참고인 정○○을 시켜 빨치산을 신고하였는데, 인민군이 지곡면에 들어온 후, 그에 대한 보복으로 희 생자와 참고인 정○○을 치안대에 감금하고 고문하였음. 참고인 정○
63		오○○ (남, 32세)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사건 담당 형사	경찰	진술조서/ 2009. 7. 23.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63							○은 풀려났으나 희생자는 총살당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 지방좌익(치안대원)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64	함양군 지곡면 정무생 희생사건 (마-982)	임○○ (여, 28세)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목격 (희생)	친척	진술조서/ 2009.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8월(음력) •희생장소: 공배리 마을회관 •제사일: 8. 6.(음력) •사건내용: 희생자와 희생자의 당숙인 정귀홍이 마을회관 앞에서 좌익들에게 구타당하여 사망하였음. 희생자가 사망하기 전에 희생자의 형 정축생이 치안대에 끌려가 고문으로 희생당하였음. •가해자: 지방좌익 •가해이유: 좌익세력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시신수습: 수습하였음(정씨 일가)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정축생, 정귀홍
65		노○○ (남, 20세)	진주시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지곡면 공배리 이장 •희생시기: 1950. 8월경(음력) •희생장소: 공배마을 회관 •사건내용: 옆 마을 지방좌익에게 붙들려 마을회관 앞에서 구타당하여 사망하였음. 희생자의 당숙인 정귀홍이 같은 날 희생당하였음. •가해자: 지방좌익
66	합천군 봉산면 이성주 희생사건 (마-5559)	최○○ (여, 22세)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목격 (시신)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7. 29.(음력 6. 15.) •희생장소: 봉산면 계산리 자택 앞 •사건내용: 인민군 선발대가 마을에 들어오자 마을사람들이 뒷산으로 피신하였음. 희생자가 밤에 식량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인민군의 검문에 응하지 않아,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음. •가해자: 인민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67		이○○ (남, 13세)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9. 25.(음력 8. 14.) •희생장소: 심거마을 정자나무 아래 •사건내용: 희생자가 살았던 단성면 방목리는 소개되어 밤에는 신안
68	산청군 신안면 도태호 희생사건	이○○ (남, 21세)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9. 25.(음력 8. 14.) •희생장소: 심거마을 정자나무 아래 •사건내용: 희생자가 살았던 단성면 방목리는 소개되어 밤에는 신안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진술 형태/ 일자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69	(마-9380)	최○○ (남, 12세)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	<p>면 심거마을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방목리에서 농사를 지었음. 후퇴하던 인민군이 심거마을에 잠시 머물며 희생자의 소를 끌고 가자 소를 뺏기지 않으려고 항의하던 중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 인민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마을주민) 	
70	진주시 명석면 박성준 희생사건 (마-6206)	김○○ (여, 22세)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9. 26.(음력 8. 15.)경 •희생장소: 진주시 명석면 용장골 •사건내용: 함안전투에서 부상당한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였음. 이후 인민군 후퇴 시 부상병을 데리고 갈 것을 강요받아 박성준을 포함한 마을사람들이 부상병을 데리고 갔음. 용장골에서 박성준이 같이 갈 것을 거부하자 인민군이 총살하였음. 피난 중이던 참고인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음. •가해자: 인민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71		구○○ (여, 18세)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목격 (시신수습)	조카 며느리	진술조서/ 2009.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0. 9. 26.(음력 8. 15.)경 •희생장소: 진주시 명석면 용장골 •가해자: 인민군 •가해이유: 인민군 후퇴 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부역동원으로 끌려 갔으나 인민군의 협조를 거부하여 희생당하였음.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72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강갑이 희생사건 (마-7294)	송○○ (남, 25세)	통영군 도산면 수월리	목격 (희생)	강갑이와 함께 연행 되었다가 생환함.	진술조서/ 2008. 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의 인적사항: 통영군 도산면 법송리 이장 •희생시기: 1950년 인민군 후퇴 시 •희생장소: 함양 •사건내용: 참고인과 함께 도산분주소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함양에서 희생당하였음. 참고인 송○○는 생환하였음. •가해자: 인민군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73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강갑이 희생사건 (마-7294)	조○○ (남, 9세)	통영군 도산면 법송리	목격 (연행)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년 인민군 후퇴 시 • 희생장소: 지리산 • 사건내용: 인민군이 통영을 점령하였을 때, 인민군이 희생자에게 마을의 소를 잡아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도산분주소로 끌고 갔음. 인민군 후퇴 시 행방불명되었음. • 가해자: 지방좌익, 인민군 • 가해이유: 마을이장
74		강○○ (여, 17세)	통영군 도산면 법송리	목격 (연행)	딸	진술조서/ 2009.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년 인민군 후퇴 시 • 희생장소: 지리산 • 사건내용: 인민군이 통영을 점령하자 피신하였다가 집에 잠깐 들렀는데, 치안대원들이 잡아가 도산분주소에 25일 정도 감금되었음. 인민군 후퇴 시 지리산에서 희생당했다고 참고인 송○○에게 들었음. • 가해자: 인민군, 지방좌익 • 시신수습: 수습하지 못하였음.
75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김광호 희생사건 (마-7101)	윤○○ (남, 8세)	진주시 유곡동	목격 (연행)	일가친척	진술조서/ 2009.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부농이었음. • 희생시기: 1950. 인민군 후퇴 시 • 희생장소: 산청군 외송면 쇠고개 • 사건내용: 희생자가 참고인과 같은 집에 피난 중이었는데, 치안대원들이 찾아와 희생자를 잡아갔음. 진주가 수복된 후 희생자와 같이 끌려갔다가 생환한 사람한테 희생자가 산청에서 희생당했다고 들었음. • 가해자: 인민군, 치안대원
76		김○○ (여, 21세)	진주시 유곡동	목격 (연행)	딸	진술조서/ 2009.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부농이었으며 진주시 나동면사무소 산림계 직원이었음. • 희생시기: 인민군 후퇴 시 • 희생장소: 함양군 • 사건내용: 산청에 피신 중이었는데, 치안대원들에게 체포되어 진주로 다시 끌려왔음. 유곡동 민가에 10일 정도 감금되었다가 진주형무소로 이송된 후, 함양에서 희생당했다고 들었음. • 가해자: 인민군, 치안대원 • 시신수습: 수습하지 못하였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77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나승운 희생사건 (마-9973)	나○○ (여, 10세)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목격 (연행)	딸	진술조서/ 2009.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대한청년단장 • 희생시기: 인민군 후퇴 시 • 희생장소: 대항재 • 사건내용: 1948년 말, 희생자의 사돈인 빨치산 하○○이 희생자의 집을 찾아왔는데 경찰에 신고하여 ○○○이 체포되었음. 그 후 인민군이 함양을 점령하자 지방좌익이 희생자를 끌고 가서 구타하고 돌려보냈다가 다시 함양내무서에서 진주내무서로 이송하였는데, 수복 후 함양에서 희생당했다고 들었음. • 가해자: 인민군, 지방좌익 • 시신수습: 수습하지 못하였음.
78		박○○ (남, 10세)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여름 • 희생장소: 지곡면 대항재 • 가해자: 인민군 • 가해이유: 빨치산 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
79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녹이 희생사건 (마-8826)	양○○ (남, 17세)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26.(음력 8. 15.)경 • 희생장소: 산청읍 부근 • 제사일: 8. 15.(음력) • 가해자: 지방좌익, 인민군 • 사건내용: 희생자가 1949년에 빨치산을 발견하고 양○○과 허○○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허○○이 이상봉을 시켜 지서에 신고하였음. 이후 인민군이 산청을 점령하자 허○○과 이상봉은 피신하였고, 희생자와 양문용, 허군이 치안대로 끌려갔다가 양문용과 허군이 교문으로 희생당하였고, 희생자는 인민군 후퇴 시 산청읍 부근에서 희생당하였음.(이상봉도 1953년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부인, 마을주민)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양문용, 허군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진술 형태/ 일자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80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녹이 희생사건 (마-8826)	조○○ (남, 24세)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26.(음력 8. 15.)경 • 희생장소: 산청읍 병진 • 가해자: 인민군, 지방좌익 • 가해이유: 1949년 빨치산을 신고했다는 이유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양문용, 허근 	
81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주원 희생사건 (마-6118)	류○○ (남, 26세)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목격 (연행)	옆집 주민	진술조서/ 2009.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남해군청 내무과장 • 희생시기: 1950. 9. 21.(음력 8. 10.) • 희생장소: 산청 • 사건내용: 미군이 상륙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청으로 가다가 인민군에게 잡혀 삼천포 선착장으로 이송된 후, 산청 쪽으로 끌려가서 총살당함. • 가해자: 인민군 • 가해이유: 남해군청 내무과장 경력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82		김○○ (남, 22세)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21.(음력 8. 10.) • 희생장소: 산청 • 사건내용: 박주원은 인민군이 남해에 들어오자 피신하였다가 미군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군청에 가던 중 인민군에게 잡혀 산청 쪽으로 끌려가서 희생당하였음. • 가해자: 인민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83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이동식 희생사건 (마-3577)	이○○ (여, 9세)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목격 (연행)	여동생	진술조서/ 2008.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하동의 신문사 지국장을 하였으며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음. 부농이었음. • 희생시기: 1950년 여름. • 희생장소: 함양 • 사건내용: 대한청년단원인 ○○○, 사천경찰서장 신정옥, 하동경찰서 순경 김연준과 함께 치안대에 감금되었다가 함양에서 희생당했다고 생환한 정○○에게 들음. • 가해자: 인민군, 지방좌익 • 시신수습: 수습하지 못하였음.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신정옥, 김연준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진술 형태/ 일자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84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이동식 희생사건 (마-3577)	신○○ (남, 23세)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전문 (생환한 정한영)	후배	진술조서/ 2009.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하동의 신문사 지국장을 하였으며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음. 부농이었음. • 희생시기: 1950년 여름. • 희생장소: 산청, 진주형무소 부근 • 사건내용: 대한청년단원인 정○○, 사천경찰서장 신정욱과 함께 치안대에 감금되었다가 진주형무소 부근에서 희생당했다고 생환한 정○○에게 들음. • 가해자: 인민군, 지방좌익 • 시신수습: 수습하지 못하였음.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신정욱, 김연준 	
85		김○○ (여, 31세)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전문 (가족)	친척	진술조서/ 2009.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일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농이었음. • 희생시기: 1950년 여름 • 희생장소: 산청군 • 사건내용: 인민군이 하동을 점령하자 피신하였는데, 피신지에서 치안대원들에게 붙잡혀 치안대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산청에서 희생당했다고 희생자와 같이 희생당한 김연준의 가족에게 들었음. • 가해자: 인민군, 치안대원 • 시신수습: 수습하지 못하였음. 	
86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전태식· 전만식 형제 희생사건 (마-2994)	윤○○ (남, 9세)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목격 (시신)	대항재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 9. 26.(음력 8. 15.) • 희생장소: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 사건내용: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던 사람들을 참고인이 사는 마을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에서 집단 총살하였음. 당시 참고인의 아버지가 대항재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돌봐주었고, 시신수습을 도왔음. • 가해자: 인민군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배동혁(서하면 황산리 대한청년단 부단장) 	
87		장○○ (남, 26세)	진양군 미천면 오방리	목격 (시신)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진양군 미천면 안간리 이장,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이며 부농이었음.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87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최만규 희생사건 (마-10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0년 인민군 후퇴 시 • 희생장소: 함양 • 사건내용: 인민군이 진주를 점령한 후 지방좌익의 밀고로 문산치안대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함양에서 희생당하였음. • 가해자: 인민군, 지방좌익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88		황○○ (여, 19세)	진주시 칠암동	목격 (연행)	사촌동생	진술조서/ 2009.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진주농업대학 학도호국단장 • 연행시기: 1950. 8월경 • 연행장소: 진주시 칠암동 자택 주변
89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황학구 희생사건 (마-9244)	황○○ (여, 13세)	진주시칠 암동	전문 (가족)	6촌동생	진술조서/ 2009.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인민군이 진주를 점령하자 희생자의 가족들이 피신하였는데, 식량이 떨어져 희생자가 식량을 구하러 나왔다가 인민군에 붙잡혔음. 진주농대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행방불명 되었음. 당시 진주농대에는 칠암동, 도동, 망경동 등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많았음. 인민군 후퇴 시 총살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음. • 가해자: 인민군
90		강○○ (남, 19세)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월흥리 이장 • 희생시기: 1951. 6월경 • 희생장소: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 사건내용: 와룡산 빨치산이 내려와 마을의 우익인사를 잡아들였음. 참고인과 박동교, 박○○이 잡혔는데, 빨치산이 마을 한가운데서 박동교만 총으로 쏘아 죽였음. • 가해자: 삼천포 와룡산 빨치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91	고성군 하이면 박동교 희생사건 (마-9015)	박○○ (남, 23세)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목격 (사건현장 및 시신)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1년 보리타작할 무렵 • 희생장소: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 사건내용: 빨치산이 마을의 우익 청년들을 잡아 마을 가운데에서 희생자만 총살하였음. 참고인은 숨어 있어서 총소리만 들었고, 빨치산이 가고 난 후 시신을 보았음. • 가해자: 빨치산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92	동래군 장안읍 신명동 희생사건 (마-6545)	박○○ (남, 16세)	동래군 장안읍 임랑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행시기: 52~3년 휴전 전 초겨울 •연행장소: 동래군 장안읍 임랑리 •사건내용: 마을 입구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희생자를 빨치산들이 연행해 간 후 행방불명임. •가해자: 빨치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정운조(희생자와 같이 연행됐음)
93	산청군 단성면 이술조 희생사건 (마-8759)	이○○ (남, 19세)	산청군 단성면 길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창촌리 이장 •희생시기: 1950. 10월 초경(음력) •희생장소: 단성면 길리 •사건내용: 빨치산이 인민재판을 한다고 모이라고 했음. 참고인의 아버지가 인민재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창촌리 이장인 희생자가 창촌리에서 끌려와 인민재판을 받았음. 인민재판 도중 희생자가 뛰어나가 자 총살하였음.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94		이○○ (남, 15세)	산청군 단성면 길리	목격 (희생)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4.	
95	산청군 금서면 박계원· 고해분 부부 희생사건 (마-9379)	민○○ (남, 23세)	산청군 금서면 특리	목격 (희생)	특공대 소대장	진술조서/ 2009.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자 인적사항: 민보단 간부 •희생시기: 1950년 인민군 후퇴 시 •희생장소: 자택 뒷산 •사건내용: 특공대 소대장인 참고인이 마을 경비를 위해 근무 준비를 하고 있었음. 마을에 빨갱이가 들어왔다는 희생자의 소리를 듣고 출동하였으나, 희생자가 집 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가해자: 지방좌익,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마을주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민희식(의용군으로 끌려가 도망치다 잡혀서 총살당하였음)
96		박○○ (여, 13세)	산청군 금서면 특리	목격 (시신)	딸	진술조서/ 2009.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생시기: 1951. 4. 16. •희생장소: 자택 뒷산 •가해자: 지방좌익, 빨치산 •가해이유: 전쟁 전 민보단 간부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마을주민)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97	산청군 금서면 박계원· 고해분 부부 희생사건 (마-9379)	민○○ (남, 14세)	산청군 금서면 특리	전문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49년 봄 • 희생장소: 자택 뒷산 • 사건내용: 사건 당일 희생자의 고함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으나 무서워서 나가보지는 못하였음. • 가해자: 빨치산 • 가해이유: 민보단 간부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마을주민)
98	산청군 신안면 이상봉 희생사건 (마-8828)	양○○ (남, 17세)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인적사항: 대한청년단 동원부장 • 희생시기: 1951년 • 희생장소: 자택 • 사건내용: 1949년 이장 허○○의 지시로 빨치산을 지서에 신고하여 빨치산 3명을 현장에서 사살하는 공을 세웠음. 그 후 보복이 두려워 피신하였다가 1951년 잠깐 집에 들렀는데, 빨치산에게 잡혀 총살당하였음. • 가해자: 빨치산(희생자의 신고로 사살된 빨치산의 동생)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99	산청군 신안면 이상봉 희생사건 (마-8828)	조○○ (남, 24세)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3년 • 희생장소: 자택 • 가해자: 빨치산 • 가해이유: 1949년 빨치산을 신고했기 때문에 보복당하였음. • 시신수습: 수습함
100	산청군 신안면 이상봉 희생사건 (마-8828)	김○○ (남, 15세)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전문 (마을 사람들)	외조카	진술조서/ 2009.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시기: 1953년 • 희생장소: 자택 • 가해자: 지방좌익 • 사건내용: 1949년 빨치산을 신고하여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는데, 그때 사망한 빨치산의 동생이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빨치산이 되어 희생자를 총살하였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101	하동군 청암면 김영두 희생사건 (마-10451)	안○○ (남, 12세)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전문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시기: 1950년 인민군 후퇴 시 • 상해장소: 마을 모퉁이 도랑 • 사건내용: 마을로 '보급투쟁'을 나왔던 빨치산에게 끌려가다 총상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102		정○○ (남, 12세)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전문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7.	을 입고 4개월 후에 사망하였음. •가해자: 빨치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김 만제, 김위태
103	하동군 청암면 김대석 희생사건 (마-7101)	김○○ (남, 16세)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목격 (연행)	동생	진술조서/ 2009. 6. 9.	•연행시기: 1950년 말 •연행장소: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자택
104		김○○ (남, 13세)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목격 (연행)	동생	진술조서/ 2009. 7. 29.	•사건내용: 낮에는 한지공장에 다 니고 밤에는 피신하고 있었는데, 한지공장에서 퇴근한 뒤에 빨치산
105		이○○ (남, 11세)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5.	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임.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문태구, 하상문, 정민화, 장을도
106	하동군 청암면 남강희 희생사건 (마-8325)	구○○ (남, 11세)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6.	•희생자 인적사항: 대한청년단 기 동대 소대장 •희생시기: 1951. 3. 17.(음력 2. 10.) •희생장소: 청암면 때죽나무거리 •사건내용: 청암면에 빨치산이 온 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청암면 일대 를 순찰하고 돌아오던 중, 대한청 년단원 임기봉과 함께 잠복 중인
107		김○○ (남, 22세)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7.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음.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임 기봉
108	하동군 청암면 김용세 희생사건 (마-9452)	김○○ (남, 21세)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전문 (생환자)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7.	•희생시기: 1951. 10월경(음력) •희생장소: 청암면 목계리 빈 집 •사건내용: 1951. 10월 말경, 빨치 산의 짐꾼으로 끌려갔다가 도망하 여 소개당한 마을인 목계리 빈집에 서 빨치산에게 붙잡혀 희생당했다 고 자수한 빨치산에게 들음.
109		김○○ (남, 18세)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전문 (김○○)	외조카	진술조서/ 2009. 7. 28.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지 못하였음.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양 도봉, 김만제, 김위태
110	하동군 옥중면 하춘섭 희생사건 (마-8324)	정○○ (남, 13세)	하동군 옥중면 중하리	생환자	같이 끌려간 동료	진술조서/ 2009. 5. 21.	•희생시기: 1951년 겨울 •희생장소: 지리산 •사건내용: 1951. 12월경(음력), 참 고인과 함께 빨치산에게 지리산으 로 끌려갔음. 희생자는 도망치다가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110	하동군 옥종면 하춘섭 희생사건 (마-8324)						붙잡혀 희생당했다는 소리를 들었 음. 참고인은 교전 중 군인에게 잡 혀 광주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다 나왔음.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지 못하였음.
111		정○○ (남, 17세)	하동군 옥종면 안개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5.	•희생시기: 1951년 겨울 •사건내용: 방위대 숙소에서 보초 를 서다가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 행방불명임.
112		정○○ (남, 22세)	하동군 옥종면 안개리	전문 (자수한 빨치산)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15.	•희생시기: 1951년 겨울 •희생장소: 지리산 •사건내용: 빨치산에게 지리산에 끌려갔음. 희생자가 도망치다가 붙 잡혀 대창에 희생당했다고 자수한 빨치산에게 들었음.
113	함양군 서상면 강인석 희생사건 (마-6808)	김○○ (남, 17세)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목격 (희생)	특공대원	진술조서/ 2009. 7. 24.	•희생시기: 인민군 후퇴 후(빨치 산이 서상면소재지를 습격한 날) •희생장소: 서상국민학교 후문 •사건내용: 특공대원으로 서상국 민학교에서 보초를 서던 중 빨치산 의 습격을 받아 희생당하였음.
114		이○○ (남, 12세)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옆집 주민	진술조서/ 2009. 7. 24.	•가해자: 빨치산 •시신수습: 수습하였음.(가족)
115	함양군 백전면 박윤석 희생사건 (마-4629)	장○○ (남, 19세)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목격 (연행)	특공대원	진술조서/ 2009. 7. 25.	•희생자 인적사항: 운산리 이장 •연행시기: 1951. 2월경(음력) •연행장소: 자택 •사건내용: 마을 주변 전투현장에 널린 탄피를 희생자가 보관하고 있 었는데 백전지서를 습격하러 왔던 빨치산이 탄피를 발견하고, 희생자 를 강제연행한 후 행방불명임.
116		허○○ (남, 17세)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5.	•가해자: 빨치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김 종식, 임송아지
강제연행사건							
117	고성군 영오면 최점림 강제연행 사건 (마-10336)	송○○ (남, 17세)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9.	•연행시기: 1950. 9. 26.(음력 8. 15.)경 •연행장소: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사건내용: 후퇴하는 인민군이 피 해자와 마을사람들 여러 명을 끌고 갔는데, 그 후로 행방불명임.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진술 형태/ 일자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118	고성군 영오면 최점림 강제연행 사건 (마-10336)	이○○ (남, 19세)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목격 (연행장면)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행시기: 1950년 인민군 후퇴 시기 연행장소: 고성군 구만면 용와리 사건내용: 인민군이 후퇴할 당시 참고인과 피해자가 약품과 환자를 이송하는 데 동원되어 지리산 방향으로 끌려갔는데, 그 후 행방불명임. 	
119	남해군 남해읍 박채영 강제연행 사건 (마-5551)	박○○ (남, 7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동	전문 (어머니)	동생	진술조서/ 2009.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행시기: 1950. 9. 25.(음력 8. 14.) 연행장소: 남해읍 후생병원 사건내용: 인민군이 후퇴할 당시 남해읍 후생병원에서 약품을 약탈하고 후생병원에 근무하던 피해자와 마을사람들을 트럭에 태워간 후 행방불명임. 가해자: 인민군 	
120	남해군 삼동면 하영모 강제연행 사건 (마-7216)	이○○○ (여, 36세)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전문 (마을 사람들)	6촌형수	진술조서/ 2009.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행시기: 1950년 인민군 점령기 연행장소: 남해군 삼동면 지족마을 사건내용: 남해군 삼동면 지족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민군이 강제연행한 후 행방불명임. 가해주체: 인민군 	
121	산청군 생비량면 공영진 강제연행 사건 (마-9883)	김○○ (남, 17세)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목격 (연행)	희생자와 같이 끌려간 친구	진술조서/ 2009.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행시기: 1950. 8월경(음력) 사건내용: 참고인과 피해자가 보국대로 동원되어 지리산까지 짐을 날랐는데, 참고인은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았음. 	
122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	이○○ (남, 17세)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	목격 (연행)	희생자와 같이 끌려간 친구	진술조서/ 2009.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행시기: 1950. 8월경(음력), 추석 지난 후. 사건내용: 인민군이 후퇴할 때 치안대에서 짐꾼을 강제로 조직하여 참고인과 피해자가 지리산까지 짐을 옮겨주었음. 참고인은 도망왔으나 희생자는 행방불명임. 	
123	의창군 진북면 오성한 강제연행 사건 (마-1964)	오○○ (남, 21세)	의창군 진북면 추곡리	전문 (마을 사람들)	친척	진술조서/ 2009.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행시기: 1950년 여름 사건내용: 인민군의 짐꾼으로 동원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음. 가해자: 인민군 	
124	의창군 진북면 추곡리	오○○ (남, 23세)	마산군진 북면 추곡리	전문 (가족과 마을 사람들)	면친척	진술조서/ 2009.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행시기: 1950년 여름 사건내용: 인민군의 짐꾼으로 동원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음. 가해자: 인민군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125	합천군 합천읍 이동수 강제연행 사건 (마-5670)	이○○ (남, 4세)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전문 (어머니)	아들	진술조서/ 2009.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의 인적사항: 국민학교 교사 • 연행시기: 1950년 추석 전 • 연행장소: 합천읍 외곡리 자택 • 사건내용: 인민군이 합천읍 점령하였을 당시 인민군에게 강제연행된 후 행방불명임. • 가해자: 인민군
126	산청군 오부면 안학영 강제연행 사건 (마-9242)	안○○ (남, 20세)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목격 (연행)	동생	진술조서/ 2009.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행시기: 1950. 10. 26.(음력 9. 16.) • 연행장소: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자택 • 사건내용: 피난 도중 할머니 제사를 모시러 왔다가 지방좌익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 안○○이 붙잡혔음. 마을에서 정야모(당시 오부면장의 부인)와 인민재판을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은 빨치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중기마을로 끌려가고 정야모는 희생당하였음. • 가해자: 빨치산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정야모
127		안○○ (남, 23세)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목격 (연행)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인적사항: 전쟁 전에 경비대에 입대하였음. • 연행시기: 1950. 9월(음력) • 연행장소: 자택
128		안○○ (남, 23세)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 안○○, 정야모가 인민재판을 받았는데, 정야모는 희생당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은 중기마을로 끌려갔음. 피해자의 형은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행방불명임. • 가해자: 빨치산
129		안○○ (남, 23세)	진주에 피신 중	전문 (마을 사람들)	친구/정야 모의 아들	면담보고/ 2009.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빨치산
130	함양군 서상면 최순도	한○○ (남, 132세)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행시기: 1951. 4. 14.경 • 연행장소: 서상면 대남리 서○○의 집
131	강제연행 사건 (마-9972)	박○○ (남, 21세)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내용: 피해자가 서○○의 집에서 일꾼으로 있었는데, 서○○의 집에 쳐들어온 빨치산에게 잡혀간 후 행방불명임.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진술 형태/ 일자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132	하동군 북천면 김상곤 강제연행 사건 (마-7305)	김○○ (여, 14세)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전문 (생환한 오빠)	여동생	진술조서/ 2009.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행시기: 1951년 겨울 •연행장소: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자택 •사건내용: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형이 모두 보국대원으로 끌려가 지리산까지 짐을 날랐음. 지리산에서 교전 중에 피해자의 두 형은 도망쳐 생환하였으나, 피해자는 빨치산에게 붙잡혀 행방불명임. 	
상해사건								
133	함안군 군북면 조경래 상해사건 (마-7433)	조○○ (남, 17세)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목격 (상해)	동생	진술조서/ 2009.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시기: 1949. 8. 1. 저녁 7~8시경 •상해장소: 마을회관 •사건내용: 마을회관에서 회의 중, 빨치산이 쳐들어와 좌익으로 전향을 거부하였던 마을이장과 마을유지 흥태만, 조순재를 총살하였는데, 그때 총상을 입었음. •가해자: 빨치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홍상도, 흥태만, 조순재 	
134	함양군 서하면 김정대 상해사건 (마-10166)	장○○ (남, 26세)	진양군 미천면 오방리	전문 (김정대)	매형	진술조서/ 2009.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자 인적사항: 일제시대에는 청년단 활동을 하였고, 미천면 오방리 이장이었음. •상해시기: 1950년 인민군 후퇴 시 •상해장소: 함양 •사건내용: 인민군 점령 당시 문산치안대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함양에서 인민군에게 총상을 입었음. •가해자: 지방좌익, 인민군 	
135	사천군 남양면 박문수 상해사건 (마-110)	이○○ (남, 24세)	사천군 용현면 신봉리	전문 (마을 사람들)	마을주민	진술조서/ 2009.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시기: 1950. 8월경 •상해장소: 삼천포방면 산에서 방공호를 팠음. •상해경위: 당시 삼천포에 육군이 상륙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삼천포 방면에 방공호를 팠는데, 방공호를 파던 중 인민군에 구타당하여 부상당함. 이후 왼쪽 발을 절단하였음. •가해자: 인민군 	

제 3 권

연번	사건명 (사건 번호)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사건 인지 과정	진실규명 대상자와 의 관계	진술 형태/ 일자	
136	함양군 안의면 이업분 상해사건 (마-7533)	하○ (남, 19세)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전문 (당시 마을소문)	마을주민	진술조사/ 2009.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시기: 1950. 10. 5.경 •상해장소: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지택 •사건내용: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총소리가 요란하였는데, 다음날 빨치산이 안의지서를 습격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가해자: 빨치산

다. 현지조사

현지조사는 2007. 1월부터 신청인 74명과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9. 5. 21.~9. 10. 총 20회의 현지조사를 통해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방문했으며, 참고인 136명을 조사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 시에는 사건과정과 피해경로 및 사건발생 현장을 확인했으며, 시·군청을 방문하여 지역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II.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한국전쟁 이전의 경상남도 상황

1948년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투쟁이 남한 전역에서 벌어졌다. 특히 1948. 10월 여순사건 이후에는 주로 오대산·태백산지구와 지리산지구에서 무장유격 투쟁이 전개되었다.

지리산 유격전구¹⁸⁾는 경남지방의 산청·함양·거창·합천·창녕·하동·진주·함안·사

18) 지리산 유격전구의 경우 1948년 11월부터 백운산과 지리산 주변 함양·하동·순천·구례·남원 등에서 15개 경찰지서를 완전 폐쇄하였고, 유격전구 내에서 인민위원회를 부활시켰으며, 부분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김남식,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전개』,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의 이해 I: 한국전쟁연구』, 1990, 136쪽.

천·남해, 전남북의 무주·장수·임실·남원·순창·구례·곡성·고창·장성·영광·무안·함평 등의 중소도시까지 영향을 미쳤다. 영남 유격전구는 경북의 경주·영천·영일·청도·경산 및 대구 주변 일대와 경남의 양산·울산·동래 및 부산 주위 일대까지 영향을 미쳤다.¹⁹⁾

1949년에 들어서면서 미군 철수와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유격투쟁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1949. 6월 남·북로동당이 ‘조선로동당’으로 통합되었고, 이들은 7월 평화통일선언을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9월 공세’²⁰⁾를 펼쳤다. 이를 위해 지역의 유격대를 오대산지구 1병단, 지리산지구 2병단, 태백산지구 3병단으로 구성된 인민유격대로 재편하였다. 이들 인민유격대는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또는 경찰서·군사령부에 대한 정면 공격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무력 유격투쟁에 대해 이승만 정부는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와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토벌작전을 진행했다. ‘9월 공세’를 계기로 대대적인 작전을 단행하여 10월 말부터 11. 1.까지 유격대의 본거지인 지리산지구를 포위하였고, 12. 15.까지 군경활동으로 유격대 섬멸작전을 펼쳤다. 이 같은 토벌작전은 1950. 4월까지 계속되었다.²¹⁾

나. 경상남도의 한국전쟁 상황

1) 경상남도 한국전쟁 상황

인민군은 1950. 7. 27.경 함양을 점령하기 시작하여 9. 28. 후퇴하기까지 약 2개월가량 낙동강 전선 서쪽을 점령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의 전황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1950년 일자별 전황²²⁾

시기	전황
7. 24.	미 제 24사단 진주, 거창, 안의, 하동 일대에 투입.
7. 25.	영동, 순천 함락.
7. 27.	안의 함락 / 미 제 24사단 합천에 사령부 설치.
7. 28.	미군 함양에서 철수. 황간의 미 제 25사단 제 27연대는 6일간의 전투로 인민군을 지연시킨 후 7월 29일 김천으로 후퇴.
7. 29.	인민군 하동 공격, 미군 김천으로 후퇴.
7. 30.	모든 미군부대가 진주에서 철수하고 함안으로 이동. 황간과 진주 함락 / 거창 함락으로 미 제24사단 명령으로 철수 / 예천 함락.

19) 김남식, 위의 책, 최장집 편, 1990, 137쪽.

20) 이는 1949년 9월에 입법기관을 선거하자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이었다. 김남식, 위의 책, 최장집 편, 1990, 143쪽.

21) 육군본부전사감실, 『공비토벌사』, 육군본부, 1954.

제 3 권

시기	전황
7. 31.	진주 함락.
8. 1.	안동 함락. 낙동강 철수 명령 및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 명령 하달. 미 제25사단 마산으로 이동.
8. 3.	인민군 '8월공격' 시작.
8. 4.	남북 160km 동서 80km의 낙동강 전선(Walker Line)으로 철수 완료.
8. 5.	낙동강 다리 모두 폭파.
8. 7.	인민군 도하하여 현풍, 창녕 공격.
8. 8.	현풍 함락. 마산은 킨트수임부대(미 제25사단 소속)에 의해 사수.
8. 11.	미군이 고성 점령 / 진동리-남지선까지 후퇴.
8. 13.~9. 15.	영산과 함안 함락 / 영천 함락 / 창녕 공격받음. 9.1~9.6 : 함안에 대한 반격.
9. 15.	인천 상륙작전, 연합군의 대반격.

인민군은 1950. 7. 27. 함양을 점령한 이후, 부산점령을 위해 전력을 마산-함안지역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8. 4.을 기점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남북 160킬로미터, 동서 80킬로미터의 이른바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었다.²³⁾ 낙동강 방어선을 두고 인민군과 연합군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함안군 여항산 전투는 경남지역 최대 격전지로 9. 17.까지 19차례의 교전이 있었다.²⁴⁾ 9월 중순 연합군의 수복작전이 진행되기까지 낙동강 방어선은 지켜졌고, 이에 따라 경남지방은 낙동강 방어선을 기점으로 서쪽은 인민군이 점령하였고, 동쪽은 연합군이 진주하였다.

1950. 9월 중순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연합군이 빠르게 인민군 점령지역을 수복하자,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고립되었던 인민군 패잔병들과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격대원으로 활동했던 지방좌익 및 부역주민들은 주변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상당 규모의 빨치산 세력을 형성하였다.²⁵⁾

특히, 낙동강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인민군 패잔병들은 경상남북도 산악으로 잠입하여

2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205쪽;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 IV, The United States Forces in the Korean War, June 1950-June 1951, chap. VII, 145-152쪽; Melbourne C. Chandler, Of Gary Owen in Glory 1960, 245-248쪽.

2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295~296쪽.

24) 함안군, 『함안군지』, 2002, 265~268쪽.

25) 조선노동당 경남도당은 임시 도기관 소재지였던 진주에서 지리산으로 후퇴해 유격대 편제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경남도당은 진주에서 분산 후퇴하고 있던 인민군과 기관원, 의용군, 지역민들을 규합하고 노동당, 인민위원회, 사회단체 구성원들을 모아 유격대를 편성했다.(민주신보, 1950. 11. 18.)

인근지역 주민들을 살상하거나 식량을 약탈했으며, 병참선을 차단하고 보급시설 및 물자들을 파괴하며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치안 공백상태에서 각 지역 경찰서들은 민병대와 특공대를 조직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치안위원회, 자치위원회와 각종 청년단체 등이 구성되어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하였다. 종전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는 수년 간 빨치산 소탕작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비 출몰이 잦았던 지리산 일대와 태백산맥 남쪽의 영남지역에 대한 공비특별 작전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²⁶⁾

아래 [그림 1]은 인민군이 진주했을 당시 경상남도의 전쟁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그림이다. 굵은 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지역은 인민군이 점령한 곳이고, 오른쪽은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다. 이는 낙동강 방어선과도 거의 일치한다.

[그림 1] 경남지역의 인민군 점령상황



26) 경남지방경찰청, 『경남경찰의 일』, 1996, 50쪽.

2) 인민군의 점령과 점령정책

인민군에 점령된 지역은 가장 먼저 군과 읍·면·동, 리 단위까지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진주에서 1950. 9. 3. 선거를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해방된 경남도 하동을 비롯해 함양·산청·거창·합천·진양·사천·의령·고성·남해 10 개 군의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는 지난 1일까지 승리적으로 완료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다.²⁷⁾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거나 복구되었지만 인민군의 점령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인민공화국에서 파견된 기관원의 지도에 의해 당정기관이 다시 결성되기 시작했다.

인민위원회는 치안유지를 위하여 각 동리마다 유격대(치안대)를 설치하였다. 유격대 편제는 군 단위에 유격대 대대장을, 면 단위에는 유격대 중대장을, 리 단위에는 소대장을 두었으며 마을 단위에는 자위대를 만들었다. 경찰력을 행사했던 내무서와 분주소도 설치했다.²⁸⁾ 인민군은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부역 동원, 의용군 징집, 식량 차출 등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연행, 구타로 인한 부상 등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익인사 색출에는 정치보위국을 중심으로 인민위원회, 자위대(치안대)와 민청원, 여맹원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였다. 정치보위국 산하 경찰조직은 시·군 내무서, 면분주소, 리 자위대로 이어지는 숙청을 담당한 부서였다. 인민위원장이나 당위원장이 숙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읍·면·동자위대에 제출하면, 인민위원회 위원과 치안대원들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체포하여 내무서나 분주소에 구금하였다. 이들에 대한 처리는 공식적으로 인민재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민재판에 의한 우익인사나 유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인민군 정규군이 아니라 대부분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이거나 지방좌익에 의해 저질러졌다.²⁹⁾

그러나 9월 하순 무렵에 함양과 지리산 주변에서 일어난 집단학살의 경우 인민군의 후퇴작전 중 포로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학살로 밝혀졌다. 인민군 작전사령부에서는 후퇴명령과 함께 유엔군 상륙 시 인민군에 장애가 될 모든 요소를 제거할 것과 각 지역의 감금자들을 북으로 후송하거나 후송이 곤란할 경우 현지에서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다.³⁰⁾

또한 인민군은 1950년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토지개혁 정령에 따라 ‘무

27) 『조선인민』, 1950. 9. 6; 김정현, 『민중과 전쟁의 기억-1950년 진주』, 선인, 2007, 178쪽에서 재인용.

28) 전남일보사 편, 『광복 30년』 제3권, 전남일보사, 1975.

29) 김문현, 『남로당 지방당 조직의 활동상을 밝힌다』, 『역사비평』, 1988, 겨울호, 역사와비평사, 1998.

30)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454~455쪽.

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소작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개혁 집행은 '농촌위원회' 또는 '농민위원회'가 담당하였다.³¹⁾ 그러나 이미 전쟁 전에 남한 정부가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했던 데다, 추수를 하기도 전에 인민군이 후퇴해버렸기 때문에 문서상의 분배에 그쳤다.

2. 사건 발생 시기·장소 및 피해규모

가.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의 자료 검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6.25사변 피살자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표 5〉에 『6.25사변 피살자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희생자 수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5〉 문헌자료 상의 경상남도 피해규모

(단위: 명)

	경남지역	6.25사변 피살자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순국반공청년 운동자 명부
총계	21시군	691명	1,744명	775명
1	거제	-	-	2
2	거창	77	48	63
3	고성	45	78	11
4	김해	3	-	-
5	남해	55	262	19
6	마산	-	1	20
7	밀양	11	-99	41
8	부산(동래)	2	5	31
9	사천(삼천포)	91	370	74
10	산청	48	211	99
11	양산	15	7	10
12	울산(울주)	33	18	15

31) 장미승, 「북한의 남한점령정책」,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0, 183~184쪽.

제 3 권

	경남지역	6.25사변 피살자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순국반공청년 운동자 명부
13	의령	33	49	3
14	진주(진양)	84	91	38
15	창녕	1	7	7
16	창원(의창)	12	2	27
17	통영	13	13	11
18	하동	122	290	105
19	함안	5	36	28
20	함양	-32)	185	130
21	합천	41	71	41

1) 『6.25사변 피살자 명부』와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 상 희생규모

『6.25사변 피살자 명부』와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총 희생자의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각 시·군 별 희생자의 분포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명부의 작성주체와 작성시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6.25사변 피살자 명부』는 한국전쟁 중 인민군과 좌익에게 학살된 민간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문서이고,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는 청우회에서 작성하여, 우익청년단 활동 등 특정단체에서 활동한 인사의 명단이 실려 있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한국전쟁 당시 경남지방에서 좌익에서 희생된 희생자 수는 691명이고, 이중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는 진실규명 대상자 12명 포함되어있다.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에 기록된 경남지역 희생자는 774명으로, 이 중 진실규명 대상자 1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명부에 기재된 희생자 수에 비해 진실규명 대상자가 적은 것은 본 위원회의 신청 접수기간이 짧았고, 경남전체 희생규모에 비해 적은 사건이 접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는 전쟁 이전의 적대세력에 의한 경남지역의 희생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시기별로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쟁 초기인 1950년에는 경남 전역에서 희생자들이 발생되었고, 1951년 이후의 희생은 주로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리산 주변지역과 부산·울산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었다.

32) 함양지역의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는 피살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피살 장소를 기준으로 100여 명이 넘는 수가 함양지역에서 피살되었다.

〈표 6〉 경상남도 시기별 희생자 수

(단위: 명)

시·군 \ 년도	1949년	1950년	1951년	계
총계	8	1,375	361	1,744
거창	2	23	23	48
고성	-	70	8	78
남해	-	262	-	262
마산	-	1	-	1
부산(동래)	-	3	2	5
사천(삼천포)	-	359	11	370
산청	-	165	46	211
양산	-	6	1	7
울산(울주)	-	13	5	18
의령	1	42	6	49
진주(진양)	-	91	-	91
창녕	-	7	-	7
창원(의창)	-	2	-	2
통영	-	13	-	13
하동	-	72	218	290
함안	-	36	-	36
함양	5	152	28	185
합천	-	58	13	71

(출처: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

2)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등에 나타난 납치 및 행방불명의 규모

피납기록은 강제연행 및 행방불명의 실재와 가해자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희생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와 희생경로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피납 기록은 그 당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경남지역에는 피살자보다 피납치자가 많은 것은 전쟁 중 후방의 필요 인력을 점령지에서 조달하여 많은 수의 민간인이 의용군이나 집꾼 등으로 납치되었기 때문이다.³³⁾

33) 권영진, 『북한의 남한점령정책』, 『역사비평』, 1989. 여름호; 장미승, 『북한의 남한점령정책』,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0.

제 3 권

한국전쟁 당시 6.25사변으로 인한 경남지역 피납치자는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와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에 1,744명이 기재되어 있고 진실규명 대상자는 9명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표 7>은 경상남도의 시기별 피납치자 수를 나타내었다. 전쟁 발발 초기였던 1950년 경남 전역에서 납치가 일어났다. 이 중 남해, 사천(삼천포), 산청, 진주(진양), 하동, 함양 지역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경남지역의 인민군의 후퇴로와 일치하는 지역으로 후퇴하던 인민군들이 부역동원과 의용군 충당을 위해 많은 민간인들을 납치한 정황이 드러난다.

<표 7> 경상남도 시기별 피납치자 수

(단위: 명)

시·군 \ 년도	1949년 이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이후	기타	계
총계	134	339	169	78	37	17	774
거제	1	1	-	-	-	-	2
거창	2	24	18	12	7	-	63
고성	1	9	-	-	-	1	11
남해	-	19	-	-	-	-	19
마산	1	10	1	6	2	-	20
밀양	22	9	5	1	4	-	41
부산(동래)	8	6	4	10	3	-	31
사천(삼천포)	5	63	4	-	2	-	74
산청	9	15	60	7	4	3	98
양산	6	1	1	1	1	-	10
울산(울주)	6	2	5	-	2	-	15
의령	1	2	-	-	-	-	3
진주(진양)	12	21	5	-	-	-	38
창녕	1	5	-	1	-	-	7
창원(의창)	14	12	-	-	1	-	27
통영	-	11	-	-	-	-	11
하동	15	68	11	5	3	3	105
함안	11	17	-	-	-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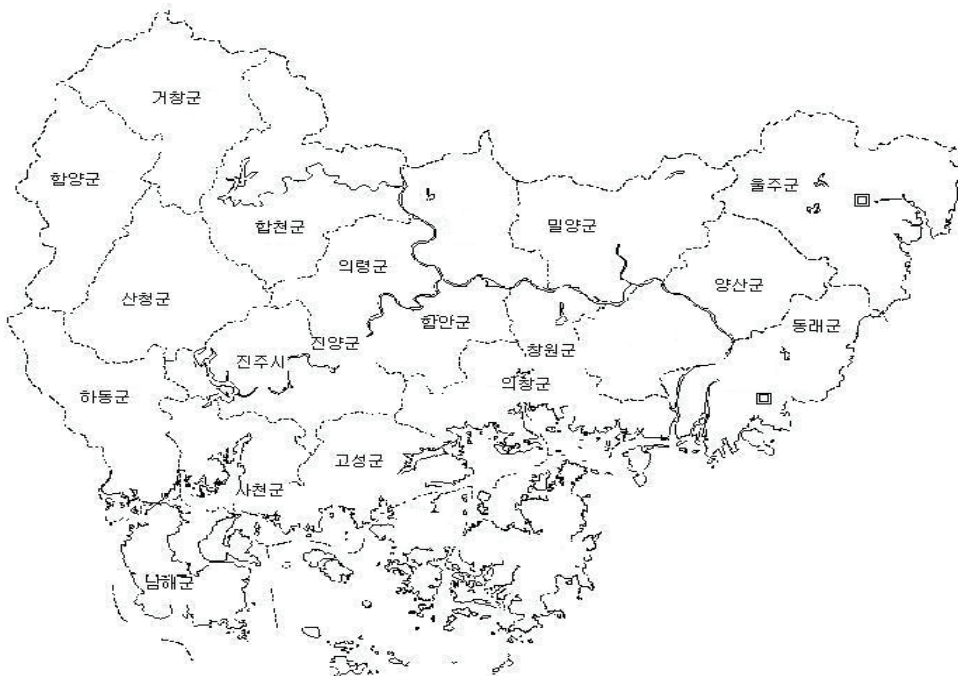
시·군	년도	1949년 이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이후	기타	계
함양		16	44	37	17	6	10	130
합천		3	-	18	18	2	-	41

(출처: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나. 사건 발생 시기, 장소 및 피해자 수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 사건 중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68건과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를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조사한 결과, 1949. 3월~1953. 4월 동안 경남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 및 강제연행, 상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청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대상자 80명과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54명 등 총 134명의 희생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다음 [그림 2]는 각 시·군별 사건 신청·접수 현황이다.

[그림 2] 경상남도 각 시·군별 사건 신청·접수현황



제 3 권

1. 거창군 적대세력 사건(총 2건) • 희생사건: 1949. 7월~9월(2건)	2. 고성군 적대세력 사건(총 3건) • 희생사건: 1950. 7월~1951. 6월(2건) • 강제연행사건: 1950. 8. 20.(1건)
3. 남해군 적대세력 사건(총 2건) • 강제연행사건: 1950. 9월(2건)	4. 동래군 적대세력 사건(총 2건) • 희생사건: 1949. 8월~1951. 6월(2건)
5. 밀양군 적대세력 사건(총 2건) • 희생사건: 1948. 3월~1949. 3월(2건)	6. 사천군 적대세력 사건(총 4건) • 희생사건: 1950. 7월~8월(3건) • 상해사건: 1950. 8월(1건)
7. 산청군 적대세력 사건(총 7건) • 희생사건: 1949. 8월~1953. 3월(5건) • 강제연행사건: 1950. 9월~10월(2건)	8. 양산군 적대세력 사건(총 2건) • 희생사건: 1949. 8월~1950. 8월(2건)
9. 울주군 적대세력 사건(총 2건) • 희생사건: 1949. 10월~1950. 7월(2건)	10. 의령군 적대세력 사건(총 1건) • 희생사건: 1949. 3. 6.(1건)
11. 의창군 적대세력 사건(총 1건) • 강제연행사건: 1950. 9월(1건)	12. 진양군·진주시 적대세력 사건(총 2건) • 희생사건: 1950. 8월~9월(2건)
13. 창원군 적대세력 사건(총 1건) • 희생사건: 1949. 12. 13.(1건)	14. 하동군 적대세력 사건(총 9건) • 희생사건: 1949. 10월~1952. 1월(8건) • 강제연행사건: 1951. 12.(1건)
15. 함안군 적대세력 사건(총 4건) • 희생사건: 1949. 4월~10월(3건) • 상해사건: 1949. 10. 4.(1건)	16. 함양군 적대세력 사건(총 21건) • 희생사건: 1949. 7월~1951. 12월(18건) • 강제연행사건: 1951. 5. 19.(1건) • 상해사건: 1950. 7월~10월(2건)
17. 함천군 적대세력 사건(총 3건) • 희생사건: 1949. 7월~1950. 7월(2건) • 강제연행사건: 1950. 9월(1건)	

신청사건의 발생 시기, 장소와 규모를 사건시기와 사건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먼저 사건의 종류를 희생, 강제연행, 상해사건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시기에 따라 분류하였다. 같은 시기 내에서는 지역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8> 진실규명사건 발생 시기와 피해장소 및 규모

(단위 :명)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소	피해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한국전쟁 전 희생사건 16건(1948. 3. 25.~1949. 12. 13.)						
1	거창군 거창읍 표장준·표영수 희생사건(마-9178)	1949. 7. 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2		
2	거창군 남상면 김형락 희생사건(마-3589)	1949. 8. 9.	거창군 감악산 연수사	1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소	피해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3	동래군 기장면 이수용 · 김수광 희생사건(마-9369, 10302)	1949. 8. 6.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 무곡마을	2		
4	밀양군 상동면 조오현 희생사건(마-2940)	1948. 3. 25.	밀양군 상동면 신곡리	1		
5	밀양군 단장면 손제민 희생사건(마-10235)	1949. 7. 13.	밀양군 단장면 미촌리	1		
6	산청군 단성면 권태국 희생사건(마-8320)	1949. 8. 11.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어천마을	1		
7	양산군 동면 김일성 희 생사건(마-9572)	1949. 6. 5.	양산군 동면 석산리	1		
8	울주군 범사면 김기오 희생사건(마-4246)	1949. 10. 6.	울주군 범사면 서사리 모래골	1		
9	의령군 정곡면 전명권 희생사건(마-3465)	1949. 3. 6.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정남국민학교 앞	1		
10	창원군 북면 김기련 희 생사건(마-7992)	1949. 12. 13.	창원군 북면 화천리 북 면사무소 앞	1	1	
11	하동군 양보면 이용규 희생사건(마-6006)	1949. 10. 11.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하성마을 뒷산	1		
12	함안군 군북면 이재근 희생사건(마-7380)	1949. 4. 26.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		
13	함안군 산인면 이진호 희생사건(마-810)	1949. 10. 4.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		
14	함안군 칠곡면 안기수 희생사건(마-6551)	1949. 10. 4.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마을회관	1		
15	함양군 마천면 서오목 희생사건(마-8298)	1949. 5. 17.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1		
16	합천군 합천읍 김영동 희생사건(마-6813)	1949. 7. 4.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1		

한국전쟁 발발부터 인민군 퇴각 전까지 희생사건 15건(1950. 7. 5.~1950. 9. 17.)

17	고성군 거류면 이정수 희생사건(마-10331)	1950. 7. 17.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		점령 지역
18	사천군 곤명면 임태용 희생사건(마-9983)	1950. 7. 30.	사천군 곤명면 완사리	1		점령 지역
19	사천군 삼천포읍 조두실 일가 희생사건(마-9856 등 5건)	1950. 8. 20.~ 8. 26.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 동 앞 바닷가	5	1	점령 지역
20	사천군 삼천포읍 이내윤 희생사건(마-9855)	1950. 8. 26.	함양군	1		점령 지역

제 3 권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소	피해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21	양산군 동면 오차흥 희생사건(마-7671)	1950. 8월	양산군 동면 가산리	1		비점령 지역
22	울주군 두서면 이기생 희생사건 (마-6089, 8477)	1950. 7. 5.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양지편마을	1		비점령 지역
23	진양군 대곡면 김기호 · 김성호 형제 희생사건 (마-6664)	1950. 8. 17.	진양군 대곡면 설매리	2		점령 지역
24	하동군 양보면 김순기 희생사건(마-9581)	1950. 8. 27.	하동군 양보면 양보파 출소 앞 냇가	1	7	점령 지역
25	하동군 금성면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마-10452 등 4건)	1950. 8. 29.	하동군 금성면 마도 백사장	4	24	점령 지역
26	함양군 안의면 이윤택 희생사건(마-9587)	1950. 7. 28.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박골	1		점령 지역
27	함양군 서상면 박덕성 희생사건(마-2603)	1950. 7. 30.경	함양군 서상면	1		점령 지역
28	함양군 마천면 김종환 희생사건(마-5718)	1950. 8. 7.	함양군 마천면 군유림 관리사무소 도로변	1	2	점령 지역
29	함양군 지곡면 허문석 희생사건(마-3983)	1950. 8. 7.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1		점령 지역
30	함양군 지곡면 정무생 희생사건(마-982)	1950. 9. 17.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마을화관	1	2	점령 지역
31	합천군 봉산면 이성주 희생사건(마-5559)	1950. 8. 1.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		점령 지역

인민군 퇴각기 희생사건 12건(1950. 9. 25.~1950. 9. 27.)

32	산청군 신안면 도태호 희생사건(마-9380)	1950. 9. 26.	산청군 신안면 심거마을	1		
33	진주시 명석면 박성준 희생사건(마-6206)	1950. 9. 26.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1		
34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강갑이 희생사건(마-6511)	1950. 9. 27.경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1		
35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김광호 희생사건(마-7475)	1950. 9. 27.경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1		
36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김윤찬 희생사건(마-980)	1950. 9. 25.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1		
37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나승운 희생사건(마-9973)	1950. 9. 27.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1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소	피해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38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 녹이 희생사건(마-8826)	1950. 9. 27.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1	2	
39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 주원 희생사건(마-6118)	1950. 9. 26.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1		
40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이 동식 희생사건(마-3577)	1950. 9. 27.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1	2	
41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전태식·전만식 형제 희 생사건(마-2994)	1950. 9. 26.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2	1	
42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최 만규 희생사건(마-8451)	1950. 9. 26.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1		
43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황 학구 희생사건(마-9244)	1950. 9월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1		

인민군 후퇴 이후 희생사건 12건(1950. 10. 27.~1953. 4. 2.)

44	고성군 하이면 박동교 희생사건(마-9015)	1951. 6. 9.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1		
45	동래군 장안읍 신명동 희생사건(마-6545)	1951. 6월	동래군 장안읍 임랑리	1	1	
46	산청군 단성면 이술조 희생사건(마-8759)	1950. 11. 13.	산청군 단성면 길리	1		
47	산청군 금서면 박계월 ·고해분 부부 희생사건 (마-9379)	1951. 5. 22.	산청군 금서면 특리	2	1	
48	산청군 신안면 이상봉 희생사건(마-8828)	1953. 4. 2.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1		
49	하동군 청암면 김영두 희생사건(마-10451)	1950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		
50	하동군 청암면 김대석 희생사건(마-7101)	1950년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1		
51	하동군 청암면 남강희 희생사건(마-8325)	1951. 3. 17.	하동군 청암면 때죽너 무거리	1	1	
52	하동군 청암면 김용세 희생사건(마-9452)	1951. 11. 26.경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	3	
53	하동군 옥종면 하춘섭 희생사건(마-8324)	1951. 12. 31.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1		

제 3 권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소	피해자 수		비고
				진실규명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54	함양군 서상면 강인석 희생사건(마-6808)	1950. 10. 27.	함양군 서상면 서상국 민학교 후문	1		
55	함양군 백전면 박윤석 희생사건(마-4629)	1951. 3. 26.경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1	2	
희생 소계				67	50	

한국전쟁 중 강제연행사건 9건(1950. 8. 20.~1951. 12월)

56	고성군 영오면 최점림 강제연행사건(마-10336)	1950. 8. 20.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		점령 지역
57	남해군 남해읍 박채영 강제연행사건(마-5551)	1950. 9. 25.	남해군 남해읍 북변동 후생병원	1		점령 지역: 퇴각기
58	남해군 삼동면 하영모 강제연행사건(마-7216)	1950. 9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		점령 지역: 퇴각기
59	산청군 생비랑면 공영진 강제연행사건(마-9883)	1950. 여름	산청군 생비랑면 가계리	1		점령 지역: 퇴각기
60	의창군 진북면 오성환 강제연행사건(마-1964)	1950. 9월	마산시 진북면 추곡리 내추마을	1		점령 지역
61	합천군 합천읍 이동수 강제연행사건(마-5670)	1950. 9월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1		점령 지역
62	산청군 오부면 안학영 강제연행사건(마-9242)	1950. 10. 26.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1	1	
63	함양군 서상면 최순도 강제연행사건(마-9972)	1951. 5. 19.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1		
64	하동군 북천면 김상곤 강제연행사건(마-7305)	1951. 12월	하동군 북천면 서항리	1		
강제연행 소계				9	1	

상해사건 4건(1949. 8. 7.~1950. 10. 5.)

65	함안군 군북면 조경래 상해사건(마-7433)	1949. 8. 7.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	3	
66	함양군 서하면 김정대 상해사건(마-10166)	1950. 7월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황재	1		
67	사천군 남양면 박문수 상해사건(마-110)	1950. 8월	사천군 남양면 외룡산	1		
68	함양군 안의면 이업분 상해사건(마-7533)	1950. 10. 5.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1		
총계				80	54	

3. 사건내용

가. 희생사건

1) 한국전쟁 발발 전(1948. 3. 25.~1949. 12. 13.)

이 시기에는 지리산과 주변 산악지대를 근거로 활동했던 지방좌익과 빨치산에 의한 피해 사건이 주로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지방좌익과 빨치산의 협조 요구를 거절하거나 군경에게 이들의 근거지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희생당하였다. 희생자 대부분이 부농이거나 마을이장 또는 대한청년단 등의 우익단체 간부들이었고 밀양군 단장면 손제민(마-10235)처럼 정보 누설자라는 오해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농민도 있었다.

이 시기의 신청사건은 16건이며, 조사결과 진실규명 대상자 18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각 지역별 희생사건의 내용을 사건발생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거창군

거창군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와 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체로 그 높이가 일천 미터가 넘는 소백산맥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등성이 하나만 넘으면 타 관내로 들어설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여서 거창군은 한국전쟁 발발 전부터 빨치산의 주요 활동지였다.

(1) 거창읍 동변리 표정준·표영수 희생사건(마-9178, 1949. 7. 6.)

진실규명 대상자 표정준(表正俊, 74세)과 표영수(表瑛洙, 29세)는 1949. 7. 6.(음력 6. 11.) 거창읍 동변리 자택에 침입한 빨치산에게 희생당했다.

표정준은 거창군 일대에서 알아주는 부농이었고, 아들 표○○가 제헌국회 초대 국회의원이었다. 표영수는 표정준의 손자로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³⁴⁾

1949. 7. 6. 저녁, 경찰복을 입은 30여 명의 빨치산들이 총을 들고 집으로 쳐들어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일꾼들을 각각 분리하여 다른 방에 몰아넣었다. 돈을 요구하며, 집안을 뒤져 식량을 약탈한 뒤 표정준과 표영수를 향해 총을 쏘고 후 돌아났다.³⁵⁾

표정준의 집에 침입한 빨치산은 거창군 감악산과 수도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빨치산

34) 『참고인 표○○ 진술조서』(2009. 6. 2.)

35) 『참고인 표○○ 진술조서』(2009. 6. 2.)

제 3 권

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거창군은 마을마다 경비를 서기 시작했다.³⁶⁾

시신은 현장에서 가족들이 수습하였고, 제사는 음력 6. 10. 이다. 제적등본에는 1949. 7. 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남상면 대산리 김형락 희생사건(마-3589, 1949. 8. 9.)

진실규명 대상자 김형락(金炯洛, 26세)은 1949. 8. 9.(음력 7. 15.) 거창군 남상면 감악산 연수사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했다.

김형락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사람으로, 남상면사무소 직원이었다. 김형락은 1949. 8. 9. 백중날, 감악산 연수사에 휴양중인 고향 선배를 만나러 갔다가 빨치산에게 붙잡혀 희생당했다. 시신은 연수사에 같이 갔던 일행들에게 희생 소식을 들은 가족들과 마을주민들이 수습하였다.³⁷⁾

제사는 음력 7. 15.이고, 제적등본에는 1952. 8. 20. '감악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형락이 희생당한 후 빨치산이 면소재지를 습격하여 법원과 검찰청, 면사무소를 방화한 까닭에 제적부가 멸실되었다. 1952년 호적 정리를 다시 하였는데, 그때 사망일을 1952. 8. 20.로 신고하였다.

나) 동래군 기장면 이수용·김수광 희생사건(마-9369, 마-10302, 1949. 8. 6.)

진실규명 대상자 김수광(金守光, 33세)과 이수용(李首龍, 49세)은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에서 1949. 8. 6.(음력 7. 12.) 빨치산에게 희생당했다.

사건 당일 빨치산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청년단장 김수광을 살해했고, 다른 무리는 마을이장인 이수용을 살해했다.³⁸⁾ 김수광은 밤 10시쯤 마을청년 4~5명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빨치산에게 끌려나와 온몸을 구타당하고 머리에 못이 박혀 희생당했고³⁹⁾, 이수용은 손이 묶인 채로 집에서 300m 떨어진 철길로 끌려가 머리를 구타당해 희생당했다.⁴⁰⁾

36)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표○○ 진술조서』(2009. 6. 2.)

3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27.);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 6. 4.);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29.)

38) 『신청인 이연춘 진술조서』(2009. 6. 2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2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26.)

39) 신청인 김명덕은 2007년 진실규명 대상자의 묘를 이장하던 중 머리에 대못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해 본 위 원회에 증거 사진을 제출했다.

4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26.); 『신청인 이연춘 진술조서』(2008. 7. 7.); 『신청인 이연춘 진술조서』(2009. 6. 25.)

사건 발생 후 가족과 마을사람들이 김수광과 이수용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였다. 제사는 음력 7. 10.이며, 제적등본에는 김수광이 1949. 8. 5. 기장면 청강리 583번지에서 사망하였고, 이수용이 1949. 8. 5. 기장면 청강리 526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밀양군

밀양군은 해방 직후 초기 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지역으로, 특히 1948년 2·7 폭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2·7폭동 이후, 본격화된 야산대(野山隊)가 가지산, 운문산 등 주변 산악지대에서 활동하였다.⁴¹⁾

(1) 상동면 신곡리 조오현 희생사건(마-2940, 1948. 3. 25.)

진실규명 대상자 조오현(趙五顯, 28세)은 상동면사무소 서기로 1948. 3. 25.⁴²⁾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강제연행 되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1948. 2. 15.(음력)경 경찰복을 입고 총을 가진 십여 명 정도의 빨치산들이 상동지서에 서 왔으며 마을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빨치산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조오현의 집으로 모았고, 젊은 사람들은 서당으로 모아 감금한 후, 먹을거리를 가져오게 했다. 밤이 되자 빨치산들이 조오현을 인질로 끌고 가면서 공포탄을 쏘다. 당시 마을사람들은 빨치산들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했기 때문에 끌고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옆 마을(매화마을)의 부호도 빨치산들의 자금 요구에 응하지 않아 희생되었다고 한다.⁴³⁾

제사는 음력 2. 15.이며, 제적등본에는 1967. 3. 8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351에서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족들이 조오현을 기다리다가 소식을 알지 못해 이후에 신고한 것이라고 한다. 조오현의 희생사실과 관련한 문헌자료는 찾을 수 없었으나, 조오현의 경력과 강제연행된 시기 등에 비추어 조오현이 빨치산에게 강제연행되어 희생당하였다고 추정하였다.

(2) 단장면 미촌리 손제민 희생사건(마-10235, 1949. 7. 13.)

진실규명 대상자 손제민(孫濟旼, 35세)은 1949. 7. 13.(음력 6. 18.) 밤 단장면 미촌리에

41) 김남식, 『남로당 연구 I』, 돌베개, 1984, 307쪽.

42) 조오현의 희생시기는 사건발생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 신청인이 2세 때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술과 당시 빨치산에 의한 피해가 컸던 1948년으로 판단했다.

43)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9. 7. 16.)

제 3 권

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손제민은 농부였는데,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 농한기에는 한천공장에 다녔다.⁴⁴⁾ 사건 전날, 손제민이 한천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빨치산들과 마주쳤다. 빨치산의 무리에 섞여 있던 한천공장 동료가 손제민에게 마을 부호인 이○○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손제민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⁴⁵⁾

사건 당일인 7. 13.⁴⁶⁾ 이○○의 집을 습격한 빨치산들은 이○○이 집에 없자, 빨치산과 유일하게 마주친 손제민이 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단정하였다. 그날 밤, 빨치산들은 손제민의 손을 뒤로 묶어 마을 앞으로 끌고나온 뒤, 율타리로 세워둔 나무를 뽑아 손제민을 살해하였다.⁴⁷⁾ 사건 당일 다른 빨치산 무리는 이○○의 집을 방화하고 그 집 소를 끌고 갔다.⁴⁸⁾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였고, 제사는 음력 6. 17.이다. 제적등본에도 1949. 7. 13. 밀양군 단장면 미촌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산청군 단성면 권태국 희생사건(마-8320, 1949. 8. 11.)

산청군은 지리산 줄기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빨치산에 의한 피해가 속출한 곳이다. 1949. 7월, 빨치산 부대를 각 지구 별로 재편성할 당시 기존의 지리산지구를 제2병단으로 재편하였는데, 이현상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제2병단이 조직된 곳이 산청군 삼장면이었다.⁴⁹⁾

진실규명 대상자 권태국(權泰國, 50세)은 1949. 8. 11.(음력 7. 17.)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어천부락 뒷산 웅석봉에서 빨치산에게 인민재판을 받고 희생당했다.

권태국은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에서 대한청년단장과 축성회 간부로 활동하였고, 산청군의 대표적인 우익인사였다.⁵⁰⁾

1949. 8. 10. 저녁, 빨치산들이 권태국이 운영하는 양조장에 침입하여 권태국의 옷을 벗

4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16.)

45) 『참고인 반○○, 이○○ 진술조서』(2009. 7. 16.)

46) 그날이 참고인의 조부 제사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참고인 반○○, 이○○ 진술조서』(2009. 7. 16.), 제적부 상의 날짜인 1959. 8. 22.은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박수연 진술조서』(2008. 6. 18.)

47) 『신청인 박수연 진술조서』(2008. 6. 18.)

48) 『참고인 반○○, 이○○ 진술조서』(2009. 7. 16.)

4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남로당 지방당 조직의 활동상을 밝힌다.』 『역사비평 1988 겨울호』, 역사비평사.

50)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2.)

기고 포승줄로 묶은 후 양조장을 불태우고 권태국을 끌고 갔다. 51)

이듬해 2월, 권태국을 끌고 간 빨치산 중 한 명이 자수하여 권태국이 1949. 8. 11. 단성면 방목리 어천부락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권태국의 희생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려했지만 권태국이 희생당한 단성면 어천부락은 빨치산의 근거지인 웅석봉⁵²⁾ 아래 마을로 민간인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⁵³⁾ 시신은 1950. 3월에 대한청년단원과 경찰이 수습하고, 장례는 군민장으로 치렀다.⁵⁴⁾

제사는 음력 7. 14.이다. 제적등본에는 1949. 7. 15.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어천부락 뒤, 웅석봉(번지불상)에서 지리산 공비에게 피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양산군 동면 김일성 희생사건(마-9572, 1949. 6. 5.)

양산군은 해방 직후 초기 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지역으로, 김달삼이 이끄는 제3병단의 활동지였다. 특히, 1949년 이른바 '아성공격'⁵⁵⁾으로 상북면, 양산면의 군농회장, 민보단장을 비롯하여 수 명의 공무원이 살해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⁵⁶⁾

진실규명 대상자 김일성(金一成, 41세)은 1949. 6. 5.(음력 5. 9.) 양산군 동면에 있는 자신의 논에서 지방좌익에게 칼에 찔려 희생당하였다.

김일성은 해방 전에 소방대장을 한 경력이 있었고, 당시에는 양산군 동면에서 농사지었다. 마을에서는 김석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당시 석산리는 지방좌익이 많은 편이었다. 김일성은 마을에서는 드물게 경찰에 협조하는 우익인사여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다가 잠깐씩 와서 농사를 돌보곤 했다.⁵⁷⁾ 사건 당일, 김일성이 모를 심으려고 마을에 온 것이 지방좌익에게 발각됐다. 이 사실을 김일성보다 먼저 안 참고인 김○○이 김일성에게 피하라고 했지만, 김일성이 피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던 중 지방좌익에게 목에 칼을 맞고 희생당하였다.⁵⁸⁾ 시신은 가족이 수습하였으며, 제사일은 음력 5. 8.이다.

5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5. 29.)

52) "웅석봉은 꿈이 웅크린 모습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리산의 맨 동쪽 끝 봉우리로 바로 아래 경호강이 에워싸고 있어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유격대가 덕유산 방면이나 경상도 쪽으로 월정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웅석봉이다." 안재성, 『이현상 평전』, 실천문화사, 2009, 434쪽.

53) 『참고인 권○○ 진술조서』(2009. 7. 3.)

5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5. 2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2.)

55) 아성공격이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또는 경찰서, 군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공격을 뜻한다.

56) 김남식, 『남로당 연구 I』, 돌베개, 1984, 418쪽.

57) 『신청인 김연필 진술조서』(2009. 7. 24.)

5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21.)

제 3 권

바) 울주군 범사면 김기오 희생사건(마-4246, 1949. 10. 6.)

울주군은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나 농민조합, 부녀동맹, 민청 등 민전 산하 단체를 비롯한 남로당 등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다. 좌우익 세력 간의 갈등이 심했으며, 빨치산에 의한 피해도 많았다.

울산을 사방관리소 계장으로 근무하던 진실규명 대상자 김기오(金基五, 38세)는 1949. 10. 6.⁵⁹⁾ (음력 8. 15.) 범사면 서사리 모래골에서 동료 2명과 순찰 중,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김기오는 사건 당일 “인근 산에서 빨갱이들이 숲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사방관리소 직원 두 명(유씨, 신씨)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 신고를 받고 간 곳은 빨치산의 은신처였고 김기오와 동료 두 명은 그곳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⁶⁰⁾

김기오를 포함한 사방관리소 직원 세 명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이 산을 수색하였고,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인근 동굴 안에서 세 명의 시신을 발견하였다.⁶¹⁾ 김기오의 목에는 허리끈이 묶여 있었고, 돌로 머리를 맞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경찰과 가족들이 시신을 서사국민학교로 옮겼고 그 뒤에 김기오의 집으로 옮겨 선산에 매장하였다.⁶²⁾ 제적등본에는 1949. 10. 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의령군 정곡면 전명권 희생사건(마-3465, 1949. 3. 6.)

진실규명 대상자 전명권(田命權, 33세)은 1949. 3. 6.(음력 2. 7.) 정곡면 백곡리 정남국민학교 앞에서 지방 좌익에게 희생당하였다.

전명권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정남국민학교를 설립하고, 민보단 단장을 맡고 있었다. 의령군 일대에 대표적인 우익 인사로 알려져 있던 전명권이 차를 타고 의령군청에서 집으로 가던 중, 지방좌익이 쫓아오며 총을 쏘았다. 전명권은 차에서 내려 정남국민학교 앞 논으로 피하였으나, 결국 칼과 죽창에 찔려 희생당하였다.⁶³⁾

59) 김기오의 제사일은 (음력) 8. 22.는 김기오의 어머니가 8월 중 좋은 날을 택한 것이라고 한다. 『신청인 김중하 진술조서』(2008. 5. 29.); 희생 날짜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김○○의 진술을 참고하였다.

60) 당시 산에 사는 주민들이 빨치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9. 1.)

61) 『신청인 김중하 진술조서』(2008. 5. 29.) 당시 동굴에서 시신을 수습한 김기오의 6촌형인 경찰 김○○가 생전에 시신 발견 상황을 진술로 녹음하였다. 이 녹음 테이프를 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9. 1.)

63) 『참고인 전○○ 진술조서』(2009. 6. 26.)

전명권의 시신은 경찰과 가족이 수습하였고, 의령군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제사는 음력 2. 6.이며, 제적등본에는 1949. 4. 2.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사일을 기준으로 전명권이 1949. 3. 6.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 창원군 북면 김기련 희생사건(마-7992, 1949. 12. 13.)

진실규명 대상자 김기련(金基鍊, 24세)은 1949. 12. 13.(음력 10. 24.) 북면 화천리에 소재한 북면 면사무소에서 야간 근무 중 좌익세력에게 희생당하였다.

사건 당일 저녁, 김기련은 동료 손○○와 잔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죽창과 칼을 든 지방좌익들이 면사무소로 오는 것을 먼저 본 손○○는 자리를 피했지만, 김기련은 지방좌익에게 잡혀서 목과 팔다리를 칼에 찔려 희생당하였다. 이날 면사무소와 북면 면장의 집이 방화됐으며,⁶⁴⁾ 같은 마을의 대한청년단장인 정문영도 함께 희생당하였다. 김기련의 시신은 다음날 아침 면사무소 앞에서 보초를 섰던 사람들이 수습하였고,⁶⁵⁾ 제사일은 음력 10. 23.이다.

김기련의 희생사실과 관련하여 『희생자 인명 DB』에 1949. 12. 13. 창원군 북면 면사무소에서 순국하였고,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1949. 12. 13. 창원군 북면 대신리 268번지에서 순국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정문영에 대해서 경남일보는 “지난 13일 밤 무장폭도의 기습으로 무참히 피살당한 북면 사무소 회계원 김기련과 대한청년단 상무 정문영의 면민장을 16일 엄숙히 집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⁶⁶⁾

자) 하동군 양보면 이용규 희생사건(마-6006, 1949. 10. 11.)

하동군은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연접지로서 경상남도 최서부의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지리산과 백운산이 우뚝 솟아있어 지리산과 백운산⁶⁷⁾을 주근거지로 활동하였던 빨치산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진실규명 대상자 이용규(李容奎, 24세)는 1949. 10. 11.(음력 9. 10.)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뒷산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6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15.)

6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15.)

66) 경남일보, 1949. 12. 17.

67) 광양 백운산은 전남부대의 주근거지였고, 장수 백운산은 전북부대의 주근거지였다. 이태, 『남부군』, 두레, 2003, 222쪽.

제 3 권

이용규는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에서 대한청년단 훈련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49. 10. 11. 밤, 경찰 복장을 한 빨치산이 이용규의 집에 찾아와 이용규의 아버지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며 아들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빨치산이 이용규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총소리가 들렸다. 총소리에 놀란 가족이 달려왔으나 이용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⁶⁸⁾ 같은 날, 옆 마을에 사는 우익인사 이○○는 빨치산에게 끌려가다 입고 있던 미제 내의를 던져주고 도망쳤다고 한다.⁶⁹⁾

시신은 부모와 형수들이 수습하였다. 제사는 음력 9. 9.이고, 제적등본에는 1949. 12. 29.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용규의 희생사실은 『하동군지』⁷⁰⁾에 실려 있으며, 『유공자 관계 서류록』과 서울시 남산에 있는 반공청년운동 기념비 순국자 명부(17, 274명)에 등재되어 있다. 또한 하동군 적량면 안보공원의 참전전우 기념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1949. 11. 29.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505번지에서 순국하였다고 기재되었다.

제사일을 기준으로 이용규가 1949. 10. 11.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차) 함안군

함안군은 산청, 하동, 함양, 거창 등의 지역과 함께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며, 1949. 4월에서 1950. 5월까지 빨치산들의 주요 활동지역이다. 빨치산에 의한 피해와 함께 공비소탕이라는 이름 아래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곳이기도 하다.

(1) 군북면 동촌리 이재근 희생사건(마-7380, 1949. 4. 26.)

진실규명 대상자 이재근(李在根, 22세)은 1949. 4. 26.(음력 3. 29.)⁷¹⁾ 군북면 동촌리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이재근은 당시 마을사람 두 명⁷²⁾과 함께 윗마을(사촌 부락)의 야간공민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4. 26. 밤 10시쯤⁷³⁾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이재근만 빨치산에게 아랫마을(서촌부락)⁷⁴⁾로 끌려갔다. 빨치산들은 이재근에게 친척인 군북면장 이○○⁷⁵⁾

6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16.)

6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16.)

70) 하동군지 편찬위원회, 『하동군지 하(下)』, ‘대한청년단 및 한청 기동대 순직자 명단’, 1359~1360쪽.

71) 참고인 조○○은 참고인의 당숙모 제사일에 사건이 발생하여 이재근의 희생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6. 9.)

72)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6. 9.)

73)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6. 9.)

74)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6. 9.)

의 집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재근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총격을 가했다.

사건발생 후 총소리를 듣고 근처에 있던 경비들과 부모가 달려와 이재근을 집으로 옮겼으나 2~3시간 만에 사망했다.⁷⁶⁾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다. 제사일은 음력 3. 28.이며, 제적등본에도 1949. 4. 26. 자택에서 희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산인면 모곡리 이진호 희생사건(마-810, 1949. 10. 4.)

진실규명 대상자 이진호(李珍浩, 42세)는 1949. 10. 4.(음력 8. 13.) 산인면 모곡리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고, 그의 집도 방화되었다.

이진호는 해방 이후부터 산인면의 부면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밤 11시 쯤⁷⁷⁾, 6~7명의 빨치산들이 이진호의 집안 식구들을 협박하여 집 앞에 있는 밭으로 모아 놓은 뒤, 안방에 있던 이진호와 이진호의 부인을 마당으로 끌고 나와 포박했다. 빨치산들은 집을 방화하고, 마당에 있던 이진호를 총살하였다.⁷⁸⁾ 뒤늦게 경찰이 도착했으나 가해자들을 잡지는 못하였다.⁷⁹⁾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였다. 이진호의 제사일은 음력 8. 10.이나, 제적등본에는 1949. 10. 4. 자택에서 희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희생자 인명 DB』에는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25번지에서 순국했다고 등재되어 있다. 제적등본과 참고인의 진술로 이진호가 1949. 10. 4.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칠곡면 오곡리 안기수 희생사건(마-6551, 1949. 10. 4.)

진실규명 대상자 안기수(安基洙, 32세)는 1949. 10. 4. (음력 8. 13.) 칠곡면 오곡리 마을회관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고, 그의 집도 방화되었다.

안기수는 마을에서 안판수라고 불렸고, 오곡리 이장이었다. 사건 당시 오곡리에는 빨치산이 자주 출몰해 마을사람들이 5반으로 나눠 돌아가면서 마을 경비를 서고 있었다. 사건 당일, 3반 사람들이 마을을 순찰하던 중 옆 마을에 빨치산들이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안기수를 포함한 마을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되었다. 회의를 시작한 지

75)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6. 9.)

76) 『신청인 이창근 진술조서』(2009. 6. 10.)

77) 사건 당일 이진호의 부인이 참고인의 집에서 바느질을 하다 11시쯤 돌아갔는데, 이진호의 부인이 돌아간 후에 사건이 발생해 사건 발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6. 10.)

78) 『신청인 이병우 진술조서』(2007. 8. 2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6. 9.)

79) 『신청인 이병우 진술조서』(2009. 6. 3.)

제 3 권

얼마 되지 않아 빨치산 무리가 회관을 둘러쌌고 그 중 3~4명이 회관 안으로 들어와 안기수만 남기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았다. 이들은 안기수를 칼로 여러 번 찔러 죽이고, 안기수의 집도 방화하였다.⁸⁰⁾ 안기수의 시신은 가족과 마을사람들이 수습하였다.⁸¹⁾

안기수의 제사일은 음력 8. 12.이며, 제적등본에도 1949. 10. 4. 오희리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 빨치산들이 안기수에게 식량을 요구하였는데, 안기수가 그 요구를 거부하고 지서에 신고를 한 일이 있어, 그 보복으로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같은 날 산인면사무소 부면장 이진호(마-810)도 희생당하였다.⁸²⁾

카) 함양군 마천면 서오목 희생사건(마-8298, 1949. 5. 17.)

함양군은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48년 여순 반란사건 이후 지리산을 근거지로 구축한 빨치산들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였다. 빨치산의 거점과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리산 산간부락이 1950년 초까지 소개되었다.⁸³⁾

진실규명 대상자 서오목⁸⁴⁾(徐梧默, 49세)은 1949. 5. 17.(음력 4. 20.)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강제연행 되어 지리산 입구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오목은 마천면 창원리 큰 길가에서 여관 겸 술집을 경영하며 혼자 살았다. 서오목의 오빠 서○○이 부락에서 제일 잘 사는 축에 들어서 빨치산에게 여러 번 집이 털렸다. 함양군 마천면은 지리산의 길목이어서 빨치산이 삼일 간격으로 내려오던 곳이었다.⁸⁵⁾ 또한, 당시 마천면 강청리 일대에 빨치산이 주둔하고 있었다.⁸⁶⁾

1949. 5. 17. 서오목의 생일날 저녁, 마을에 보급투쟁을 나왔던 빨치산들이 서오목의 집에 찾아와 “반동분자”라며 끌고 갔다. 서오목이 끌려가고 얼마 후, 총소리가 들렸고,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 감나무 아래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신청인 서동윤과 참고인 노○○이 서오목의 시신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제사는 서오목이 끌려간 날인 음력 4. 20.이다. 서오목이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 인민군 점령기인 1950. 7. 28. 서오목의 오빠 서상인⁸⁷⁾도 지방좌익에게 치안대로 끌려가 인민재판을 받고 희생당하였다.⁸⁸⁾

80) 『신청인 배상시 진술조서』(2009. 6. 26.)

81)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 6. 1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11.)

82) 『신청인 배상시 진술조서』(2009. 6. 26.)

83) 동아일보, 1949. 10. 24.

84) 서오목은 한자로는 徐梧默으로 표기하고, 한글로는 서오목이라 한다.

85) 『참고인 노○○ 진술조서』(2009. 7. 25.);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 7. 24.)

86) 진실화해 위원회,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군), 162쪽.

한국전쟁 전후로 마천면에서 희생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전라북도과 경상남도 도계에 있는 충혼비에서 서오목과 서상인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서오목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으나 충혼비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희생당하였다고 추정하였다.

타) 합천군 합천읍 김영동 희생사건(마-6813, 1949. 7. 4.)

합천군은 북쪽으로는 가야산과 황매산을 본맥으로 하여 크고 작은 산들이 중첩한 지역으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하였다. 1948년 2·7폭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을 때 합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2·7폭동 이후 야산대의 조직이 본격화되어 합천군 각 지서의 경찰수가 증가하였고, 마을사람들을 동원해 지서 경비에 투입하였다.⁸⁹⁾

진실규명 대상자 김영동(金榮東, 48세)은 1949. 7. 4.(음력 6. 9.) 경찰에게 빨치산의 근거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희생당하였다.

김영동은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이장이었다. 마을에서는 김무경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김영동이 빨치산에게 희생당하기 한 달 전, 유잠산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마을에 내려온 적이 있었다. 이를 김영동이 신고하였고 경찰이 빨치산을 토벌하였다고 한다.⁹⁰⁾ 그 후, 유잠산에서 살아남은 빨치산이 비오는 날 밤에 몰려와 김영동의 집과 대한청년단장인 이○○의 집을 때려 부수었다. 이○○은 도망가 목숨을 건졌고 김영동은 뒷마당으로 끌려와 총살당하였다.⁹¹⁾ 시신은 현장에서 가족들이 바로 수습하였고, 제사는 음력 6. 8. 이다. 제적부는 한국전쟁 당시 멸실되었다.

2) 인민군 점령기(1950. 7. 5.~1950. 9. 17.)

인민군은 1950. 7. 27. 함양을 점령하기 시작하여 1950. 9. 28. 후퇴하기까지 약 2개월가량 고성, 거창, 남해, 마산, 의령, 사천, 산청, 진주, 하동, 함양, 합천을 점령하였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신청사건 15건 중 양산군 동면 오차홍 희생사건(마-7671)을 제외한 13건 모두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신청사건 15건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 대상자 23명의 희생사실과 1명의 강제연행 사실⁹²⁾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36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사건 15건을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87) 위 서상인은 함양군 마천면 김중환 희생사건(마-5718)의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로 정리하였다.

88) 『참고인 노○○ 진술조서』(2009. 7. 25.);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 7. 24.)

89) 동아일보, 1948. 2. 8.; 경향신문, 1948. 2. 11.

9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8. 13.)

9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8. 13.)

92) 각주 3) 참조.

제 3 권

가) 고성군 거류면 이정수 희생사건(마-10331, 1950. 7. 17.)

진실규명 대상자 이정수(李貞洙, 23세)는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에서 1950. 7. 17.(음력 6. 3.)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이정수는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사람으로 한국전쟁 당시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처가에서 살았다. 한국전쟁 발발 후 고성군 회화면에 인민군 선발대가 들어오자, 이정수의 가족들은 인민군을 피해 이정수의 처가인 거류면으로 피신했다. 은월리는 130여 호 되는 마을로 이정수의 처가가 은월리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다.⁹³⁾

인민군이 거류면에 들어오고 일주일 후, 인민군과 지방좌익이 이정수의 처가로 들어닥쳤다. 인민군을 보고 놀란 이정수는 의용군으로 징집되는 줄 알고 저녁을 먹다 말고 담을 넘어 옆집으로 도망갔다. 이정수가 갑자기 달아나자 인민군은 이정수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이정수를 쫓아가서 총을 쏘아 사살하였다. 이정수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고 제사는 이정수가 희생당한 날인 음력 6. 3.이다.⁹⁴⁾

나) 사천군

사천군은 1950. 7. 31.부터 9. 24.까지 56일 동안 인민군 점령 하에 있었다. 사천을 점령한 인민군은 먼저 후퇴하지 못한 군경을 색출하고, 신고 및 강제수색을 통하여 우익인사들을 구금·체포하였다. 또한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리 단위로 재분배하였으며, 의용군 및 부역동원을 위해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하였다.⁹⁵⁾

(1) 곤명면 완사리 임태용 희생사건(마-9983, 1950. 7. 30.)

진실규명 대상자 임태용(林泰龍, 25세)은 1950. 7. 30.(음력 6. 16.) 사천군 축동면 축동지서 경찰이라는 이유로 곤명면 치안대원에게 잡혀 곤명면 완사리에서 희생당하였다.

임태용은 사천군 정동면 대곡리 사람으로 한국전쟁 당시 사천군 축동면 축동지서 경찰로 근무하였다.⁹⁶⁾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4~5일 후 경찰이 해산하였고, 사천에서 활동하던 치안대는 공무원 및 경찰들을 잡아들였다. 치안대를 피하기 위해 임태용은 본가인 곤명면 갑사동으로 피난을 갔으나, 곤명면 치안대원에게 붙잡혀 곤명면 완사리의 '홍사리

9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30.)

94) 『신청인 이삼수 진술조서』(2007. 11. 2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3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30.)

95)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사천시사(四川市史) 상(上)』, 2003, 782쪽; 곤양향토사 편찬위원회, 『곤양 향토사』, 2004, 167쪽.

96) 신청인 임정희는 임태용이 경찰이었다고 하였으나, 임태용의 임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골짜기'에서 희생당했다.⁹⁷⁾

임태용의 희생 소식을 들은 참고인인 동생 임○○을 포함한 가족들이 곤명면 완사리의 '홍사리 골짜기'에 가서 시신을 확인하였으나 폭우가 심하여 옮기지 못하였다. 다음날 다시 시신을 수습하러 갔으나 시신이 떠내려가고 없었다.⁹⁸⁾

제적등본에는 임태용이 1950. 7. 30. 사천군 곤명면 완사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삼천포읍 조두실 일가 희생사건(마-9856 등 4건, 1950. 8. 20.~26.)

진실규명 대상자 조두실(趙斗實, 62세)은 1950. 8. 20.(음력 7. 7.) 우익인사라는 이유로 녹도 치안대원에게 잡혀 인민재판을 받고, 희생당하였다.

조두실이 희생되고 6일 후인 1950. 8. 26.(음력 7. 13.), 조두실의 부인 김보배(金保排, 53세), 조두실의 사위 박봉기(朴鳳基, 41세), 조두실의 4남 조종채(趙鍾彩, 17세), 조두실의 5남 조종출(趙鍾出, 15세)도 실안동 바닷가에서 희생당하였다.

조두실과 김보배 부부는 삼천포읍 실안동 일대의 유지였으며, 차남 조○○이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이었고, 4남 조종채가 삼천포중학교, 5남 조종출은 남양중학교에 다녔다. 사위 박봉기(3녀 조점약(趙占岳)의 남편)는 대한청년단원이며 한의사였다.⁹⁹⁾

한국전쟁 전부터 조두실의 차남 조○○이 지방좌익과 마찰이 있었다. 지방좌익이 조○○을 잡고자 몇 번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조○○의 가족들을 '반동분자'로 주시하고 있었다.¹⁰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조○○이 먼저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¹⁰¹⁾ 조두실과 김보배, 조종채는 남해군 창선면으로, 조종출은 사천군 남양면에 있는 누나 집으로 각각 피난하였다.

1950. 8. 18.경 조두실의 가족 중 조두실이 먼저 녹도 치안대에 잡혀 실안동 치안대에 인계되었고, 인민재판을 받은 후 구타당하여 사망하였다. 실안동 치안대는 사망한 조두실의 시신을 1950. 8. 21. 만조시각을 기해 실안동 바다에 수장하였다.¹⁰²⁾

97) 『신청인 임정의 진술조서』(2008. 6. 4.);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9. 7. 30.)

98)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9. 7. 30.)

99) 『신청인 박문옥 진술조서』(2008. 6. 4.); 『신청인 조종권 진술조서』(2008. 6. 5.);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8.);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8.)

100)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8.)

101)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8.);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사천시사(四川市史) 상(上)』, 2003, 781~782쪽.

102)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8.)

제 3 권

이후 1950. 8. 25.경 김보배와 조종채가 늪도 치안대에, 박봉기와 조종출이 실안동 치안대에 잡혀 인민재판을 받고, 1950. 8. 26. 실안동 치안대에 의해 바다에 산 채로 수장되었다. 실안동 치안대는 김보배, 박봉기, 조종채, 조종출의 손발을 묶고, 몸에 돌을 매달아 만조시각을 기해 수장했다. 이들 중 조종채는 바다에 빠진 후 느슨해진 줄을 풀고 탈출하여 생존하였다.¹⁰³⁾

조두실과 김보배, 박봉기의 시신은 수습하였으나 조종출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 김보배와 박봉기의 장례는 시신이 수습된 후 바로 집안사람들에 의해 치러졌고, 조두실의 장례는 피난 갔다 돌아온 조○○이 치렀다.¹⁰⁴⁾

조두실의 제사는 음력 7. 7.이고 김보배, 박봉기의 제사는 음력 7. 13.이다.

조두실 일가의 수장사건과 관련한 문헌기록은 다음과 같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조두실이 1950. 7. 7. 삼천포시 자택 사무실에서 희생되었고, 박봉기와 조종출이 1950. 7. 13. 실안동 바닷가에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희생자 인명 DB』에는 박봉기와 조종출이 1950. 8. 22. 삼천포시 미안동 앞 해상에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에는 박봉기와 조종출이 1950. 8. 22. 실안동 앞 바닷가에서 치안대에 잡혀 순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박봉기가 1950. 8. 22. 우익인사로서 삼천포시 실안동 875번지에서 희생되었고, 김보배가 1950. 8. 22. 남편이 극우여서 삼천포시 실안동 872번지에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에는 조두실이 1950. 8. 23. 오후 7시 삼천포시 살안동에서 사망하였고, 박봉기가 1950. 8. 18. 오후 9시 삼천포시 실안동 482번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보배와 조종출의 사망은 제적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조두실 일가의 희생사실은 본 건과 관련한 아래의 판결문¹⁰⁵⁾으로도 확인하였다.

“조두실을 반동분자라 하여 삼천포 대방리 치안대에서 온 몸을 구타하여 살해한 후,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조두실의 가족 4명을 살해의 목적으로 포박한 후 배에 실어 해상에 도착하자 머리만한 돌을 각각의 허리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 그 중 3명은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그 중 한 명인 조종채는 매달아 놓은 돌이 분리되어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조두실, 김보배, 조종출, 박봉기의 제사일과 명부에 기재된 희생날짜가 각각 다르나 조

103)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8.)

104)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8.)

105)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합의부) 단기 4284. 8. 30. 선고, 형재 제18호』 본 판결문에는 장○○와 장○○이 국가보안법 특별조치령 위반 및 사체 유기로 각각 사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두실, 김보배, 조종출, 박봉기 모두 희생당한 날 제사를 지내고 있어, 제사일을 기준으로 조두실은 1950. 8. 20, 김보배와 박봉기, 조종출은 1950. 8. 26.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참고인 조○○은 대한청년단원인 탁봉윤 또한 늑도 치안대에 잡혀 총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¹⁰⁶⁾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탁봉윤이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에는 1950. 8. 15. 치안대에 잡혀 총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삼천포읍 신벽리 이내운 희생사건(마-9855, 1950. 8. 26.)

진실규명 대상자 이내운(李來允, 22세)은 사천군 삼천포읍 신벽리 자택에서 인민군에게 끌려가 남양분주소 유치장에 3일 동안 감금되었다가, 1950. 8. 26. 함양군 서상면에서 희생당하였다.¹⁰⁷⁾

사천군 삼천포읍 신벽동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 모터사이클 부대가 먼저 내려왔고 7월 중순이 넘어서 인민군 보병부대가 들어왔다.¹⁰⁸⁾

이내운은 사천군 삼천포읍 신벽리 사람으로 '남양도기회사' 사원으로 근무했다. 남양도기회사는 사천군 남양면에 위치한 회사로 정○○¹⁰⁹⁾ 국회의원이 사장으로 있었다.

인민군은 남양면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익인사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이내운은 반동분자가 운영하는 남양도기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끌려갔다.¹¹⁰⁾ 이내운은 남양분주소 유치장에 3일 동안 감금되었다가, 지리산으로 끌려가서 희생당했다고 한다.¹¹¹⁾ 사망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지리산 골짜기에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했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1950. 8. 26. 함양군 서상면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는 1950. 9. 5. 오후 7시 삼천포시 죽림동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6)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8.)

107) 『신청인 이정구 진술조서』(2008. 6. 4.),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

108)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사천시사(四川市史) 상(上)』, 2003, 779쪽;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7.)

109) 정헌주(鄭憲柱, 1915년 9월 23일~1999년 5월 21일)는 제2,4,5,8,9대 국회의원, 10대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남양도기회사 사장 이름을 정○○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천군의 제2대 국회의원(1950. 5. 31.~1954. 5. 30.)이라는 점과 남양학원이사장 등의 경력을 고려했을 때, 정헌주를 정○○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1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7.)

111) 『신청인 이정구 진술조서』(2008. 6. 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7.)

제 3 권

다) 양산군 동면 오차홍 희생사건(마-7671, 1950. 8월)

진실규명 대상자 오차홍(吳且洪, 25세)은 1950. 8월¹¹²⁾ 동면 가산리 자택 앞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마을에서 오원이라고 불렸던 오차홍은 일본에 있다가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1950. 8월 오차홍이 집 앞에서 빨치산들에게 “민보단 단장이냐, 이 집에 사느냐”고 추궁 받다 집으로 잡혀 들어온 일이 있었다.¹¹³⁾ 오차홍의 어머니가 빨치산들에게 사정하는 사이에 오차홍은 도망갔다. 일주일 뒤, 오차홍이 집 앞에서 또 잡혀 들어와, 오차홍의 어머니가 살려달라며 돈과 밥을 주려 했으나 빨치산들이 총 뒷부분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쳐 실신시킨 후, 오차홍을 데리고 나가 대문 앞에서 손과 발을 묶고 오른쪽 귀 뒤를 도끼로 살해했다. 가족들은 시신 위에 가마니를 덮어 두었다가 이틀 만에 장례를 치르고 화장했다.¹¹⁴⁾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양산군 동면 김일성 희생사건(마-9572)의 참고인 김○○이 당시 공무원으로 오차홍의 사건을 조사했던 사실을 증언하였다.¹¹⁵⁾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빨치산들이 오차홍의 형인 민보단 단장 오○○을 노리고 집에 왔다가, 오차홍을 오○○으로 오해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하였다.

라) 울주군 두서면 이기생 희생사건(마-6089, 마-8477, 1950. 7. 5.)

진실규명 대상자 이기생(李己生, 41세)은 1950. 7. 5.(음력 5. 21.) 두서면 전읍리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두서면 전읍리는 17호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고 빨치산들의 감시 하에 있었다. 대한청년단이었던 이기생은 마을로 내려온 서부지구 빨치산 대장 박○○이 자신이 온 것을 발설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빨치산¹¹⁶⁾들은 이기생의 집으로 찾아와 왜 신고를 하였는지 따져 물었고 처마 밑에 놓여있던 장작으로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였다.¹¹⁷⁾

112) 희생시기에 대한 자료와 진술이 불일치해 신청인의 진술을 따랐다.

113) 당시 참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마루에 모여 자고 있던 중이어서 사건을 목격하였다.

114)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 7. 8.)

115) 마-9572 사건의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21.)

116)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 7. 23.) 2년 후, 박○○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117)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 7. 23.); 『신청인 윤미자 진술조서』(2009. 7. 22.); 『신청인 이금이 진술조서』(2008. 2. 28.)

다음날 아침, 참고인 손○○이 가마니로 덮여 있는 이기생의 시신을 확인하였다.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였고, 제사는 음력 5. 20.이다. 제적등본에도 1950. 7. 5.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마) 진양군 대곡면 김기호·김성호 형제 희생사건(마-6664, 1950. 8. 17.)

진실규명 대상자 김기호(金沂鎬, 57세)와 김성호(金成鎬, 39세) 형제는 1950. 8. 17.(음력 7. 4.) 경 진양군 대곡면 설매리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김기호와 김성호 형제 집안은 의령군 화정면에서 대대로 유지였다. 김기호는 화양간이 학교를 설립하고, 화양면장을 지냈으며 김성호는 의령군 건설과장을 역임하고 의령군농회 지도자로 활동하였다.¹¹⁸⁾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의령군 화정면으로 진주 방향에서 들어왔다. 본대가 오기 일주일 전인 8. 12. 인민군 3명이 마을에 와서 지방 유지이자 우익인 김기호 집안 사람들을 찾았다. 김기호는 의령군 화정면 상2리 자택에서 인민군에게 잡혔고, 동생 김성호는 본가에 들렀다가 인민군에게 잡혔다. 신청인인 조카 김중남(김성호의 아들)과 참고인인 조카 김○○은 김기호와 김성호가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김기호와 김성호가 끌려간 지 3일 후에 진양군 대곡면 설매리 논두렁에서 총살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시신은 참고인 김○○의 아버지 김○○을 포함한 가족들이 수습하였고, 제사는 붙잡힌 날인 음력 7. 1.에 지낸다.¹¹⁹⁾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김기호와 김성호가 1950. 8. 18.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에는 김기호는 1950. 8. 8. 의령군 화정면 상2리 180번지에서, 김성호는 1950. 8. 8. 의령군 화정면 상2리 602번에서 납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에는 김기호와 김성호가 1950. 8. 13. 오후 3시 진양군 대곡면 설매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희생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사일을 기준으로 김기호, 김성호 형제가 1950. 8. 14. 연행되어 3일 후인 1950. 8. 17.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하동군

하동군은 1950. 7. 30.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였다.¹²⁰⁾ 하동경찰서를 점령한 인민군은 유

118) 『신청인 김중남 진술조서』(2007. 6. 2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9.), 의령군농회 지도자경력 증거사진 1장.

11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9.)

제 3 권

치장을 개방하여 체포 구금되어 있던 좌익 사상범들을 모두 석방했다. 한편, 인민군의 하동 점령과 때를 같이 하여 지리산과 백운산에 숨어 있던 빨치산이 출몰하였다.¹²¹⁾ 하동군을 점령한 인민군은 인민위원회를 복구하였으며, 각 동리마다 치안대를 설치하여, 반동분자를 체포, 구금하였다. 또한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리 단위로 재분배하였고, 부여 동원, 의용군 징집, 식량 차출 등을 하였다.

(1) 양보면 지레리 김순기 희생사건(마-9581, 1950. 8. 27.)

진실규명 대상자 김순기(金舜基, 45세)는 1950. 8. 27. 지방좌익에게 희생당하였다.

김순기는 양보면 지레리에 살면서 국민회 지회장, 양보면 초대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다. 호적에는 '김우영수'라는 이름으로 올라있다.

인민군이 양보면에 들어와 면사무소를 인민위원회로, 양보파출소는 치안대로 사용하였다. 인민군이 양보면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우익인사들이 피난 갔는데, 김순기는 피난 가지 않았다. 1950. 8월경 당시 인민위원장 정○○의 권유로 치안대에 자수하러 갔다가 감금되었다.¹²²⁾ 시신은 1950. 9월 말 경, 인민군이 후퇴한 후, 양보파출소 앞 냇가 모래밭에서 가족과 마을주민들이 수습하였다. 제사는 음력 7. 19. 이다. 제적등본에 1952. 3. 10.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1950. 9. 1.(음력 7. 19.)로 정정하였다.

김순기의 희생사실은 하동군 대한 청년단 및 한청기동대원 순직자 명단¹²³⁾에 이름이 올라 있고,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1950. 8. 26.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에서 피살되었으며,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1950. 8. 26. 하동군 양보면 지레리에서 순국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¹²⁴⁾에는 김순기가 1950. 8. 27. 오전 4시에 희생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결문의 희생일자를 근거로 김순기가 1950. 8. 26. 강제 연행되었다가 다음날인 1950. 8. 27.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8월 9일 오후 2시경, 우익진영 김재열(金在烈), 이진기(李震基) 외 6명을 소위 반동분자

1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 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보고서 1』, 2001, 211~212쪽, 359~360쪽.

121) 하동군지 편찬위원회, 『하동군지 상(上)』, 26쪽.

12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17.)

123) 위 『하동군지 하(下)』, 1360쪽.

124)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단기 4284. 10. 19. 선고. 형공제138호』 본 판결문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비상사태 하의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김○○, 정○○, 김○○가 각각 징역 9년, 김○○, 하○○이 각각 징역 6년, 이○○, 김○○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라 지칭하여 체포 감금케 하고, 동월 11일 오전 4시경 감금중인 이진기, 김재열을 경찰지서 뒷산에서 총살하고, 동월 26일 민족진영 김순기(金順基), 김우성(金又聖) 외 10인을 체포, 감금하여 동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2시경까지 10여 명의 보도연맹원 유가족을 집합시켜 김순기, 김우성을 곤봉 등으로 구타한 결과, 12명 중 김순기, 김우성은 다음날 오전 4시에 유치장에서 즉사케 하고, 동월 27일 오전 2시경 치안대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는 이종훈(李鍾勳), 정상용(鄭相容)을 우차에 편승시켜 총살하고, 동년 9월 26일 오후 9시 치안대 유치장에 감금중인 전 경찰관 이점섭(李点燮)을 총살하고, 9월 29일 오후 11경 국민회 간부 이병학(李炳鶴)을 체포, 망바구골 도로변에서 살해하고”

본 사건 참고인 김○○은 조사과정에서 인민군이 양보면에 들어와 후퇴할 때까지 면장 이진기, 김재열, 김수구(김우성), 이병학, 이종훈, 정상용 등이 희생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¹²⁵⁾ 이는 위 판결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판결문의 金順基와 鄭相容은 정항상 金舜基와 鄭相龍의 한자 오기로 판단된다.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이진기, 김수구(김우성), 이병학, 김재열, 이종훈, 정상용, 이점섭 등 7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동군 대한 청년단 및 한청기동대원 순직자 명단’¹²⁶⁾에 이진기(李震基), 김우성(金又聖), 이병학(李炳鶴), 김재열(金在烈), 이종훈(李鍾勳), 정상용(鄭相龍) 등 6명의 이름이 올라 있으며,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김재열, 이진기, 이종훈, 김수구(김우성), 이병학, 이점섭 등 5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이진기, 김우성(김수구)이 등재되어 있다.

(2) 금성면 갈사리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마-10452 등 4건, 1950. 8. 29.)

진실규명 대상자 엄갑수(嚴甲守, 38세), 엄금암(嚴金巖, 38세), 엄재수(嚴在守, 35세), 엄재홍(嚴在洪, 33세) 등은 1950. 8. 29.(음력 7. 16.) 지방좌익에게 붙잡혀, 금성면 갈사리 연막창고에 감금되었다가 마도 백사장에서 희생당하였다.

금성면 갈사리 연막마을은 100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는데, 그 중 엄씨가 20호 정도로 많았고, 하씨도 많았다. 엄씨와 하씨 양 집안은 해방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해방 후, 엄씨 집안의 남자들은 대부분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였고, 하씨 집안 남자들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한국 전쟁으로 그 감정이 폭발하였다.¹²⁷⁾

전쟁이 나고 인민군이 하동에 들어오자 일단 엄씨 집안 사람들은 남해로 피난하였다가

12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17.)

126) 위 『하동군지 하(下)』, 1360쪽.

127) 『참고인 신○○ 진술조서』(2009. 9. 6.)

제 3 권

하동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이미 하씨 집안 사람들이 치안대를 조직하고, 이른바 반동분자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다. 1950. 8. 26.경 엄갑수(엄재만), 엄금암, 엄재수, 엄재홍을 포함한 엄씨 일가 20여 명이 연막 수협창고에 감금되었다. 연막 창고에서 때리는 소리, 고향 소리가 흘러나왔다.¹²⁸⁾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감금되었다. 하씨와는 사상이 다르다고 알려진 사람들과 그들의 부인, 부인이 없으면 어머니를 감금하고 구타한 뒤 여자들은 풀어주었고, 남자들은 배에 싣고 가 마도 백사장에 생매장하였다. 그 때 엄씨 일가 외에 정길수(정운기)도 같이 희생당했다. 정길수는 대한청년단원인 형 정차수를 대신해서 희생당했다.¹²⁹⁾

이때 연막 수협 창고에 감금되었다가 마도 백사장에 생매장된 사람이 최소한 28명이다. 이들의 시신은 1950. 9. 27.경에 수습하였다. 제사는 음력 7. 15.이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¹³⁰⁾에서 이와 같은 희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생략) 연막부락 거주 엄재기, 엄재수, 엄재기(일명 재년), 엄기옥, 정길수(일명 운기), 엄정수(일명 점세), 엄도선, 엄점준, 엄상문, 엄도세, 엄재만, 엄백수, 엄기영 등 20명을 불법 체포하여 연막부락 자위대 본부인 동 부락 어업조합창고에 감금한 후, 무단히 구타하여 음력 7월 16일 경에 그중 엄백수, 엄도영은 석방하고 두 사람을 제외한 11명을 결박한 채 나룻배로 갈사리에서 약 2백미터 떨어진 무인도인 마도(모섬)에 운반하여 해안 백사장에 생매장하여 살해하고, 음력 7월 26일 갈사리 엄0석, 엄인석, 엄기도, 엄종열 등을 체포하여 어업조합창고에 감금한 후 구타하여 같은 날 밤 엄기석을 살해하고 나머지 3명은 다음날 7월 27일 야음을 이용하여 나룻배로 갈사리에서 약 8백미터 떨어진 사도리 죽도(죽바위)로 운반하여 해안 백사에 매장하여 살해하고”, 또한 “김연조를 경찰관의 부친이라는 이유로, 김수만을 경찰 밀정이라는 이유로, 내도부락 구장 권영석과 국민회 간부 이삼도를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살해하였다.”

본 사건 관련 판결문에 비춰 볼 때, 엄갑수(엄재만), 엄금암, 엄재수, 엄재홍 등의 엄씨 일가가 연막 수협창고에 감금되었다가 희생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하여 최소한 28명이 희생당하였는데, 『6.25사변 피살자 명부』와 『유공자 관계 서류록』의 명부와 신청인의 진술조서에 명시된 이름, 그리고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희생자의 이름과 희생시기를 <표 9>로 정리하였다.

128) 『참고인 고○○ 진술조서』(2009. 9. 6.)

129) 『참고인 배○○ 진술조서』(2009. 9. 6.)

130) 『대구고등법원 단기 4288. 3. 17. 선고, 형공공 제4호』본 판결문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김○○와 김○○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표 9〉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의 희생자 이름과 희생시기

연번	희생자 이름	희생시기			
		신청인 진술조서	판결문	6.25사변 피살자 명부	유공자 관계 서류록
1	엄갑수(재만)	7. 16.	7. 16.	1950. 5. 8.	
2	엄재기	7. 16.	7. 16.	1950. 5. 8.	
3	엄재수	7. 16.	7. 16.	1950. 9. 8.	1950. 8. 13.
4	엄재홍	7. 16.			
5	엄정(점)준	7. 16.		1950. 9. 8.	1950. 8. 13.
6	엄상문	7. 16.	7. 16.		1950. 8. 13.
7	엄도식	7. 16.			
8	엄종열	7. 16.	7. 26.	1950. 9. 17.	1950. 8. 13.
9	엄점석	7. 16.			
10	엄기도	7. 12.경	7. 26.	1950. 9. 17.	1950. 7. 27.
11	엄인섭			1950. 9. 17.	1950. 8. 13.
12	엄범바우	7. 16.			
13	엄도세	7. 16.	7. 16.	1950. 9. 8.	
14	엄정중				1950. 8. 2.
15	엄옥룡			1950. 9. 9.	
16	엄점세(정수)		7. 16.	1950. 9. 8.	
17	엄백문			1950. 9. 8.	
18	엄기석	7. 16.	7. 26.		
19	엄기음			1950. 9.16.	
20	엄재년		7. 16.	1950. 5. 8.	
21	엄도선		7. 16.	1950. 9. 8.	
22	엄기옥		7. 16.	1950. 9. 8.	1950. 8. 11.
23	엄금암	7. 16.			
24	김연조		7. 28.	1950. 9. 2.	1950. 8. 12.
25	정길수(운기)	7. 16.	7. 16.		
26	김수만		7. 28.		1950. 8. 3.
27	이삼도		7. 28.		1950. 5. 27.
28	권영석		7. 28.		1950. 7. 26.

〈표 10〉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진실규명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희생 규모
확인	확인	
엄갑수(엄재만), 엄금암, 엄재수, 엄재홍, 등 4명	엄재기, 엄점준, 엄상문, 엄도식, 엄종열, 엄점석, 엄기도, 엄기식, 엄범바우, 엄도세, 정길수 엄인섭, 엄정중, 엄옥룡, 엄점세, 엄백문, 엄기음, 엄재년, 엄도선, 엄기옥, 김연조, 김수만, 이삼도, 권영석 등 24명	28명

사) 함양군

인민군 제4사단은 1950. 7. 27. 아침에는 육십령 고개를 넘었고, 같은 날 안의를 점령하였다. 28일 함양읍을 점령하였으며, 29일 함양군 전역을 점령하였다.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은 가장 먼저 읍·면, 리 단위까지 인민위원회를 복구하였으며,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따른 토지개혁, 현물세 징수, 의용군 징집 등의 점령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군이 9. 28. 수복하기까지 2개월 간의 인민군 점령 기간 동안 인민재판에 의한 우익인사나 유지,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1) 안의면 금천리 이윤택 사건(마-9587, 1950. 7. 28.)

진실규명 대상자 이윤택(李允宅, 47세)은 1950. 7. 28.(음력 6. 14.) 피난 길에 올랐다가 초동리 박골마을에서 지방좌익에게 잡혀 희생당했다.

이윤택은 안의면 금천리 안의국민학교 교장이었다. 1950. 7. 25. 인민군이 안의에 들어온다며 피난가라는 방송이 나왔다. 인민군이 함양군 서상면에서 안의로 들어오기 직전이었다.¹³¹⁾ 방송을 들은 이윤택은 학교 관련 서류를 비장한 후에 동료 교사들과 피난길에 나섰다. 초동리¹³²⁾ 박골에서 인민군에게 총살당하였다.¹³³⁾ 안의국민학교 졸업생들은 이윤택이 지방좌익에게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안타까워하였다.¹³⁴⁾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였고, 제사는 음력 6. 13.이다. 제적등본에는 1950. 7. 28. 오전 10시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산’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안의초등학교 교정에

131)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7. 22.)

132) 초동리는 박동마을과 덕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박동마을 앞에 솟아 있는 산자락을 장재울이라 하며, 거창에서 안의로 넘어오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한다.

13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5. 24.)

134)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9. 7. 23.)

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건립한 이운택 충혼비가 있다.

(2) 서상면 박덕성 희생사건(마-2603, 1950. 7. 30.경)

진실규명 대상자 박덕성(朴德成, 39세)은 1950. 7. 27.경 피난길에 올랐다가 서하면 운곡리에서 지방좌익에게 잡혀 3일 후에 희생당하였다.

박덕성은 함양군 서상면에서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다. 인민군이 서상에 들어올 무렵인 1950. 7. 27.경, 피난을 가다 서하면 운곡리, 친척 집에서 지방 좌익에게 붙잡혔다. 이후 서하 치안대로 끌려가서 3일 동안 감금되었다가 인민재판을 받고 서상면 송계리 감나무 밑에서 총살당하였다.¹³⁵⁾ 시신은 가족들과 교인들이 수습하여 그 자리에 매장하였다가 6년 후에 선산으로 이장하였다.

제적등본에는 1952. 1. 27. 함양군 함양읍 상동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고인의 진술로 토대로 1950. 7. 30.경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마천면 창원리 김종환 희생사건(마-5718, 1950. 8. 7.)

진실규명 대상자 김종환(金鍾煥, 22세)은 1950. 8. 7.(음력 6. 24.) 함양읍에서 마천면으로 피난하였다가 마천면에서 지방좌익에게 붙들려 희생당했다.

김종환은 함양읍 하동3구 사람으로 경비대에 자원 입대하여,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 하였다가 늑막염으로 병가를 받고 집에 와 있었다. 인민군이 함양읍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천면으로 피신하였으나¹³⁶⁾ 마천면은 당시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이었다.

1950. 8. 6. 김종환이 어머니와 함께 마천면 창원리에 있는 참고인 김창선의 집에 도착하였다. 당일, 마천면의 지방좌익들이 마을 부자로 알려진 서상인, 방위대 소위 이○○, 군대 갔다 온 김○○를 잡으러 왔다가 김종환까지 마천 분주소로 끌고 갔다. 당시 치안대장이 서상인의 아들인 참고인 서○○에게 이들이 인민재판을 받고, 다음날인 1950. 8. 7. 새벽 3시경에 총살당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이○○와 김○○가 인민재판을 받고 끌려가는 도중 입업시험장 부근에서 도망가자 그 자리에서 김종환과 서상인을 사살하고 강가 모래구렁이에 묻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장도 총살당하였다.¹³⁷⁾

135)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7. 23.)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 7. 23.)

136) 신청인과 참고인 김○○, 서○○은 김종환이 군인이었다고 하였으나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인 김순애 진술조서』(2007. 9. 5.)

137) 마천면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과 접하고 있으며, 지리산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또, 김종환과 서상인을 체포, 인민재판한 치안대원 중 1인이 산내면 출신이었다.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 8. 2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9. 4.)

제 3 권

김종환의 시신은 참고인 김○○의 아버지와 김종환의 어머니가 수습하고, 길가에 매장하였다.¹³⁸⁾ 당시 마천면 소재지는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어서 낮에는 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가서 수습하였다.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제적등본에는 1950. 6.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¹³⁹⁾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치안대 본부에서 소위 반동분자 숙청이란 명목으로 마천면 창원리 서상인(徐相仁), 김인규(金寅圭), 이병우(李炳雨)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총살형을 각 언도하고 익 3일, (생략) 같은 명목으로 전라남도 남원군 산내면 이하 미상 거주 이중열(李重烈), 이하영(李夏永) 외 6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총살형을 각 언도하여 익 4일 오전 4시경, 총살형의 언도를 받은 우익 요원 등을 마천면 가흥리 임업시험장사무소 부근 노변에서 총살 집행하였으나 김○○, 이○○ 및 산내면 거주 성명 미상자 1명은 탈주하고 서상인, 이중열, 이○○ 등 6명은 현장에서 총살하여 결국 살해의 목적을 달성함.”

한편,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제7대 면장을 역임한 이중열(李仲烈)의 제적등본에는 “1950. 8. 8. 오전 4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도로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결문에는 김종환의 희생사실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김종환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서상인, 산내면장인 이중열과 함께 희생당했다고 판단하였다.

(4) 지곡면 공배리 허문석 희생사건(마-3983, 1950. 8. 7.)

진실규명 대상자 허문석(許文錫, 36세)은 1950. 8. 7.(음력 6. 24.) 창평리 창촌마을 앞산에서 지방좌익에게 희생당하였다.

허문석은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부야마을에서 이장을 하였고 대한청년단 지곡면 분단장이었다. 머슴을 여럿 두고 살 정도 부유했다.

당시 지곡면은 좌익세력이 많았다. 함양군당 위원장으로 알려진 이○○¹⁴⁰⁾과 지곡면

13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9. 4.)

139)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단기 4285. 10. 17. 형공 제483.503.518호』, 본 판결문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박○○은 무기징역, 정○○과 한○○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40) “이○○은 지곡면 공배마을 출신으로 함양에서 유명한 좌익활동가이다. 1952년 9월경, 이중첩자였던 호위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위협사격을 받고 자기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피해자 현황 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군), 118쪽;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7. 23.)

치안대장 백○○¹⁴¹⁾가 지곡면 출신이다.

허문석이 치안대로 끌려가 희생당하기 전에 빨치산을 신고한 일이 있었다. 빨치산이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허문석이 마을주민인 참고인 정○○을 통해 지서에 신고하였고, 빨치산 3명을 체포하였다. 그 일로 해서 1950. 8. 4. 허문석과 참고인 정○○이 치안대로 끌려가 3일 동안 고문을 받았다. 참고인 정○○은 풀려났으나, 허문석은 1950. 8. 7. 총살당하였다. 당시 치안대장 백○○가 허문석을 지곡면 창평리 창촌마을 앞산으로 끌고 가서 총살하였다.¹⁴²⁾

제사는 허문석이 희생당한 날인 음력 6. 24.이다. 제적등본에는 1950. 8. 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1950. 8. 1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곡면 애국동지 위령단에 위패도 있다. 문헌자료 상 희생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참고인의 진술과 제사일을 토대로 허문석이 1950. 8. 7.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지곡면 공배리 정무생 희생사건(마-982, 1950. 9. 17.)

진실규명 대상자 정무생(鄭武生, 43세)은 1950. 9. 17.(음력 8. 7.) 공배마을 회관 앞에서 지방좌익에게 희생당하였다.

정무생은 국민회 지곡면 공배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지곡면 공배리에는 공배마을과 부야마을이 있는데, 공배마을은 지곡면에서 가구 수가 많은 큰 마을이었다.

정무생과 정귀홍¹⁴³⁾은 1950. 9. 17.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지방좌익에게 공배마을 회관 앞으로 끌려갔다. 허○○, 양○○, 양○○, 문○○, 박○○, 김○○, 이○○ 등의 지방 좌익들이 정무생과 정귀홍을 인민재판 하였고,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였다.¹⁴⁴⁾ 시신은 다음날 가족들이 수습하여 매장하였고, 제사는 정무생이 희생당한 날인 음력 8. 6.이다. 제적등본에는 1950. 8. 3.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정무생과 정귀홍이 1950. 8. 30. 희생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곡면 애국동지 위령단에 위패가 있고, 서울시 남산에 소재한 충혼탑에 이름이 올라 있

141) “백○○는 안의, 대덕, 대진, 등의 학교에서 교사로, 교장으로 근무했다. 전쟁이 나고 인민군 치하였을 때 지곡면 인민위원회 치안대장이었다. 14 후퇴 이후 월북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피해자현황 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군), 126쪽.

142)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7. 23.);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 7. 23.)

143) 참고인 임○○는 정무생의 재당숙인 정○○도 같은 날 끌려가 희생당했다고 하였으나, 정○○의 희생사실에 대해서는 참고인을 확보할 수 없었고, 문헌자료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9. 7. 23.)

144)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9. 7. 23.); 『참고인 노○○ 진술조서』(2009. 7. 23.)

제 3 권

다. 또한 『6.25 전후 함양군 사망자 명단』¹⁴⁵⁾에서 정무생과 정귀홍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한편, 신청인 정진경은 “허○○, 양○○, 양○○, 문○○, 박○○, 김○○, 이○○ 등이, 그 후 10년씩 형무소에서 살고 나와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 갔다”¹⁴⁶⁾ 고 하였으나, 본 사건 관련 처벌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본 건 조사과정에서 정무생의 형 정축생도 1950. 7월 말경 치안대에 끌려가 고문으로 희생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정축생은 당시 국민회 지곡면 부회장이었다.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정축생이 1950. 1. 20. 희생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축생의 희생사실은 『2008년 피해자현황 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군)¹⁴⁷⁾에도 기재되어 있다.

아) 합천군 봉산면 이성주 희생사건(마-5559, 1950. 8. 1.)

진실규명 대상자 이성주(李性柱, 47세)는 1950. 8. 1.(음력 6. 18.)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집 앞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이성주는 봉산면 계산리 동편부락에서 농사지었다. 마을에서는 이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봉산면 계산부락은 낙동강 가는 길에 거쳐 가는 마을이라 전쟁 중에 인민군이 머물다 가곤 하였다. 인민군이 마을에 머물 때마다 마을주민들은 인민군을 피해 마을 뒷산에 숨어 지냈다.¹⁴⁸⁾

1950. 8월경 인민군 선발대가 마을에 이를 정도 머물다 갔다. 인민군이 온다는 사실을 안 마을사람들은 대피하여 마을 뒷산에 숨어 있었다. 인민군이 마을 곳곳에 보초를 세웠고, 이성주의 빈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¹⁴⁹⁾ 마을사람들이 피신해 있다가도 밤에 자기 집에 들려 식량을 가져 나오곤 했는데, 인민군이 총을 겨누며 검문을 하였고, 검문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가면 총을 쏘기도 하였다. 이성주도 밤에 집에 들렀다가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집 앞에서 사망하였다. 시신은 다음날 가족들과 마을사람들이 수습하였다. 제사는 음력 6. 17.이다. 사망 신고는 전쟁이 끝난 후에 하였고, 제적등본에는 1952. 10. 1.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45) 함양경찰서, 『6·25전후 함양군 사망자 명단』지곡면 공배리 허문석 희생사건의 참고인인 오○○이 1953년 당시 함양경찰서 지곡지서 순경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1953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 7. 23.)

146) 『신청인 정진경 진술조서』(2008. 6. 30.)

147)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피해자현황 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군), 118쪽.

14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8. 12.)

149)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 8. 12.)

3) 인민군 퇴각기(1950. 9. 25. ~ 1950. 9. 27.)

인민군이 후퇴할 무렵 북한 당국은 유엔군 상륙 시 지주(支柱)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수감자와 우익 인사에 대한 숙청이 전개되었다.

1950. 9월 인민군 퇴각 당시 우익인사와 경찰, 공무원 등 300여 명이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황재에서 희생당하였다. 인민군들은 점령기에 경찰이나 군인, 공무원 등 우익인사와 그 가족 등 소위 반동분자를 함양을 비롯해 진주, 남해, 거제, 고성, 삼천포 등지에서 색출하여 진주형무소에 수감하였다. 그러다가 인천상륙작전 후 후퇴하면서 9. 26.~28. 수감되어 있던 우익인사 300여 명을 트럭에 싣고 대황재¹⁵⁰⁾에서 집단학살한 것이다.

인민군 퇴각기에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황재’에서 발생한 집단학살의 가해주체와 희생규모를 『미(美)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이하 KWC) KWC #92, KWC #171, KWC #384로 확인하였다.

먼저, 대황재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은 “경상남도 정치보위부의 명령에 따라 경상남도 내무부원, 101보안연대, 지방좌익 등에 의해 학살이 자행되었다”¹⁵¹⁾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함양군 서하면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친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1950년 9월 28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함양군 서하면 이은리 도장곡(일명, 도톡골)에서 약 90명이 학살되었고, 1950. 9. 27.~9. 28. 이들 간 함양군 서하면 대황재 부근 일대에서 약 500명이 학살당한 것¹⁵²⁾으로 파악하였다. 목격자들은 “포로의 대부분은 한복이나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줄에 묶여 있었다. 그 인원수가 많은 관계로 묶은 채 한 곳에 몰아넣고 난사하여 죽였다.”¹⁵³⁾고 증언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펴낸 『좌익사건 실록』¹⁵⁴⁾에도 진주시 내무서에 구속되어 있던 정○○이 인민군이 후퇴할 때 납치되어 북행하던 중 함양 대황산에 이르러 총살형에 처해졌으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살아나 진주에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다.

150) 대황재는 서하에서 함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임금이 넘어갔다고 해서 대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51) NARA, RG 153(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al War Crime Branch: Investigation of Atrocities Against POW's in Korea) 중 KWC #92.

152) NARA, RG 153(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al War Crime Branch: Investigation of Atrocities Against POW's in Korea) 중 KWC #171.

153) NARA, RG 153(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al War Crime Branch: Investigation of Atrocities Against POW's in Korea) 중 KWC #382.

154) 대검찰청, 『좌익사건 실록』 11권, 240쪽.

제 3 권

해당 시기에는 신청사건 중 12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10건이 남해, 산청, 진양, 진주, 통영, 하동, 함양 등의 내무서 혹은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시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진실규명 대상자 1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5명의 희생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12건의 사건을 함양군 서하면 대황재 사건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가) 산청군 신안면 도태호 희생사건(마-9380, 1950. 9. 26.)

진실규명 대상자 도태호(都泰昊, 69세)는 1950. 9. 26.(음력 8. 15.) 산청군 신안면 심거부락에서 후퇴하는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도태호는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어천부락에서 농사지었다. 마을에서는 도나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방목리 어천부락은 30호 정도의 작은 마을인데, 어천부락 뒷산인 웅석봉이 빨치산의 근거지여서 한국 전쟁 전부터 소개된 마을이었다. 밤에는 강 건너 신안면 심거마을에서 자고 낮에는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¹⁵⁵⁾

1950. 9. 25. 후퇴 중인 인민군이 도태호의 소를 빼앗으려하자 도태호가 저항하였다. 그러자 인민군이 심거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총살하였다.¹⁵⁶⁾ 당시 도태호의 아들 도○○은 지방 좌익에게 끌려가 산청내무소에서 45일가량 감금되었다가 도태호가 총살당한 날 풀려났다. 시신은 현장에서 바로 수습하였고, 제사는 희생당한 날인 음력 8. 15. 이다.

나) 진주시 명석면 박성준 희생사건(마-6206, 1950. 9. 26.)

진실규명 대상자 박성준(朴性俊, 46세)은 1950. 9. 26.(음력 8. 15.) 진주시 명석면 남성리 용장골에서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

박성준은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에서 살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인민군 6사단과 국군의 전투가 한창이었던 8월 말부터 명석면 왕지리에 함안 전투(여항산 전투)에서 부상당한 인민군 부상병들이 들이닥쳤다. 인민군들은 부상병들을 집집마다 옮겨놓았고 마을주민에게 부상병들의 수발하면서 같이 북으로 갈 것을 강요했다.¹⁵⁷⁾

인민군들은 박성준의 집에도 부상병을 옮겨놓았고, 박성준에게 부상병을 메고 북으로

155)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 7. 2.);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2.)

156)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 7. 2.);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2.)

157) 『신청인 구봉옥 진술조서』(2009. 6. 9.); 『참고인 구○○ 진술조서』(2009. 6. 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9.)

같이 갈 것을 강요했다. 박성준은 어쩔 수 없이 부상병을 메고 명석면 남성리 용장골까지 인민군과 동행했다.¹⁵⁸⁾ 남성리 용장골에서 박성준이 인민군의 강제 부역을 거부하며 저항하자, 인민군은 본보기를 보인다고 박성준을 총살하였다. 남성리로 피난하다가 이를 목격한 참고인 김○○이 박성준의 가족에게 박성준의 사망사실을 알려주었고, 참고인 구○○을 비롯한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다.¹⁵⁹⁾ 제사는 음력 8. 14.이다.

다)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희생사건

(1) 강갑이 희생사건(마-6511, 1950. 9. 27.경)

진실규명 대상자 강갑이(姜甲伊, 44세)는 1950. 9. 27.(음력 8. 16.)경 함양군 지리산록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강갑이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에 살았고, 법송리 4개 부락 이장이었다.

통영에 인민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서장, 면장, 강갑이를 비롯한 마을유지들이 한산도로 피신하였다. 강갑이는 가족들이 마음에 걸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치안대에 붙잡혀 도산면 분주소로 끌려갔다. 강갑이가 25일가량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강갑이의 어머니와 딸이 밥을 갖다 주었다. 1950. 9. 25.경, 강갑이의 어머니와 딸이 분주소에 도착하였으나, 인민군이 감금된 사람들을 끌고 후퇴한 뒤였다.¹⁶⁰⁾ 참고인 송○○은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에 살았다. 경찰을 그만두고 쉬고 있었다. 도산면 분주소에 일주일가량 감금되었다가 강갑이와 같이 전기줄에 묶여 함양 지리산 쪽으로 끌려갔다. 참고인 송○○은 총살 직전에 전기줄을 끊고 도망하였다.¹⁶¹⁾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제적등본에는 1950. 9. 1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25 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1950. 8. 상순경, 통영군 법송리 3구 후산에서 피납되었고, 주소는 포로수용소로 기재되어 있다.

강갑이와 같이 도산분주소에 감금되었다가 총살 직전에 생환한 참고인 송○○의 진술을 토대로 강갑이는 1950. 9. 27.경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58) 『신청인 구봉옥 진술조서』(2009. 6. 9.); 『참고인 구○○ 진술조서』(2009. 6. 9.)

15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9.)

160)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9. 9. 4.) 참고인 조○○은 강갑이가 소를 잡아 달라는 인민군의 요구를 거절하여 도산면 분주소로 끌려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9. 4.)

161) 『참고인 송○○ 진술조서』(2008. 3. 27.)

제 3 권

(2) 김광호 희생사건(마-7454, 1950. 9. 27.경)

진실규명 대상자 김광호(金光鎬, 34세)는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27. (음력 8. 16.) 대항재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김광호는 경남 진주시 유곡동에 살았다. 마을에서는 김두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김광호의 아버지가 부농이었으며, 김광호는 진주시 나동 면사무소 산림계에 근무하였다. 김광호는 진주에 인민군이 들어오자 산청군 생비량면 산디미마을로 피난 갔는데, 거기서 치안대원에게 체포되어 진주로 다시 끌려왔다.¹⁶²⁾

유곡동 민가에 10일 정도 감금된 후, 옥봉동 인민군 사령부(옥봉 천주교회)¹⁶³⁾로 이송되었고 다시 진주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던 사람들을 끌고 유곡동을 지나가는 것을 김광호의 딸인 참고인 김○○가 보고 아버지 김광호를 찾으려 했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찾을 수가 없었다.¹⁶⁴⁾

그 후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김광호와 같이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진주시 이현동에 사는 정○○이 김광호가 함양 산골에서 총살당하였다고 알려주었다.¹⁶⁵⁾ 김광호의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시신이 많고 부패해서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진주시 유곡동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1950. 9. 22.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서 납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광호가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다가 함양 산골에서 희생당하였다는 생환자의 전언에 비추어 김광호가 1950. 9. 27.경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김윤찬 희생사건(마-980, 1950. 9. 25.)

진실규명 대상자 김윤찬(金允贊, 21세)은 1950. 9. 25.(음력 8. 14.) 경 후퇴하는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되어¹⁶⁶⁾ 대항재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윤찬은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출신으로 부산 경남도청 지적과에 근무하였다. 추석 무렵 인민군이 남해군에서 후퇴할 조짐이 보이자 고향인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에 왔다가

162)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9. 6. 9.)

163) “진주 시내의 각 학교와 관공서는 인민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옥봉천주교회는 군사령부로 사용되면서 종탑과 성당 일부가 파괴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평화신문, 2007. 5. 27.

16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9. 4.)

16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9. 4.)

166) 『신청인 김행규 진술조서』(2008. 5. 22.)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

김윤찬의 희생사실과 관련한 문헌자료가 없어 희생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같은 고향의 희생자 박주원(마-6118)이 김윤찬과 유사한 이유로(김윤찬은 경남도청 공무원, 박주원은 남해군청 공무원) 끌려가 함양 대항재에서 희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윤찬도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추정하였다.¹⁶⁷⁾

(4) 나승운 희생사건(마-9973, 1950. 9. 27.)

진실규명 대상자 나승운(羅勝雲, 38세)은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27.(음력 8. 16.) 대항재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나승운은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연서마을에 살았다. 마을에서는 나종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대한청년단장을 하였다.

병곡면 도천리는 하씨 집성촌인데 하○○을 비롯한 하씨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등 좌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인민유격대 제3병단 부사령관을 역임한 하준수¹⁶⁸⁾가 병곡면 도천리 출신이다.¹⁶⁹⁾ 1948년 말부터 빨치산 간부로 활동하던 하○○이 나승운의 집에 은거하러 왔는데, 동네 청년단원들이 하○○을 잡아서 병곡지서에 넘긴 일이 있었다.¹⁷⁰⁾ 그 후에 1950년 인민군 점령기인 1950. 7. 30.(음력 6. 16.) 병곡지서의 치안대원들이 나승운을 병곡면 도천리 양곡창고로 끌고 가, 집단구타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1950. 8. 20.경(음력 7. 7.) 다시 치안대원에게 잡혀 함양 내무서를 거쳐 진주형무소로 이송되었고, 인민군이 후퇴할 때 대항재에서 희생당했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고 가묘를 썼다. 제사는 음력 8. 15.이며 제적등본에는 1953. 8. 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1951. 6. 함양군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8 피해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에는

167)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남해군 참조. 남해군에서 피납된 262명 중 134명이 대항재가 있는 함양에서 피납된 것으로 보아 134명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8) 한국전쟁 때 동해안 주문진으로 상륙한 766부대(제7군단)의 부대장. 진주 중학을 거쳐 일본의 중앙대학 법학부 3학년 중퇴, 학병을 피하여 지리산에 입산. 해방 뒤 함양 건준위원과 공산당 간부로 있었다. 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 강동정치학원에 입교, 이 학원의 군사교관으로 있다가 인민유격대 제3병단(사령관 김달삼) 부사령관으로 남한에 침투하였다. 일명 남도부로 불렸다. 김남식, 『남도당 연구 I』, 돌베개, 1984, 413쪽; 임경석,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역사비평사, 2008, 232쪽.

169) 『신청인 라상목 진술조서』(2008. 6. 30.):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7. 24.)

170) 『참고인 나○○ 진술조서』(2009. 7. 24.): “병곡면 도천리 도천마을의 하○○은 일제강점기 때 마을구장도 하고 한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인데 해방 이후 좌익활동에 관여하다 피신 중이었던 1948년 사돈 간인 나승운의 집을 찾아 왔다가 함양경찰서 병곡지서에 잡혀가서 그날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2008 피해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 최종결과보고서, 154쪽.

제 3 권

나승운이 인민군 후퇴 시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¹⁷¹⁾

제적등본과 명부상의 희생일이 일치하지 않으나 참고인의 진술과 제사일을 기준으로 나승운이 1950. 9. 27.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박녹이 희생사건(마-8826, 1950. 9. 27.)

진실규명 대상자 박녹이(朴綠伊, 35세)는 산청치안대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27.(음력 8. 16.) 대항재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박녹이는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먹골마을에 살았다. 1949. 10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빨치산으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마을주민 양○○에게 이야기하였다. 박녹이의 이야기를 들은 양○○은 당시 이장인 허○○에게 말하였고, 허○○은 마을에서 청년단 활동을 하고 있던 이상봉(마-8828)을 신등지서로 보내어 신고하였다. 이때 6명의 빨치산 중 3명을 사살하였는데, 6명의 빨치산이 신안면과 신등면 출신이었고, 그 중 한 명이 외고리 출신이었다. 그 후 인민군 점령기에 신등 치안대에서 당시 빨치산을 신고한 사람을 보복하였다.¹⁷²⁾

1950. 8. 허○○과 이상봉은 피신하였고, 박녹이와 양문용, 허○○의 아들 허근이 신등치안대로 잡혀갔다. 양문용은 고문을 이기지 못해 1950. 8. 27. 사망하였다. 박녹이와 허근은 치안대에 감금되었다가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1950. 9. 26.경 산청읍 부근 골짜기에서 총살하였다.¹⁷³⁾

박녹이의 시신은 박녹이의 부인이 수습하였다. 제사는 음력 8. 15.이다. 제적등본에는 1950. 8. 20.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1950. 9. 27. 함양군 서상면에서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녹이의 제사일과 명부에 기재된 피살지로 보아 박녹이가 1950. 9. 27. 대항재에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6) 박주원 희생사건(마-6118, 1950. 9. 26.)

진실규명 대상자 박주원(朴周元, 42세)은 1950. 9. 21.경 인민군에 의해 남해군 고현면

171) 위 『2008 피해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 154쪽.

172)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1.)

173) 『참고인 양○○ 진술조서』(2009. 7. 1.) 참고인 조○○은 양문용, 허○○의 아들 허근, 이상봉이 각각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고 박녹이만 치안대로 끌려가서 희생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상봉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신해 있다가 1953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빨치산에게 희생당했다.

이어리 자택에서 강제연행되어 1950. 9. 26.(음력 8. 15.)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에서 희생당하였다.

박주원은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67번지에 살았고, 남해군청 내무과장이었다. 당시 고현면 이어리에는 좌익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남해군 인민위원장이었던 김○○와 남해군 보안대장이었던 김○○이 이어리 출신이다.¹⁷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해군의 공무원들 상당수가 통영 육지로 피난을 갔으나 박주원은 피난 가지 않고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9. 21.(음력 8. 10.)경 미군이 상륙한다는 소리를 듣고 군청에 가려고 나서던 중 인민군에게 잡혀, 선소 선착장으로 이송된 후, 삼천포를 거쳐 산청 쪽을 끌려갔다.¹⁷⁵⁾

이후 같이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사람이 박주원이 함양에서 사망하였다고 알려주어, 시신은 사망하고 한 달 정도 지난 10월 말경에 박주원의 부인이 수습하였다. 시신 수습 당시 시신이 부패하여 박주원이 입고 있던 옷으로 시신을 확인하였다. 박주원의 시신을 남해까지 운반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화장하고 유골만 수습하여 돌아왔다.¹⁷⁶⁾ 제사는 음력 8. 14.이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1950. 9. 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희생자 인명 DB』에는 박주원의 주소지만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67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적등본에는 1950. 9. 26. 오후 10시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청촌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사일과 명부상의 희생일이 일치한다. 따라서 박주원은 1950. 9. 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황재에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7) 이동식 희생사건(마-3577, 1950. 9. 26.)

진실규명 대상자 이동식(李東植, 30세)은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26.(음력 8. 15.) 대황재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이동식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에 살았다. 일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부농이었다. 하동에 있는 모 신문사 지국장을 하였고,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다.¹⁷⁷⁾

하동읍에 들어온 인민군이 이동식의 집 아래채를 사용하였고, 이동식의 가족은 위채를 사용하였다.¹⁷⁸⁾ 1950. 7월 말경 이동식은 집에서 지방좌익에게 끌려가 치안대에 감금되었

174) 『신청인 정옥이 진술조서』(2008. 5. 2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9.)

175) 『참고인 류○○ 진술조서』(2009. 7. 9.)

176) 『신청인 정옥이 진술조서』(2008. 5. 22.): 『참고인 류○○ 진술조서』(2009. 7. 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9.)

177) 참고인 이○○과 참고인 신○○은 이동식이 신문사 지국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17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6. 5.)

제 3 권

다가 사천경찰서장 신정욱, 횡천면 대한청년단 부단장 정○○,¹⁷⁹⁾ 하동경찰서 순경 김연준과 함께 진주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 후 소식을 모르다가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정○○에게 “진주형무소¹⁸⁰⁾가 산청 가는 길 부근에 있는데, 형무소 위에서 인민군이 구덩이를 파놓고 총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¹⁸¹⁾ 하동경찰서 순경 김연준의 가족과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시신이 뒤엉켜 있고 부패해서 찾을 수가 없었다.¹⁸²⁾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하동경찰서장이 이동식과 같은 날 끌려가 희생당한 유가족을 불러 위로하고 제사를 음력 8. 14.로 하라고 일러주었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이동식(31세, 기자)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명부에는 이동식이 하동군 하동읍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동식이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던 점과 제사일이 음력 8. 14.인 점에 비추어 1950. 9. 26. 대항재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신정욱(52세, 경찰)은『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1950. 9. 11.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또 다른 희생자 김연준의 경우, 희생사실과 관련된 문헌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참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김연준이 이동식과 함께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8) 전태식·전만식 형제 희생사건(마-2994, 1950. 9. 26.)

진실규명 대상자 전태식(全泰植, 52세)과 전만식(全萬植, 48세)은 진주형무소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26.(음력 8. 15.) 대항재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전만식과 전태식 형제는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에 살았다. 전만식은 이장이며, 대한청년단장이었다. 1949년 겨울, 다곡마을 출신의 빨치산 김○○가 동료 빨치산 1명과 식량을 얻으러 마을에 왔다가 마을주민들에 의해 잡혔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서하지서장이 김○○의 목을 잘라 가져갔다. 사건 한 달 후에 빨치산들은 그 보복으로 당시 마을이장이며 마을의 대한청년단장인 전만식의 집과 그 처가에 불을 질렀다.¹⁸³⁾

179) ‘하동군 대한 청년단 간부 명단’, ‘대한 청년단 및 한청기동대원 순직자 명단’에 올라 있다. 하동군지 편찬위원회, 『하동군지 하(下)』, 1359~1340쪽.

180) “진주형무소가 있던 진주시 명석면은 산청의 산간지역과 접경한 지역이다. 아직도 진주형무소의 공동묘지가 일부 남아 있다.” 김경현, 『민중과 전쟁의 기억』, 선인, 2007. 91쪽.

18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 6. 5.); 『참고인 신○○ 진술조서』(2008. 7. 15.)

182)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15.)

183) 진실화해위원회, 『2008 피해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 136쪽.

그 후, 1950년 인민군 점령기에 전만식과 그의 형 전태식이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인민군이 후퇴할 때 대항재에서 총살되었다. 대항재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한테 사망 소식을 듣고, 사망 다음날 전만식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다.¹⁸⁴⁾

제사는 음력 8. 14.이다. 제적등본에는 1950. 9. 2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전만식과 전태식이 1950. 8. 5.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부』에는 전만식과 전태식이 1950. 8. 15. 함양군 서하면 대항부락 대항치에서 순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명부 상의 희생일이 일치하지 않으나 시신을 수습하였고 제사일이 음력 8. 14. 인 것으로 보아 전만식·전태식 형제가 1950. 9. 26.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배동혁도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¹⁸⁵⁾ 배동혁은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 1950. 8. 17. 서하면 지곡리 후산 대항령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최만규 희생사건(마-8451, 1950. 9. 26.)

진실규명 대상자 최만규(崔萬圭, 33세)는 진양군 문산 치안대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26.(음력 8. 15.) 대항재에서 인민군에게 희생당하였다.

최만규는 진양군 미천면 안간리 이장이었고,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을 하였다. 미천면에서 최만규의 땅을 밟지 않으면 다니지 못한다는 말이 날 정도로 부농이었다.

진주에 인민군이 들어온 후, 최만규는 지방좌익의 밀고로 집에서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문산¹⁸⁶⁾으로 끌려갔다. 문산을 농협 창고에 감금되었다가 함양군 서하면에서 희생당했다.¹⁸⁷⁾ 당시 문산 치안대에는 미천면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최만규와 면장인 김○○ 그리고 미천면 오방리 이장인 김정대 등이다.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문산 치안대에 감금하고 있던 사람들을 전선줄로 엮어서 끌고 갔는데, 이 중 최만규만 총살당하였고, 김수근과 김정대(마-10166)는 총상을 입고 돌아왔다.¹⁸⁸⁾ 시신은 가족들과 머슴이 수습하였다.

184) 『신청인 전병순 진술조서』(2009. 7. 22.)

185) 『참고인 윤○○ 진술조서』(2009. 7. 23.): 『참고인 배○○ 진술조서』(2007. 11. 29.)

186) “진양군의 경우에는 당정기관이 진주시에 인접한 문산면소재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주로 군단위의 인공기관 및 단체가 설치되었는데, 특히 인민공화국의 핵심기관인 정치보위부는 문산 성당에 자리 잡았다. 진양군 인민위원회가 들어섰던 곳도 문산 성당이었으며, 그 옆 벽돌집에 군당 사무실이 있었고, 또 그 옆 기와집에 여맹과 민청이 입주해 있었다.” 김경현, 『민중과 전쟁의 기억』, 선인, 2007, 170쪽.

187) 『신청인 김두자 진술조서』(2008. 7. 1.)

188) 『참고인 장○○ 진술조서』(2009. 6. 10.)

제 3 권

제사는 음력 8. 14.이다. 제적등본에는 1950. 8. 14.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와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는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에서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사일과 생환한 김정대¹⁸⁹⁾가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에서 총상을 입고 생환하였다는 진술로 보아 최만규는 1950. 9. 26.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0) 황학구 희생사건(마-9244, 1950. 9월)

진실규명 대상자 황학구(黃學久, 19세)는 1950. 9월경 자택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혀 진주농대에 감금되었다가¹⁹⁰⁾ 대항재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학구는 진주시 칠암동에 살았고, 진주농업대학 1학년생으로 학도호국단장이었다. 황학구의 가족은 칠암동에서 가장 잘 살았고, 황학구의 아버지가 마루보시(대한통운) 초대 사장을 지냈다고 한다.¹⁹¹⁾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7월 말쯤 인민군이 진주에 들어왔다.¹⁹²⁾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황학구의 가족은 진주시 도동면으로 피신했다. 그 곳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황학구가 칠암동 집으로 식량을 가지러 왔다가 참고인 황○○의 오빠인 사촌 황○○과 함께 인민군에게 붙잡혔다. 황학구와 황○○이 인민군에 강제연행 되어 끌려가는 것을 참고인 황○○이 보았다.¹⁹³⁾ 이후 황○○은 도망쳐 돌아왔고, 황학구는 진주농대에 감금되었다가 행방 불명되었다.¹⁹⁴⁾ 황학구가 진주농대에 감금되어 있을 때, 가족들이 면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진주농대에는 칠암동, 도동, 망경동, 망경북동 등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임시로 수용되어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 희생되었다고 한다.¹⁹⁵⁾

황학구가 학도호국단장이었던 점, 황학구가 진주농대에 감금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진주 내무서, 형무소에 감금되었던 사람들이 인민군 후퇴기에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에서 집단 희생된 정황으로 보아 황학구도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추정하였다.

189) 『신청인 장명순 진술조서』(2008. 7. 1.)

190) 『신청인 황귀영 진술조서』(2008. 4. 28.)

191) 『신청인 황귀영 진술조서』(2008. 4. 28.);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 7. 6.), 황학구의 진주농업대학 졸업증명서 1부.

1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 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보고서 1』, 2001, 211~212쪽, 359~360쪽.

193)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 7. 6.)

194) 『신청인 황귀영 진술조서』(2008. 4. 28.).

195)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 6. 24.);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9. 7. 6.)

4) 인민군 퇴각 이후(1950. 10. 27.~1953. 4. 2.)

경상남도에서 인민군이 철수한 시기는 지역적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1950. 9. 15.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이 수복된 9월 28일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후퇴하던 인민군 6사단과 7사단 병력 중 상당수가 지리산과 덕유산 등지에 입산해 기존의 빨치산과 합류하였고, 1954년 빨치산 토벌이 거의 마무리 될 때까지 지리산 일대는 전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¹⁹⁶⁾

해당시기에는 지리산과 주변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던 빨치산과 지방좌익에 의한 개별적인 성격의 사건이 신청되었다. 신청사건 중 12건이 발생했으며, 진실규명 대상자 1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8명의 희생사실과 강제연행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신청사건 12건을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가) 고성군 하이면 박동교 희생사건(마-9015, 1951. 6. 9.)

진실규명 대상자 박동교(朴東敎, 33세)는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에서 1951. 6. 9.(음력 5. 5.) 빨치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

박동교는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이장이었다. 당시 하이면 월흥리에는 인근 삼천포와 룡산에 거점을 둔 빨치산들이 자주 내려와 식량을 강탈했다.¹⁹⁷⁾

인민군이 후퇴하고 나자 마을사람 박○○이 성명불상의 남로당 면당 위원장을 잡아서 지서에 넘긴 사건이 있었다. 이를 안 와룡산 빨치산 5~6명이 군복을 입고 마을로 내려와 이장인 박동교 및 우익활동을 하는 마을청년들을 찾았다. 빨치산은 두 패로 나뉘어 한 패는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던 박동교와 강○○을 붙잡았고, 또 다른 한 패는 박동교의 집에서 참고인 강○○를 붙잡았다. 빨치산들이 이들을 끌고 대동청년단장 박○○의 집으로 가던 길에 박○○을 잡아 구타하던 중 강○○이 도망쳤다. 빨치산이 온 것을 눈치 챈 박○○은 이미 도망쳤고, 결국 빨치산들은 박동교, 박○○, 강○○를 붙잡아 마을 한가운데 모아 놓고 이장인 박동교만 본보기로 총살하고, 박○○과 강○○는 놓아주었다. 박남교의 동생 박○○를 비롯한 박동교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였고, 제사는 박동교가 희생당한 날인 음력 5. 5.이다.¹⁹⁸⁾

196)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이 3년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마천을 포함한 지리산 일대의 산골주민들에게는 여순사건부터 1963년 최후의 빨치산 정순택이 붙잡힐 때까지 15년 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천애향회, 『마천 향토사』, 1994, 56쪽.

197) 사천시사 편찬위원회, 『사천시사(四川市史) 상(上)』, 2003, 788~789쪽; 이백산, 『남양의 역사와 문화이야기』, 남양향토사연구회, 1996, 90~93쪽.

제 3 권

제적등본에는 박동교가 1951. 6. 9. 오전 10시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34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나) 동래군 장안읍 신명동 희생사건(마-6545, 1951. 7월)

동래군 장안읍 지역은 1951년에 면장과 부면장, 지방유지 세 명이 피살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빨치산에 의한 사건이 많았다.¹⁹⁹⁾

진실규명 대상자 신명동(辛明同, 26세)은 1951. 7월²⁰⁰⁾ 동래군 장안읍 임랑리 부주골 마을 입구에서 빨치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가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에서 동조라고 불린 신명동은 마을 입구에서 정운조와 경비를 서고 있던 중 빨치산의 습격을 받고, 마을 뒷산으로 끌려갔다. 참고인 박○○은 신명동이 끌려간 후에 총소리가 두 발 정도 났다고 진술하였다.²⁰¹⁾ 신명동이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에 총소리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박○○의 진술과 당시 장안읍에서 발생한 빨치산에 의한 피살사건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신명동도 빨치산에게 끌려가 희생당하였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정운조도 신명동과 함께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산청군

(1) 단성면 길리 이술조 희생사건(마-8759, 1950. 11. 13.)

진실규명 대상자 이술조(李述祚, 27세)는 1950. 11. 13.(음력 10. 4.) 단성면 길리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이술조는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 이장이었다. 1950. 10월 말까지 단성면은 수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군 35연대가 공비토벌을 위해 단성면 금만국민학교에 본부를 두고, 동민 사람 전체를 심사하였다. 이술조와 이술조의 아들인 신청인 이국상은 우익으로 분류되었다. 1950. 11. 11. 빨치산의 기습으로 금만국민학교는 전소되었고 국군 35연대는 다음날 후퇴하였다. 국군이 후퇴하자 이술조도 길리로 피신하였다가 창촌리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빨치산에게 붙잡혀 다시 길리로 끌려갔다.²⁰²⁾

길리는 빨치산 근거지가 있는 덕산,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다. 1950.

198) 『신청인 박삼교 진술조서』(2007. 11. 21.);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9. 7. 23.);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7. 28.)

199) 장안읍지 편찬위원회, 『장안읍지』, 2008, 158쪽.

200) 신청인과 참고인이 사건 발생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 당시 동래군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였다.

201)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6. 24.)

202) 『신청인 이국상 진술조서』(2007. 8. 14.)

11. 13. 덕산에 주둔하고 있던 빨치산들이 길리로 내려와 인민재판을 한다며 마을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다. 이술조가 인민재판 도중에 뛰쳐나가려고 하자 총살하였다. 시신은 가마니로 덮어두었다가 2~3일 후에 이술조의 가족이 수습하여²⁰³⁾ 길리에 가묘를 썼다가 이듬해 3월에 이장하였다. 제적등본에는 1946. 2. 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호적이 불에 타 다시 취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남, 55세로 직업은 구장이고, 1950. 11. 13. 산청군 단성면 길리 뒷산에서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1950. 11. 13. 금서면 창촌리 사동에서 피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명부상의 희생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술조가 1950. 11. 13. 단성면 길리에서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금서면 특리 박계원·고해분 부부 희생사건(마-9379, 1951. 5. 22.)

진실규명 대상자 박계원(朴啓元, 45세)과 고해분(高海分, 43세) 부부는 1951. 5. 22.(음력 4. 17.) 마을로 ‘보급투쟁’을 나온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박계원과 고해분은 산청군 금서면 특리 덕촌마을에 살았다. 박계원은 한국 전쟁 전에 민보단²⁰⁴⁾ 간부로 활동하였다. 마을에서는 박덕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덕촌마을은 40호가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다. 후퇴하던 인민군이 지리산에 들어와 살면서 밤이면 내려와서 곡식을 털어가고 사람들을 잡아갔다. 마을청년들이 밤에는 숨어 지내고 낮에는 농사지었다.²⁰⁵⁾ 참고인 민○○는 당시 덕촌마을 특공대 소대장이었다. 저녁에 잠복을 나가려다, “동네에 빨갱이가 들어왔다”는 박계원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곧바로 출동하였다. 특공대가 박계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계원과 고해분이 집 뒤에서 희생당한 뒤였다.²⁰⁶⁾ 시신은 같은 마을에 살던 신청인의 고모부가 수습하였다. 제사는 음력 4. 16.이다. 제적등본에는 1951. 5. 12.에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박계원은 마을에서 불리던 박덕문(남, 49세)으로 이름이 올라 있고, ‘고해분(高海粉, 남, 45세)’은 남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박덕문과 고해분은 1951. 5. 22. 산청군 금서면 특리마을 뒷산에서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참고인 민○○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민희식이 인민재판을 받고 지방좌익에게

20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1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14.)

204) 민보단은 한국전쟁 전에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조직한 경비조직이다. 『참고인 민○○ 진술조서』(2009. 6. 18.)

205)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6. 18.)

206) 『참고인 민○○ 진술조서』(2009. 6. 18.); 『참고인 민○○ 진술조서』(2009. 6. 18.)

제 3 권

총살당하였다고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민희식은『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1950. 9. 27. 함양군 서상면에서 피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신안면 외고리 이상봉 희생사건(마-8828, 1953. 4. 2.)

진실규명 대상자 이상봉(李尙鳳, 44세)은 1953. 4. 2. (음력 2. 19.) 신안면 외고리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이상봉은 신안면 외고리에서 청년단 동원부장을 하였다. 집에서는 ‘이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같은 마을에 사는 박녹이(마-8826)가 1949. 10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빨치산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이장인 허○○이 마을에서 청년단 활동을 하고 있던 이상봉을 신등지서로 보내어 신고하였다. 이때 6명의 빨치산 중 3명을 사살하였고, 그 후 인민군 점령기에 신등 치안대에서 빨치산을 신고한 사람을 차례로 보복하였다.²⁰⁷⁾

이상봉은 이 일로 보복 당할 것을 걱정하여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도피생활을 하였다. 또한, 이상봉의 신고로 사살당한 빨치산의 동생이 이후 형의 원수를 갚는다며 빨치산이 되었고, 이상봉을 노리고 있었다.²⁰⁸⁾ 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 이상봉이 잠시 집에 들었는데, 집에 온 날, 이상봉을 노리고 있던 빨치산에게 희생당했다.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였고, 장례는 면사무소에서 주선하였다. 제적등본에는 1953. 3. 7.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사는 음력 2. 18.이다. 제적등본상의 희생일과 제사일 이 일치하지 않아 제사일을 기준으로 1953. 4. 2.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하동군

(1) 청암면 중이리 김영두 희생사건(마-10451, 1950년 가을)

진실규명 대상자 김영두(金榮頭, 22세)는 1950년 마을에 ‘보급투쟁’을 나왔던 빨치산에게 총상을 입고, 4개월 후에 희생당하였다.

김영두는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죽동마을에 살았다. 마을에서는 김영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50년 가을, 마을에 30여 명의 빨치산이 내려와 식량을 약탈한 후 김영두를 짐꾼으로 끌고가려고 하였다. 김영두가 저항해 빨치산과 격투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다음날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하고 진

207)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7. 1.)

20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3.)

주도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4개월 후에 사망하였다.²⁰⁹⁾

(2) 청암면 위태리 김대석 희생사건(마-7101, 1950년 말경)

진실규명 대상자 김대석(金大錫, 23세)은 1950년 말 경,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상촌마을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암면 위태리는 지리산 밑이어서 빨치산이 자주 마을로 내려왔다. 그래서 동네 젊은 이들이 밤에는 피신해 있었다. 김대석도 밤에는 피신하고 낮에는 한지공장에 다녔다. 1950년 말, 김대석은 한지공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잠깐 들렀다가 빨치산에게 끌려갔다. 같은 마을에서 문태구, 하상문, 정민화, 장을도 등이 김대석과 함께 끌려갔는데, 모두 행방불명이다.²¹⁰⁾ 참고인 김○○은 이들이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삼거리 곡점국민학교 뒤에서 총살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²¹¹⁾

김대석의 희생사실과 관련한 문헌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참고인 김○○의 진술을 근거로 김대석이 희생당하였다고 추정하였다.

(3) 악양면 등촌리 남강희 희생사건(마-8325, 1951. 3. 17.)

진실규명 대상자 남강희(南剛熙, 28세)는 1951. 3. 17.(음력 2. 10.)²¹²⁾ 청암면 일대를 순찰하고 돌아오던 중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남강희는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덕기마을에서 대한청년단 기동대 소대장으로 활동하였다. 마을에서는 남강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등촌리 덕기마을에서 산을 넘으면 청암면인데, 당시 청암면의 부락들은 소개된 상태였다. 빨치산이 청암으로 내려온다는 정보를 받고 경찰과 대한청년단 기동대원 70여 명이 출동하였다. 청암면 ‘때죽나무 거리’에서 빨치산의 기습으로 남강희와 임기봉이 희생당하였다.²¹³⁾ 시신은 다음날 남강희와 임기봉의 가족들이 수습하였다. 제사는 음력 2. 9.이다.

『유공자 관계 서류록』과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부』에는 남강희가 1949. 10. 2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악양면지』에는 “1951. 2월 청암 방면에는 예상되는 공비 침투로에 잠복근무가

209)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 7. 17.);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7. 17.)

21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9.)

21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29.)

212) 참고인 구○○은 음력 2월 10일이 집안 어른 제사여서 남강희의 희생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참고인 구○○ 진술조서』(2009. 7. 16.)

213) 『참고인 구○○ 진술조서』(2009. 7. 1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17.)

제 3 권

시작되었다. (중략) 일부 정찰조가 청암면 목계리 방면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삼거리 통과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공비의 기습으로 한청대원 남강희, 임기봉이 현장에서 전사하고”²¹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한청년단 및 한청기동대원 순직자 명단’²¹⁵⁾에도 남강희와 임기봉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제사일과 악양면지의 기재 사실, 참고인 구○○의 진술을 근거로 남강희가 1951. 3. 17. 희생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임기봉의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청암면 중이리 김용세 희생사건(마-9452, 1951. 11. 26.경)

진실규명 대상자 김용세(金容世, 36세)는 1951. 11. 26.(음력 10. 28.) 보급투쟁을 나왔던 빨치산의 짐꾼으로 끌려갔다가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세는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죽동부락에 살았다. 마을에서는 김용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51. 11월 말 경 김용세와 마을사람 여럿이 빨치산에게 끌려갔는데 김용세만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자수하여 김용세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짐꾼으로 끌려갔던 김용세가 도망하였으나 목계리 빈 집에서 잡혀 희생당했다고 하였다. 당시 청암면 목계리는 소개된 상태였다.²¹⁶⁾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제사는 김용세가 끌려간 날인 음력 10. 28.이다.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김용세가 1951. 11. 23.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에서 피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고인 김○○의 진술을 토대로 김용세가 1951. 11월경 빨치산에게 끌려갔다가 도망치다 붙잡혀 희생당하였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였던 참고인 김○○은 청암면에는 김용세 외에 청암면 대한청년단장인 양도봉이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고, 김만제와 김위태가 빨치산에게 짐꾼으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이라고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김만제는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 1951. 11. 8.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에서 피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위태, 양도봉, 김만제는 대한청년단 및 한청기동대원 순직자 명단²¹⁷⁾에 올라 있다.

214) 악양면지 편찬위원회, 『악양면지』, 2006, 284쪽.

215) 하동군지 편찬 위원회, 『하동군지 하(下)』, 1996, 1360쪽.

21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2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28.)

217) 위 『하동군지 하(下)』, 1996, 1360쪽.

(5) 옥중면 안계리 하춘섭 희생사건(마-8324, 1951. 12. 31.)

진실규명 대상자 하춘섭(河春涉, 21세)은 1951. 12. 31.(음력 12. 4.) 방위대 숙소에서 보초를 서던 중 빨치산에게 끌려간 후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춘섭은 하동군 옥중면 안계리에 살았다. 마을에서는 하도야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족보에는 하용주로 올라있다.

같은 마을의 참고인 정○○도 빨치산에게 끌려가 18일 정도 빨치산과 같이 생활했는데, 먼저 끌려온 하춘섭을 지리산에서 만났다. 그 후 참고인 정○○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하춘섭이 부인이 보고 싶어서 도망치다가 잡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²¹⁸⁾ 참고인 정○○도 자수한 빨치산으로부터 하춘섭이 도망가다 잡혀서 대창에 희생당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²¹⁹⁾

같은 마을에서 빨치산에게 끌려갔다가 생환한 참고인 정○○와 참고인 정○○의 진술로 보아 하춘섭이 지리산에서 도망치다 붙잡혀 희생당하였다고 추정하였다.

마) 함양군

(1) 서상면 금당리 강인석 희생사건(마-6808, 1950. 10. 27.)

진실규명 대상자 강인석(姜仁錫, 30세)은 1950. 10. 27.(음력 9. 17.) 서상국민학교에서 보초를 서던 중 빨치산에게 희생당하였다.

강인석은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에 살았다. 특공대원으로 마을 경비를 위해 보초를 서다가 빨치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서상면에 인민군이 물러가고 빨치산들이 남아 있어서 향토방위군을 조직하여 마을마다 경비를 위해 보초를 섰다. 17세 이상부터 30대까지로 구성되었고 처음에는 향방군으로 출발하여 특공대로 바뀌었다. 약 400여 명 정도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의용경찰로 활동하였다.²²⁰⁾

1950. 10. 27. 강인석은 서상국민학교 후문에서 참고인 김○○와 함께 보초를 서다가 빨치산이 쏜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²²¹⁾ 시신은 특공대원들과 강인석의 형이 수습하였다. 제사는 음력 9. 16.이다. 제적등본에는 “1950. 9. 17. 시불상 함양군 서상면 주소지에서 전

218)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5. 21.)

219)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7. 15.)

220) 『참고인 강○○ 진술조서』(2007. 8. 2.)

22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2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24.)

제 3 권

투로 인하여 순직, 함양경찰서 서상지서 주임 경위 김○○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강인석의 희생사실은 진실화해위원회 『2008 피해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²²²⁾에 기재되어 있다. 제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제적등본 희생일자는 음력 날짜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백전면 운산리 박윤석 희생사건(마-4629, 1951. 3. 26.경)

백전면 운산리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에 있는 마을로, 백운산²²³⁾과 장안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백운산에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과 빨치산이 많아, 밤이면 내려와서 식량과 물품을 약탈하였다.

진실규명 대상자 박윤석(朴允錫, 32세)은 1951. 3. 26.(음력 2. 19.) 경 집에 보관 중인 탄피가 발각되어 빨치산에게 강제연행 되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윤석은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이장이었다. 마을에서는 박경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박윤석이 끌려가기 사흘 전 쯤인 1951. 3. 23.경, 백전면 이장회의에서 마을 주변 전투 현장에 널린 탄피를 모아 지서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마을사람들이 모은 탄피를 박윤석이 보관하였는데, 이 탄피가 빨치산에게 발각되어 탄피를 짚어진 채, 장안산 방면으로 끌려갔다.²²⁴⁾ 참고인 장○○은 박윤석이 끌려가고 얼마 후에 총소리를 들었으나 장안산이 빨치산 근거지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시신을 찾으러 가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사는 박윤석이 끌려간 날인 음력 2. 19.이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김종식과 임송아지도 마을 보초를 서고 있다가 빨치산에게 장안산 방향으로 끌려갔다가 희생당했다. 특공대원이었던 참고인 장○○이 장안산 입구에서 김종식과 임송아지(임송치)의 유골을 찾아왔다.²²⁵⁾ 『유공자 관계 서류록』에 김종식이 1951. 12. 5.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고인 장○○의 진술과 당시 정황으로 보아 박윤석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22) 진실화해위원회, 『2008 피해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 134쪽.

223) “백운산은 전라 경상의 양도 경계를 이루는 천 미터 대의 산줄기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그 대부분이 함양군에 속해 있고 전북 장수군에 속하는 장안산과 U자형으로 쌍립하고 있다. 이 골짜기는 빨치산들에게는 별천지와 같은 안전지역이었다. 광양 백운산이 전남부대의 주근거지였던 것처럼 이 장수 백운산은 그 후 수시로 전북부대의 주근거지가 됐다.”이태, 『남부군』, 두레, 2003. 222쪽.

224) 참고인 허○○와 장○○은 빨치산이 백전지서를 습격하려고 내려왔다가 실패하자 분풀이로 이장인 박윤석을 끌고 갔다고 기억하고 있다. 『참고인 허○○ 진술조서』(2009. 7. 25.); 『참고인 장○○ 진술조서』(2009. 7. 25.)

225) 『참고인 장○○ 진술조서』(2009. 7. 25.), 위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군), 133쪽.

나. 강제연행사건

강제연행사건은 고성, 동래, 남해, 산청, 의창, 하동, 합천, 함양 등 8개 군에서 1950. 8월 부터 1951. 12월에 걸쳐 발생하였다. 신청사건 중 9건이 발생했으며, 진실규명 대상자 9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명의 희생사실과 강제연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강제연행사건 9건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가) 고성군 영오면 최점림 강제연행사건(마-10336, 1950. 8. 20.)

진실규명 대상자 최점림(崔占林, 20세)은 1950. 8. 20.(음력 7. 7.)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서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

최점림은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사람으로 농사를 지었다. 한국전쟁 당시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는 7월 말부터 인민군이 들어와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과 우익인사들을 인민재판하여 죽였고, 각 가정에서 한 명씩 젊은이들을 의용군으로 데려갔다.²²⁶⁾

인천상륙작전 이후, 인민군이 후퇴할 때는 마을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데려가서 강제로 짐을 지게 했다. 특히 인근 영오면 오동리에 있는 인민군 야전병원의 약품과 환자를 이송하는 일에 동원하였는데, 그 때 최점림도 동원되어 지리산 방향으로 약품을 운반했다. 당시 같이 동원되었던 참고인 이○○의 진술에 따르면, 이○○은 약품을, 최점림은 환자를 메고 지리산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²²⁷⁾

최점림의 강제연행 사실과 관련하여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에 1950. 8. 20.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06번지에서 납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남해군

(1) 북변리 남해읍 박채영 강제연행사건(마-5551, 1950. 9. 25.)

진실규명 대상자 박채영(朴采英, 21세)은 1950. 9. 25.(음력 8. 14.) 남해 후생병원에서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

박채영은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사람으로 남해 후생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박채영의 집안은 남해읍에서 가장 잘 사는 집안 중 하나였고, 박채영의 외사촌이 남해 후생병원 원장이었다.²²⁸⁾

226) 『신청인 최용환 진술조서』(2007. 11. 20.)

227)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29.); 『참고인 송○○ 진술조서』(2009. 6. 9.)

228)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9. 2.)

제 3 권

1950. 9. 25. 남해 후송병원에 침입한 인민군이 약품을 약탈한 후, 갈취한 트럭 3대에 박채영과 마을사람들을 싣고 지리산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이때, 박채영과 함께 강제연행된 임○○은 전북 임실에서 박채영에게 같이 탈출할 것을 제의 하였으나 박채영이 들이 움직이면 둘 다 위험하다고 하여 혼자 탈출하여 돌아왔다.²²⁹⁾

박채영의 강제연행 사실과 관련한 문헌자료는 없으나,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남해군 남해읍에서는 10명 이상이 인민군 후퇴 시기를 전후하여 납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²³⁰⁾ 것으로 보아 박채영이 1950. 9. 25.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삼동면 지족리 하영모 강제연행사건(마-7216, 1950. 9월)

진실규명 대상자 하영모(河永模, 29세)는 1950년 인민군이 남해군을 점령했을 당시 남해군 삼동면 지족조선소에서 일하던 중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

하영모는 남해군 삼동면 난음리²³¹⁾ 사람으로 목공기술자였다. 하영모의 집은 삼동면 난음리였으나 조선소가 있는 삼동면 지족리에서 일했다.²³²⁾

한국전쟁 당시 남해군 삼동면에 들어온 인민군은 지족리에 주둔하며 인근 마을주민들을 동원하였는데, 동원된 사람 중 몇몇은 금산 방향의 복골이라는 곳에서 총살당하기도 하였다.²³³⁾ 신청인 하동선의 진술에 따르면 하영모가 남해군 삼동면 지족조선소에서 일하던 중 인민군에게 강제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²³⁴⁾

하영모의 강제연행 사실과 관련한 문헌자료는 없으나,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한국 전쟁 당시 삼동면에서 납치된 사람이 62명 이상이며, 이 중에서 난음리에서 4명, 지족리에서 8명가량이 1950. 9. 12.~19. 납치된 것으로²³⁵⁾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하영모가 1950. 9월 강제연행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산청군 생비량면 공영진 강제연행사건(마-9883, 1950. 9월)

진실규명 대상자 공영진(41세)은 1950년 9월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자택에서 인민군에게 강제연행되었다.

229) 『신청인 박상홍 진술조서』(2009. 6. 2.);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9. 2.)

230)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1952, 남해군 및 경상남도 추가기재 참조.

231) 현재는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이다.

232) 『신청인 하동선 진술조서』(2008. 5. 22.);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10.)

23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10.)

234) 『신청인 하동선 진술조서』(2008. 5. 22.)

235)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1952, 남해군 및 경상남도 추가기재 참조.

1950. 9월 산청군을 점령했던 인민군이 후퇴할 무렵, 치안대 사람들이 짐꾼을 강제로 조직하였다. 이때 공영진과 참고인 이○○, 김○○ 등이 인민군에게 끌려갔다. 인민군은 지리산으로 가는 도중 거쳐 가는 마을마다 몇 명씩 차출하여 식량과 탄환을 나르게 하였다.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교전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도망쳐 돌아 왔으나 공영진은 돌아오지 않았다.²³⁶⁾

라) 의창군 진북면 오성환 강제연행사건(마-1964, 1950. 여름)

진실규명 대상자 오성환(吳成煥, 28세)은 1950년 여름, 진북면 추곡리 내추마을에서 후퇴 중이던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

1950년 여름에 인민군들이 마을에 들어와 며칠 머물며 젊은 사람들만 보면 산 너머까지 짐을 지고 가게 했다. 오성환도 당시 마을사람들과 인민군의 짐을 지고 산으로 갔는데, 같이 간 마을사람이 3~4명은 돌아왔으나 오성환만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 이후 마을 주민들은 거제로 피난을 갔다.²³⁷⁾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오성환이 6.25전쟁 중 경상남도 창원군 진북면 협곡리에서 피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합천군 합천읍 이동수 강제연행사건(마-5670, 1950. 9월)

진실규명 대상자 이동수(李東秀, 27세)는 1950년 9월 인민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

이동수는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에 살았고, 국민학교 교사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와 있어서 비행기 폭격이 있었다. 인민군을 피해 산 밑에 보따리를 싸 들고 피난 가 있었는데, 추석 전에 잠깐 집에 들렀다가 의용군으로 잡혀갔다.²³⁸⁾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이동수가 6.25전쟁 중 합천군 합천면 외각리에서 피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산청군 오부면 안학영 강제연행사건(마-9242, 1950. 10. 26.)

진실규명 대상자 안학영(安學榮, 23세)은 1950. 10. 26.(음력 9. 16.)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

안학영이 살던 오부면은 소룡산과 황매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국전쟁 전부터 빨치산

236)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1.)

237)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 7. 13.);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 7. 13.)

23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8. 12.)

제 3 권

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한국전쟁 후에는 빨치산들이 중촌리 중기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청년들이 밤에는 숨어 있고 낮에 나와 농사를 짓곤 하였다. 안학영도 친구 집에 피난 가 있었다.²³⁹⁾ 1950. 10. 26. 할머니 제사를 모시러 왔다가 형 안○○과 함께 지방 좌익에게 붙잡혔다.²⁴⁰⁾

당시, 오부면장 오○○의 부인 정야모도 집에 옷과 식량을 가지러 왔다가 지방좌익에게 붙잡혀, 안학영, 안○○과 함께 마을 개울가에서 인민재판을 받았다. 정야모는 현장에서 총살당하였고, 안학영과 안○○은 중기마을로 끌려갔다.²⁴¹⁾ 그 후 안○○은 지리산에서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안학영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정야모는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남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1950. 11. 5.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함양군 서하면 최순도 강제연행사건(마-9972, 1951. 5. 19.)

진실규명 대상자 최순도(崔淳燾 23세)는 1951. 5. 19.(음력 4. 14.)경 빨치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

최순도는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사람으로 당시 서상면 대남리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하였다. 1951. 5. 19.경, 서상면 대남리 대로마을은 빨치산이 침입하여, 집 20채가 불타고 12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²⁴²⁾ 같은 날, 마을의 청년들이 여러 명 빨치산에게 끌려갔는데, 최순도도 집으로 들이닥친 빨치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²⁴³⁾

최순도의 강제연행 사실은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군)』에 기재되어 있다.

아) 하동군 북천면 김상곤 강제연행사건(마-7305, 1951. 12월)

진실규명 대상자 김상곤(金相坤, 21세)은 1951. 12월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자택에서 빨치산에게 강제연행 되었다.

1951년 겨울 김상곤과 김상곤의 두 형이 빨치산에 의해 짐꾼으로 강제 동원되어 지리산까지 짐을 날랐다. 지리산에서 교전 중에 두 형은 도망쳐서 돌아왔으나, 김상곤은 돌아

239) 참고인 안○○은 안학영이 전쟁 전에 군에 입대하였다고 하였으나 안학영의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240)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 6. 8.)

241)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 6. 19.),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 6. 19.)

242)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경남 함양군), 135쪽.

243)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 7. 23.), 『참고인 박○○ 진술조서』(2009. 7. 23.)

오지 않았다.²⁴⁴⁾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김상곤이 1951. 12. 3.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에서 피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상해사건

상해사건은 사천, 함안, 함양 등 3개 군에서 모두 4건이 발생하였다. 진실규명 대상자 4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3명의 상해사실과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상해사건 4건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가) 함안군 군북면 조경래 상해사건(마-7433, 1949. 8. 7.)

진실규명 대상자 조경래(趙敬來, 32세)는 1949. 8. 7.(음력 7. 13.)²⁴⁵⁾ 군북면 동촌리 마을회의 중 빨치산들에게 총상을 당하였다.

사건 당일 저녁 7~8시경, 조경래와 마을사람들이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중 빨치산들이 일본도를 갖고 들어와 일을 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을 구분해 두 줄로 세웠다. 그리고 마을회관 운영위원장인 홍상도를 칼로 찔러 팔을 다치게 한 후,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가족들이 마을 근처에서 희생자가 옷을 벗어 총상부위인 허리와 무릎을 묶고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상을 구해와 희생자를 옮겼다.²⁴⁶⁾ 조경래는 무릎에 총알이 박혀 후유증을 겪었고, 1985. 4. 6. 노환으로 사망하였다.²⁴⁷⁾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경래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홍태만과 조순재가 빨치산의 총에 맞아 희생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홍상도도 이 때의 상처로 이후 사망하였고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에 희생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나) 함양군 서하면 김정대 상해사건(마-10116, 1950. 9월)

진실규명 대상자 김정대(金政大, 25세)는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이장이었다. 진주에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문산 치안대로 잡혀갔다가 인민군 후퇴기에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로 끌려갔다. 이때, 진주에서 끌려온 사람이 김정대를 비롯하여 김○○, 임○○, 정○○, 그리고 최만규(마-8451)가 있었는데, 최만규는 대항재에서 희생당하였고, 김정대와 김○○, 임○○은 총상을 입고 생환하였다. 전쟁 직후, 김정대는 진주 도립병원에서 팔을 절단하

24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7. 15.)

245) 사건발생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건의 목격자인 참고인의 진술에 따라 판단하였다.

246)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6. 9.)

247)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6. 9.)

제 3 권

는 수술을 받았다.²⁴⁸⁾

다) 사천군 남양면 박문수 상해사건(마-110, 1950. 8월경)

진실규명 대상자 박문수(朴文守, 18세)는 1950년 8월경(음력 7월) 인민군의 강제 부역에 동원되어 사천군 남양면 와룡산 근처에서 호를 파던 중 인민군에게 구타당하여 다리를 다쳐 이후 왼쪽 발을 절단하였다.²⁴⁹⁾

박문수는 사천군 용현면 선진리에서 농사짓는 사람으로 1950. 8월 초(음력 6월 말) 용현면 선진리에 들어온 인민군이 각 가정마다 1명씩 부역 동원자를 징발할 때 끌려가 강제 부역하였다. 당시 인민군은 삼천포로 연합군이 상륙한다는 계획을 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삼천포 쪽에 방공호를 팠다. 박문수는 방공호를 파던 중 인민군에게 다리를 구타당하여 마을사람의 부축을 받고 하산하였다. 이후 세 번 수술했으나 경과가 좋지 못해 왼쪽 발을 절단하였다.²⁵⁰⁾

라) 함양군 안의면 이엽분 상해사건(마-7533, 1950. 10. 5.)

진실규명 대상자 이엽분(李業分, 46세)은 1950. 10. 5.(음력 8. 24.) 경 안의지서를 습격한 빨치산에게 총상을 입었다.

이엽분은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에 사는 가정주부였다. 1950. 10. 5.경 새벽부터 안의면에 총소리가 요란하였다. 총소리에 놀란 이엽분이 방에서 일어나다가 어깨에 총을 맞았고,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²⁵¹⁾ 이엽분의 부상에 대해서는 함양군 안의면 이운택 희생사건(마-9573)의 참고인 박○○과 강○○도 기억하였다.

4. 진실규명 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피해 사실 여부

진실규명 대상자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피해사실 여부는 문헌자료와 진술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다음과 같은 조사과정을 거쳐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첫째, 사건의 실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자료와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희생자의 신원은 제적등본과 한국전쟁 관련 희생자 명부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한국

248) 『참고인 장○○ 진술조서』(2009. 6. 10.)

249) 『신청인 박문수 진술조서』(2007. 10. 1), 지체장애 1급 증명 1부.

250)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7. 7.), 『김○○의 진술서』(신청인 제출), 『장○○의 진술서』(2006. 11. 6. (신청인 제출).

251) 『참고인 하○ 진술조서』(2009. 7. 22.)

전쟁 관련 희생자 명부는 희생자의 당시 활동경력 등을 파악하고 희생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명부에 기록된 희생시기와 장소 등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행 현장을 목격했거나 시신을 발견, 수습한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건경위를 파악하였다.

사건발생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 연행된 시기, 시신이 발견, 수습된 시기와 제사일 등을 토대로 이를 추정하였다.

둘째, 한국전쟁 발발 전에 발생한 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이 한국전쟁 관련 희생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시신을 수습한 참고인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였다.

셋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행방불명 사건과 강제연행사건의 대부분은 정확한 사건발생 장소, 시기와 진실규명 대상자의 이후 행적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 참고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판단하여 강제연행 된 사실만을 확인하였다.

희생사건의 경우, 희생자의 신원, 희생시기와 장소 및 희생이유 등 사건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며, 시신을 목격했거나 시신 수습 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시신 수습이 확인된 경우 희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시신수습을 하지 못했지만 생존자의 목격 증언이나, 시신목격 증언이 있는 경우 역시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희생시기와 장소 등 사건경위가 대체로 밝혀졌으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 '추정'으로 판단하였다.

강제연행사건과 상해사건은 희생자의 신원, 강제연행 시기와 장소 및 강제연행 이유 등 사건경위가 밝혀졌으면, 문헌자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확인'으로 판단하였다.

위의 희생사건과 강제연행 및 상해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의 진실규명 확인과 추정을 <표 11>에 정리하였다.

한편, 경남지역 실지조사 시, 신청사건의 피해자 외에 사건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사 시 확보된 희생자의 인적사항을 제적부, 지역사 자료 및 한국전쟁 관련명부에서 확인하여 다음 <표 12>에 정리하였다.

〈표 11〉 진실규명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사실 확인사항

연 번	사 건 번 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 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피납 처자 명부	순국반 공청년 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1	마-9178	표정준 (表正俊 남, 74세)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359	거창 향교 교사	1949.7.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	×	×	1949.7.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359	×	음력 6.9.	○	표○○ (목격) 표○○ (목격)	희생 확인
		표영수 (表瑛洙 남, 29세)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359	-	1949.7.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	×	×	1949.7.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359	×	음력 6.9.	○		
2	마-3589	김형락 (金炯洛 남, 26세)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274	남상면 사무소 근무	1949.8.9. 거창군 감악산 연수사	×	×	×	1952.8.20.	×	음력 7.5.	○	김○○ (전문) 오○○ (전문) 정○○ (전문)	희생 확인
3	마-10302 마-9369	김수광 (金守光 남, 34세)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 583	대한 청년 단장	1949.8.6.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	×	×	×	1949.8.5. 기장면 청강리 583	×	음력 7.10.	○	이○○ (전문) 김○○ (전문)	희생 확인
		이수용 (李首龍 남, 50세)	동래군 청강리 무곡 부락 526	이장	1949.8.6.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	×	×	×	1949.8.5. 기장면 청강리 526	×	음력 7.10.	○	김○○ (시신 목격) 김○○ (시신 매장)	
4	마-2940	조오현 (趙五顯 남, 28세)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351	상동면 사무소 근무	1948.3.25 밀양군 상동면 신곡리	×	×	×	1967.3.8.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351	×	음력 2.15.	×	조○○ (전문) 윤○○ (목격)	희생 추정
5	마-10235	손제민 (孫濟旻 남, 35세)	밀양군 단장면 미촌리 723	한천공장 근무	1949.7.13 밀양군 단장면 미촌리	×	×	×	1959.8.22.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723	×	음력 6.17.	○	박○○ (전문) 이○○ (전문) 반○○ (전문) 이○○ (전문)	희생 확인
6	마-8320	권태국 (權泰國 남, 50세)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283	대한 청년단 산청군 단부지 도위원	1949.8.10.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	×	×	1949.7.15. 산청군 단성면 수산리 어천부락	×	음력 7.15.	○	이○○ (목격) 권○○ (전문)	희생 확인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 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파남 차자 명부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7	마-9572	김일성 (金一成 남, 42세)	양산군 동면 석산리 843	농업	1949.6.5. 양산군 동면 석산리	×	×	×	×	×	음력 5.8.	○	김○○ (전문) 김○○ (목격)	희생 확인
8	마-4246	김기오 (金基五 남, 39세)	울주군 농소면 가대리 40-3	사방 관리소 직원	1949.10.6. 울주군 범서면 서사리	×	×	×	1949.10.14. 울산군 범서면 서사리 번지불명	×	음력 8.22.	○	김○○ (전문) 김○○ (시신 수습) 김○○ (시신 수습)	희생 확인
9	마-3465	전명권 (田命權 남, 33세)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747	민보단 단장	1949.3.6.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	×	×	1949.4.2.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747	×	음력 2.6.	○	전○○ (시신 목격) 전○○ (전문)	희생 확인
10	마-7992	김기련 (金基鍊 남, 24세)	창원군 북면 대산리 268	북면 사무소 산업계장	1949.12.13. 창원군 북면 화천리	×	×	×	×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유공 자관 계서 류록	음력 10.23.	○	안○○ (시신 목격) 김○○ (시신 목격) 황○○ (전문) 김○○ (전문)	희생 확인
11	마-6006	이용규 (李容奎 남, 24세)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265	대한 청년단 훈련 부장	1949.10.11.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	×	○	1949.12.29.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265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	○	김○○ (목격) 이○○ (전문)	희생 확인
12	마-7380	이재근 (李在根 남, 22세)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604	학생	1949.4.26.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	×	×	1949.4.26.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604	×	음력 4.26.	○	이○○ (시신 수습) 조○○ (전문)	희생 확인
13	마-810	이진호 (李珍浩 남, 43세)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25	산인면 부면장	1949.10.4.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	×	×	1949.10.4. 모곡리 자택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음력 8.10.	○	이○○ (시신 수습) 이○○ (전문) 이○○ (시신 목격)	희생 확인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 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파남 차자 명부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14	마-655-1	안기수 (安基洙 남, 33세)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1366	이장	1949. 10. 4.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	×	×	1949. 10. 4. 오곡리 자택	×	음력 8.12.	○	배○○ (시신 수습) 안○○ (시신 수습) 김○○ (목격)	희생 확인
15	마-829-8	서오목 (徐梧默 여, 49세)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682	주부	1949. 4월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	×	×	미기재	×	음력 4.20.	×	서○○ (목격) 노○○ (전문)	희생 추정
16	마-681-3	김영동 (金榮東 남, 48세)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476	이장	1949. 7. 4.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	×	×	×	×	음력 6.8.	○	김○○ (목격) 김○○ (목격)	희생 확인
17	마-103-31	이정수 (李正洙 남, 23세)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012	농업	1950. 7. 17.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	×	×	1962. 3. 18.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18	×	음력 6.3.	○	이○○ (목격) 김○○ (시신 목격) 김○○ (시신 목격)	희생 확인
18	마-998-3	임태용 (林泰龍 남, 25세)	사천군 정동면 대곡리 453	-	1950. 7. 30. 사천군 곤명면 완사리	×	×	×	1950. 7. 30. 사천군 곤명면 완사리	×	음력 6.29.	×	임○○ (전문) 임○○ (시신 목격)	희생 확인
19	마-985-7	조두실 (趙斗實 남, 63세)	사천군 실안동 872	농업	1950. 8. 20.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앞 바다	○	×	×	1950. 8. 23. 사천시 삼천포읍 실안동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음력 7.8.	○		희생 확인
	마-985-6	박봉기 (朴鳳基 남, 43세)	사천군 실안동 872	한의사	1950. 8. 26.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앞 바다	○	×	×	1950. 8. 18. 삼천포시 실안동 438	유공 자관 계서 류록,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음력 7.13.	○	조○○ (전문) 박○○ (목격) 조○○ (목격) 조○○ (전문)	희생 확인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파남 차자 명부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마-9858	김보배 (金保排 여, 53세)	사천군 실안동 872	주부	1950. 8.26.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앞 바다	×	×	×	×	유공 자관 계서 류록	음력 7.13.	○	희생 확인		
	조종채 (趙種彩 남, 18세)	사천군 실안동 872	학생 (삼천포 중학교)	1950. 8.26.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앞 해상	×	×	×	생존	×	×	×		강제 연행 확인 (252)	
	조종출 (趙種出 남, 16세)	사천군 실안동 872	학생 (남양 중학교)	1950. 8.26.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앞 해상	○	×	○	×	유공 자관 계서 류록	음력 7.13.	×			희생 확인
마-9855	이내윤 (李來允 남, 22세)	사천군 신벽동 369	남양 도기 회사원	1950. 8.26.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	×	×	1950.9.5. 삼천포시 죽림동	×	음력 9.9.	×	이○○ (전문) 김○○ (전문) 김○○ (전문)	희생 확인	
마-7671	오차홍 (吳且洪 남, 26세)	양산군 동면 가산리 1065	농업	1950.8월 양산군 동면 가산리	×	×	×	×	×	음력 7월 중순	○	박○○ (전문) 오○○ (시신 목적) 김○○ (전문) 이○○ (당시 사건 담당 공무원)	희생 확인	
마-6089 / 마-8477	이기생 (李己生 남, 42세)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920	대한청 년단장	1950.7.5.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	×	×	1950.7.5.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920	×	음력 5.20.	○	이○○ (목적) 윤○○ (전문) 손○○ (시신 목적)	희생 확인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 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파남 차자 명부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23	마-6664	김기호 (金沂鎬 남, 57세)	의령군 화정면 상2리	화정 면장	1950. 8.15. 진양군 대곡면 설매리	○	○	×	1950.8.13. 진양군 대곡면 설매리	×	음력 7.1.	○	김○○ (연행 목격) 김○○ (연행 목격)	희생 확인
		김성호 (金成鎬 남, 39세)	의령군 화정면 상2리	의령 군청 건설과/ 농촌 지도자	1950. 8.15. 진양군 대곡면 설매리	○	○	×	1950.8.13. 진양군 대곡면 설매리	×	음력 7.1.	○	김○○ (전문) 김○○ (전문)	희생 확인
24	마-9581	김순기 (金舜基 남, 45세)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56	국민회 하동군 양보면 지부장	1950. 8.26. 하동군 양보면	○	×	○	1950.9.1. 양보지서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음력 7.19.	○	김○○ (시신 목격·수습) 정○○ (전문) 황○○ (전문)	희생 확인
25	마-10452	엄갑수 (嚴甲守 남, 38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50	대한청년단원	1950. 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	○	1950.8.30. 금성면 갈사리	유공 자관 계서 류록	음력 7.15.	○	신○○ (목격) 고○○ (감금 목격) 배○○ (목격)	희생 확인
	마-10454	엄금암 (嚴金巖 남, 38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47	대한청년단원	1950. 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	×	1950.8.13.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49	×	음력 7.15.	○		
	마-10455	엄재수 (嚴在守 남, 35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청년단원	1950. 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	○	미기재	유공 자관 계서 류록	음력 7.15.	○		
	마-10456	엄재홍 (嚴在洪 남, 33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청년단원	1950. 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	×	미기재	×	음력 7.15.	○		
26	마-9587	이윤택 (李允宅 남, 47세)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안의국 민학교 교장	1950. 7.27.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	×	×	1950.7.28.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	음력 6.13.	○	이○○ (시신 목격) 박○○ (전문) 강○○ (전문)	희생 확인

제1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 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파남 차자 명부	순국반 공청년 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27	마-2603	박덕성 (朴德成 남, 39세)	함양군 함양읍	대한청년단원	1950.7.27. 함양군 서상면	×	×	×	1952.1.27. 함양군 함양읍 상동 62-1	×	7월중	○	박○○ (전문) 한○○ (전문)	희생 확인
28	마-5718	김종환 (金鍾煥 남, 22세)	함양군 함양읍		1950.8.6. 함양군 마천면	×	×	×	1950.6.20. 함양군 마천면 창월리 89	×	×	○	서○○ (연행 목격) 김○○ (연행 목격)	희생 확인
29	마-3983	허문석 (許文錫 남, 39세)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718	이장/ 지곡면 분단장	1950.8.7.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	×	○	1950.8.10.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718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음력 6.24.	○	정○○ (연행 목격) 오○○ (당시 사건 담당 조사관)	희생 확인
30	마-982	정무생 (鄭武生 남, 43세)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605	지곡면 국민 회의 분회장	1950.9.18.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	×	○	1954.10.3.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605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음력 8.6.	○	임○○ (목격) 노○○ (전문)	희생 확인
31	마-5559	이성주 (李性柱 남, 47세)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518	농업	1950.7.31.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	×	×	1952.10.1.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518	×	음력 6.17.	○	최○○ (전문) 이○○ (전문)	희생 확인
32	마-9380	도태호 (都泰昊 남, 69세)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462	농업	1950.9.25. 산청군 신안면 십거마을	×	×	×	1952.2.20.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462	×	음력 8.15.	○	최○○ (전문) 이○○ (목격)	희생 확인
33	마-6206	박성준 (朴性俊 남, 46세)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346-1	농업	1950.9.26.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	×	×	1951.1.1. 진양군 명석면 왕지리	×	음력 8.14.	○	구○○ (전문) 구○○ (시신 수습) 김○○ (목격)	희생 확인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 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파남 차자 명부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사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34	마-651-1	강갑이 (姜甲伊 남, 44세)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이장	1950.9월 함양군	×	○	×	1950.9.16.	×	음력 8.14.	×	송○○ (목격) 조○○ (연행 목격) 강○○ (연행 목격)	희생 추정
35	마-747-5	김광호 (金光鎬 남, 34세)	진주시 유곡동 505	나동면 사무소 근무	1950.9월 진주 형무소	○	○	×	×	×	×	×	윤○○ (연행 목격) 김○○ (연행 목격)	희생 확인
36	마-98-0	김윤찬 (金允贊 남, 21세)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555	경남 도청 지적과 근무	1950.9.25.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	×	×	×	×	×	×	김○○ (전문)	희생 추정
37	마-997-3	나승운 (羅勝雲 남, 38세)	경남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1047	대한청 년단장	1950.9.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	×	○	1953.8.9.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764	×	음력 8.15.	×	나○○ (연행 목격) 박○○ (전문)	희생 확인
38	마-882-6	박녹이 (朴綠伊 남, 35세)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1062	농업	1950.9.25. 산청군 산청읍	○	×	×	1950.8.20.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1062	×	음력 8.15.	○	양○○ (연행 목격) 조○○ (전문) 김○○ (전문)	희생 확인
39	마-611-8	박주원 (朴周元 남, 39세)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67	남해군청 내무 과장	1950.9.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	×	×	1950.9.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청촌	한국 전쟁 민간 인희생자 명부	음력 8.14.	○	정○○ (전문) 김○○ (전문) 류○○ (연행 목격)	희생 확인
40	마-357-7	이동식 (李東植 남, 31세)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16	대한청 년단원	1950.9.26. 진주 형무소	○	×	×	1958.7.23.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16	한국 전쟁 민간 인희생자 명부	음력 8.14.	×	김○○ (전문) 신○○ (전문)	희생 확인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 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파남 차자 명부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41	마-299-4	전태식 (全泰植 남, 52세)	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510	농업	1950. 9.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	×	○	1951.10.10. 서하면 봉전리 853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음력 8.14.	○	윤○○ (목격)	희생 확인
		전만식 (全萬植 남, 48세)	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509	대한청년단장	1950. 9.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	×	○	1954.2.22. 서하면 다곡리 509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음력 8.14.	○		
42	마-845-1	최만규 (崔萬圭 남, 33세)	진양군 미천면 안간리 1277	이장/ 대한 청년단 감찰부장	1950. 9.26. 함양군 서하면	○	×	○	1950.8.14. 진양군 미천면 안간리 1277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음력 8.14.	○	장○○ (시신 목격)	희생 확인
43	마-924-4	황학구 (黃學九 남, 19세)	진주시 칠암동 189	학도호 국단장	1950.8월 진주시 칠암동 진주농고	×	×	×	×	1950. 5.2. 진주 농업 대학 졸업 증명	×	×	황○○ (전문) 황○○ (전문) 황○○ (연행 목격)	희생 추정
44	마-901-5	박동교 (朴東敎 남, 32세)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이장	1951.6.9.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	×	×	1951.6.9.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349	×	음력 5.5.	○	박○○ (목격) 강○○ (목격) 박○○ (시신 목격)	희생 확인
45	마-654-5	신명동 (辛明同 남, 26세)	동래군 장안읍 임랑리 98	농업	1951.6월 동래군 장안읍 임랑리	×	×	×	1963.9.9.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55-1	×	음력 9.9.	×	신○○ (전문) 박○○ (전문)	희생 추정
46	마-875-9	이술조 (李述祚 남, 54세)	산청군 단성면 창천리	서당 훈장/ 이장	1950. 11.13. 산청군 단성면 길리	○	×	×	×	×	×	○	이○○ (목격) 이○○ (목격)	희생 확인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파남 차자 명부	순국반 공청년 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시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47	마-9379	박계원 (朴啓元 남, 45세)	산청군 금서면 특리 776	농업	1951. 5.12. 산청군 금서면 특리	○	×	×	×	×	×	○	민○○ (목격) 박○○ (시신 목격) 민○○ (전문)	희생 확인
		고해분 (高海分 여, 43세)	산청군 금서면 특리 776	가정 주부	1951. 5.12. 산청군 금서면 특리	○	×	×	×	×	×	○		
48	마-8828	이상봉 (李尙鳳 남, 44세)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대한 청년단 청년동원부장	1953.3.7.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	×	×	1953.3.7.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836	×	음력 2.18.	○	양○○ (전문) 조○○ (전문) 김○○ (전문)	희생 확인
49	마-10451	김영두 (金榮頭 남, 19세)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267	학생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	×	×	1955.12.4.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267	×	초가을	○	안○○ (시신 목격) 정○○ (시신목격)	희생 확인
50	마-7101	김대석 (金大錫 남, 23세)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715	농업	1950. 12월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	×	×	×	×	×	×	이○○ (전문) 김○○ (연행 목격) 김○○ (연행 목격)	희생 추정
51	마-8325	남강희 (南剛熙 남, 28세)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107	대한 청년단 기동대 소대장	1951. 3.17. 하동군 청암면	×	×	○	×	한국 전쟁 민간 인회 생자 명부, 악양 면지	음력 2.9.	○	구○○ (전문) 김○○ (전문)	희생 확인
52	마-9452	김용세 (金容世 남, 36세)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농업	1951. 10.28.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	○	×	1969.2.5.	×	음력 10.28.	×	김○○ (생환자) 김○○ (전문)	희생 확인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 건 번 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 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피남 차자 명부	순국반 공청년 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사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53	마-8324	하춘섭 (河春涉 남, 21세)	경남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722-1	농업	1952.1월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	×	×	1959.1.10.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722-1	×	×	×	정○○ (연행 목적) 정○○ (전문) 정○○ (전문)	희생 추정
55	마-6808	강인석 (姜仁錫 남, 30세)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756	농업	1950. 10.27. 함양군 서상면	×	×	×	1950.9.17. 함양군 서상면소재지	×		○	이○○ (전문) 김○○ (목적)	희생 확인
55	마-4629	박윤석 (朴允錫 남, 32세)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928	이장	1951.12월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	×	×	1953.8.9.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928	×	음력 2.19.	×	허○○ (전문) 장○○ (연행 목적)	희생 추정
56	마-10336	최점림 (崔占林 남, 29세)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06	농업	1950. 8.20.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	○	×	×	×	×	×	최○○ (전문) 송○○ (전문) 이○○ (연행 목적)	강제 연행 확인
57	마-5551	박채영 (朴采英 남, 21세)	남해군 남해면 북변동 158	남해 후생 병원 근무	1950. 9.25. 남해군 남해면 북변동	×	×	×	×	×	×	×	박○○ (전문) 박○○ (전문)	강제 연행 확인
58	마-7216	하영모 (河永模 남, 29세)	남해군 삼동면 난음리 569	조선 목공 기술자	1950.9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	×	×	1968.5.25. 남해군 삼동면 난음리	×	음력 9.9.	×	하○○ (전문) 이○○○ (전문)	강제 연행 확인
59	마-9883	공영진 (남, 20세)	산청군 생비랑 면 제보리 280	농업	1950.9월 산청군 생비랑면 가계리	×	×	×	×	×	×	×	김○○ (목적) 이○○ (목적)	강제 연행 확인
60	마-1964	오성환 (吳成煥 남, 28세)	의창군 진북면 추곡리 94	농업	1950. 8~9월 의창군 진북면 추곡리	×	○	×	1988.7.7. 의창군 진북면 추곡리 94	×	음력 9.9.	×	오○○ (전문) 오○○ (전문) 오○○ (전문)	강제 연행 확인

제 3 권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 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파남 차자 명부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	제적등본 (사망 일자 및 장소)	기타 자료	제사	사신 수습 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61	마-5670	이동수 (李東秀 남, 27세)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465	교사	1950.9월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	○	×	×	×	음력 9. 9.	×	이○○ (전문) 김○○ (전문)	강제 연행 확인
62	마-9242	안학영 (安學榮 남, 23세)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616	농업	1950. 10. 26.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	×	×	×	×	×	×	안○○ (목격)	강제 연행 확인
63	마-9972	최순도 (崔淳燾 남, 22세)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1615	농업	1951. 5. 19.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	×	×	1962.6.25.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1615	×	×	×	한○○ (전문) 박○○ (전문)	강제 연행 확인
64	마-7305	김상곤 (金相坤 남, 24세)	하동군 북천면 서항리	농업	1951.12월 하동군 북천면 서항리	×	○	×	×	×	음력 9.9.	×	김○○ (연행 목격)	강제 연행 확인
65	마-7433	조경래 (趙敬來 남, 33세)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75	농업	1949. 10. 4.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	×	×	1985.4.20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75	×	음력 4.6.	1985년 사망	조○○ (전문) 조○○ (목격)	상해 확인
66	마-10166	김정대 (남, 25세)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865	이장/청년단	1950.7월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	×	×	×	×	음력 8.1.	1996년 사망	장○○ (목격)	상해 확인
67	마-110	박문수 (朴文守 남, 18세)	사천군 용현면 선진리 25	농업	1950.8월 사천군 남양면 외룡산	×	×	×	생존	장애 인증 명서 -장애 1급	×	×	박○○ (본인) 이○○ (전문)	상해 확인
68	마-7533	이엽분 (李業分 여, 46세)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282	가정주부	1950. 10. 5.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	×	×	1977.6.12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282	×	×	1975. 5월 사망	하○○ (전문)	상해 확인

252) 각주 3) 참조.

〈표 12〉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인적사상 및 피해사실 확인사항

연번	사건 지역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피납 처자 명부	유공자 관계서 류록	제적등본 (사망일자 및 장소)	기타	제사	사신수 습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1	하동	권영석 (權永碩 남, 45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사장	×	×	○	-	판결문	음력 7.15.	○	×	희생 확인
2	하동	김만제 (金萬濟 남)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대한 청년단	1951.11.26.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	○	×	-	대한청년단 및 한창기 동대원 순직자 명단	-	-	김○○ (전문)	희생 확인
3	하동	김수만 (金守萬 남, 47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사장	×	×	○	-	판결문	음력 7.15.	○	×	희생 확인
4	하동	김연조 (金連祚 남, 58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사장	○	×	○	1950.8.20. 금성면 갈사리	판결문	음력 7.15.	○	×	희생 확인
5	함양	김연준 (남)	함양군 사하면 다곡리	경찰	1950.9.26. 함양군 사하면 대항재	×	×	×	-	×	-	×	이○○ (전문) 신○○ (전문)	희생 확인
6	하동	김우성 (金又聖 남, 47세)	하동군 양보면 자례리	대한 청년단	1950.8.27 하동군 양보면 양보파출소 앞 냇가	○	×	○	-	판결문 대한청년단 및 한창기 동대원 순직자 명단	음력 7.19.	○	김○○ (사신수습) 정○○ (전문) 황○○ (전문)	희생 확인
7	하동	김위태 (金渭泰 남)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대한 청년단	1951.11.26.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	○	×	-	대한청년단 및 한창기 동대원 순직자 명단	-	-	김○○ (전문)	희생 확인
8	하동	김재열 (金在烈 남, 29세)	하동군 양보면 자례리	대한 청년단	1950.8.27 하동군 양보면	○	×	×	-	판결문 대한청년단 및 한창기 동대원 순직자 명단	-	○	김○○ (전문)	희생 확인

제 3 권

연 번	사건 지역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 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피납 차자 명부	유공자 관계서 류록	제적등본 (사망일자 및 장소)	기타	제사	사신수 습여부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9	함양	김중식 (金鍾植 남, 20세)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1951.2.19.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	×	○	-	×	-	○	장○○ (사신 수습)	희생 확인
10	산청	민희식 (閔熙植 남, 33세)	산청군 금서면 특리		1950.9월경 함양군 사하면 대항재	○	×	×	-	×	-	○	민○○ (전문)	희생 확인
11	함양	배동혁 (裵洞赫 남, 32세)	함양군 사하면 운곡리	대한 청년단 부단장	1950.9.28. 함양군 사하면 대항재	×	×	○	1950. 8.17. 함양군 사하면 다곡리 대항령	×	-	○	윤○○ (전문) 배○○ (전문)	희생 확인
12	함양	서상인 (徐相仁 남, 51세)	함양군 미천면 창원리	부농	1950.8.4. 함양군 미천면 창원리	×	×	○	1950. 7.27. 함양군 미천면 가흥리	판결문	-	○	서○○ (사신 수습) 김○○ (연행 목적)	희생 확인
13	함양	신정욱 (辛正郁 남, 52세)	하동군 하동읍	경찰	1950.9.26. 함양군 사하면 대항재	○	×	×	-	×	음력 8.14.	×	이○○ (전문) 신○○ (전문)	희생 확인
14	하동	양도봉 (梁道鳳 남, 39세)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대한청 년단장	1951.11.26.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	×	×	1951. 6.10.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대한청 년단 및 한창기 동대원 순직자 명단	-	-	김○○ (전문)	희생 확인
15	산청	양문웅 (梁文雄 남)	산청군 신안면 외교리		1950.8.27. 함양군 신안면 신등차안대	×	×	×	-	×	음력 7.14.	○	양○○ (목격) 조○○ (전문)	희생 확인
16	하동	엄기도 (嚴基道 남, 35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엄○○ (목격) 신○○ (목격) 고○○ (감금 목적)	희생 확인
17	하동	엄기석 (嚴基石 남, 45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배○○ (목격)	희생 확인

제 1 부 제1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 지역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 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피납 처자 명부	유공자 관계서 류록	제적등본 (사망일자 및 장소)	기타	제사	시신수 습여부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18	하동	엄기옥 (嚴基玉 남, 27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희생 확인
19	하동	엄기음 (嚴基飮 남, 46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	음력 7.15.	○		희생 확인
20	하동	엄도선 (嚴道善 남, 59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희생 확인
21	하동	엄도세 (嚴道世 남, 19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희생 확인
22	하동	엄도식 (嚴道植 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	×	음력 7.15.	○		희생 확인
23	하동	엄백문 (嚴伯文 남, 59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	×	음력 7.15.	○		희생 확인
24	하동	엄범 비우 (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	×	음력 7.15.	○		희생 확인
25	하동	엄상문 (嚴相文 남, 54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희생 확인

제 3 권

연번	사건 지역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피납 처자 명부	유공자 관계서 류록	제적등본 (사망일자 및 장소)	기타	제사	사신수 습여부	진술자 (사건과의 관계)	
26	하동	엄옥룡 (嚴玉龍 남, 52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	×	음력 7.15.	○		희생 확인
27	하동	엄인섭 (嚴仁燮 남, 31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	음력 7.15.	○		희생 확인
28	하동	엄재기 (嚴在基 남, 37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희생 확인
29	하동	엄재년 (嚴在年 남, 31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희생 확인
30	하동	엄점석 (嚴占碩 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	×	음력 7.15.	○		희생 확인
31	하동	엄점세 (嚴占世 남, 23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	판결문	음력 7.15.	○	엄○○ (목격)	희생 확인
32	하동	엄정준 (嚴貞俊 남, 36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	×	음력 7.15.	○	신○○ (목격) 고○○ (감금 목격)	희생 확인
33	하동	엄정중 (嚴正重 남, 48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	×	음력 7.15.	○	배○○ (목격)	희생 확인
34	하동	엄종열 (嚴鍾烈 남, 19세)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대한 청년단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시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남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희생 확인

연 번	사건 지역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문헌자료				진술조사				
		성 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장소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피납 차자 명부	유공자 관계서 류록	제적등본 (사망일자 및 장소)	기타	제사	사신수 습여부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35	하동	이병학 (李炳鶴 남, 53세)	하동군 양보면 자례리	대한 청년단	1950.8.27 하동군 양보면	○	×	×	-	판결문 대한청 년단 및 한청기 동대원 순직자 명단	-	○	김○○ (전문)	희생 확인
36	하동	이삼도 (李三道 남, 42세)	하동군 금상면 갈사리		1950.8.29. 하동군 금상면 갈사리	×	×	○		판결문	음력 7.15.	○	×	희생 확인
37	하동	이점섭 (李点燮 남, 28세)	하동군 양보면 자례리	대한청 년단	1950.8.27 하동군 양보면	○	×	○	-	판결문	-	○	정○○ (전문) 황○○ (전문)	희생 확인
38	하동	이중훈 (李鍾勳 남, 27세)	하동군 양보면 자례리	대한청 년단	1950.8.27 하동군 양보면	○	×	×	-	판결문 대한청 년단 및 한청기 동대원 순직자 명단	-	○	김○○ (전문)	희생 확인
39	함양	이중열 (李重烈 남)	남원시 신내면	면장	1950.8.4.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	×	×	1950.8.8.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도로에서 사망	판결문	-	○	서○○ (사신 목적) 김○○ (전문)	희생 확인
40	하동	이진기 (李震基 남, 48세)	하동군 양보면 자례리	대한 청년단	1950.8.27 하동군 양보면	○	×	○	-	판결문 대한청 년단 및 한청기 동대원 순직자 명단	-	○	김○○ (전문)	희생 확인
41	하동	임기봉 (林基奉 남, 28세)	하동군 청암면	한청대 원	1951.3.17. 하동군 청암면 때죽거리	×	×	×	-	대한청 년단 및 한청기 동대원 순직자 명단, 약양 면지	음력 2.9.	○	구○○ (전문) 김○○ (전문)	희생 확인

제 3 권

연 번	사건 지역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성 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 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장소	문헌자료				진술조사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피납 차자 명부	유공자 관계서 류록	제적등본 (사망일자 및 장소)	기타	제사	사신수 습여부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42	함양	임송이지 (남)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1951.2.19.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	×	×	-	×	-	○	장○○ (사신 수습)	희생 확인
43	함양	장귀홍 (鄭貴洪 남, 37세)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1950.9.17.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	×	○	1956. 8.23.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함양경 찰서, 6.25 전후 함양군 사망자 명단	음력 8.6.	○	임○○ (목격) 노○○ (전문)	희생 확인
44	하동	정갈수 (鄭吉洙 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950.8.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마도백사장	×	×	×	1950. 8. 23. 하동군 금성면 살사리	판결문	음력 7.15.	○	엄○○ (목격) 신○○ (목격) 고○○ (감금 목격) 배○○ (목격)	희생 확인
45	하동	정상용 (鄭相龍 남, 27세)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대한청 년단	1950.8.27 하동군 양보면	○	×	×	-	판결문 대한청 년단 및 한청기 동대원 순조자 명단	-	○	김○○ (전문)	희생 확인
46	산청	정아모 (鄭地模 여, 34세)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면장 부인	1950.11.5.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	×	×	-	-	-	○	안○○ (연행 목격) 안○○ (연행 목격)	희생 확인
47	창원	정문영 (鄭文榮 남)	창원군 북면 대산리		1949.12.13. 창원군 북면 화촌리	×	×	×	-	경남일 보	-	○	김○○ (사신 목격) 김○○ (전문)	희생 확인
48	동래	정운조 (남)	동래군 장안읍 임랑리	농업	1951.6월 동래군 장안읍 임랑리	×	×	×	-	×	-	×	신○○ (전문) 박○○ (전문)	희생 추정

연 번	사건 지역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확인 근거								피해 사실 확인 결과
						문헌자료				진술조사				
		성 명 (성별 당시 나이)	당시 거주지	직업 및 주요경력	사건발생 시기 및 희생장소	6.25 사변 피살자 명부	6.25 사변 피납 차자 명부	유공자 관계서 류록	제적등본 (사망일자 및 장소)	기타	제사	시신수 습여부	진술자 (사건과 의 관계)	
49	함양	정축생 (鄭丑生 남, 48세)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국민회 면부회 장	1950.7. 함양군 지곡면 차인대	×	×	○	1954. 10.3.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	-	○	임○○ (전둔) 노○○ (전둔)	희생 확인
50	함안	조순재 (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949.10.4.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마을회관	×	×	×	-		-	○	조○○ (목격) 조○○ (전둔)	희생 확인
51	사천	탁봉윤 (卓鳳允 남, 46세)	삼천포 읍안동 425번 지	한창간 부	1950.8.15. 삼천포읍 실동앞해상	×	×	○	-	-	-	○	조○○ (전둔)	희생 확인
52	신형	허근 (남)	신형군 신안면 외고리		1950.8.27. 함안군 신안면 신등차인대	×	×	×	-	×	-	-	양○○ (연행 목격) 조○○ (전둔)	희생 확인
53	함안	홍상도 (洪相道 남, 40세)	신형군 신안면 외고리	마을운 영위원 장	1949.8.7.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마을회관	×	×	×	-	순국반 공청년 운동자 명부	-	○	조○○ (목격) 조○○ (전둔)	희생 확인
54	함안	홍태만 (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949.8.7.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마을회관	×	×	×	-	-	-	○	조○○ (목격) 조○○ (전둔)	희생 확인

5. 가해주체 및 이유

가. 가해주체

경남지역 적대세력 사건의 가해자는 지방좌익, 인민군, 빨치산 등이며, 신청사건의 절반 이상이 주변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던 지방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발생했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는 울산·부산지역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격대와 빨치산 및 지방좌익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방좌익과 빨치산 부대를 토벌하기 위하여 각 지역 경찰서에는 토벌대를 구성하였다. 당시 이장이 중심

제 3 권

이 되어 조직되었던 민보단 등 민간차원의 각종 우익단체도 구성되어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빨치산 부대와 토벌군의 교전과 보복전으로 피해를 입거나, 도망하던 중 지방좌익과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 점령기 및 퇴각기에는 인민군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유지, 공무원, 대한청년단 등의 우익단체 활동가 등 우익계나 그 가족이 희생된 사건이 많았으며,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좌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희생대상자를 색출하였다. 또한 인민군 점령 당시 내무서, 분주소, 진주형무소 등에 감금된 사람들이 인민군 퇴각기에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에서 희생당한 사건도 확인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용군 징집과 짐꾼 차출로 인한 강제연행이 인민군 점령지역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 특히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하면서 후방지원을 위한 의용군 징집과 인민군 퇴각시 짐꾼으로 차출이 많았다.

이 외에도 마을 내부의 좌우익대립으로 인한 피해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함양군 지곡면 정무생 희생사건'과 '하동군 금성면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낙동강 전투 패배 이후,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면서 인민군들이 대규모로 퇴각하자, 인민군 패잔병과 지방좌익 및 부역주민들이 주변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상당 규모의 빨치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인근지역에 출몰하여 주민을 살상하고 식량을 약탈했으며,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혹은 보급시설과 물자 등을 파괴하여 국군과 연합군의 작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도처로 탈출하여 지방 빨치산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에서는 인민군 퇴각 이후에도 경찰이 치안을 회복하지 못하여, 지방좌익에 의한 개별적인 피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참고인들은 당시 활동했던 지방좌익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꺼렸는데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이들의 후손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나. 가해이유

진실규명 대상자들은 주로 경찰,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으로 우익이거나 혹은 우익단체에서 활동했으며 20~40대의 남성이었다.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가족 단위 혹은 일가의 희생사건은 주로 우익 활동이나 경력, 또는 우익인사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 '사천군 삼천포읍 조두실 일가 사건'과 '하동군 금성면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은 우익인사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

를 입은 대표적인 예이다.

인민군 점령시기에는 인민군 점령정책에 따른 우익인사 숙청, 의용군 징집, 부역 동원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방좌익과 빨치산의 습격 및 교전, 빨치산을 신고한 보복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였다. ‘합천군 합천읍 김영동 희생사건’, ‘함양군 지곡면 허문석 희생사건’, ‘함양군 서하면 전태식·전만식 형제 희생사건’, ‘산청군 산청읍 박녹이 희생사건’, ‘산청군 신안면 이상봉 희생사건’, 등은 빨치산의 근거지를 신고한 주민들을 보복한 경우이다.

다음 <표 13>에는 사건별 가해주체와 피해이유를 정리하였다.

<표 13> 사건별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장소	가해주체	가해이유
한국전쟁 전 희생사건 16건(1948. 3. 25.~1949. 12. 13.)					
1	거창군 거창읍 표정준·표영수 희생사건(마-9178)	1949. 7. 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빨치산	우익인사 가족(국회 의원)
2	거창군 남상면 김형락 희생사건(마-3589)	1949. 8. 9.	거창군 감악산 연수사	빨치산	우익인사(면서기)
3	동래군 기장면 이수용·김수광 희생사건(마-9369, 마-10302)	1949. 8. 6.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 무곡마을	빨치산	이장/청년단장 활동
4	밀양군 상동면 조오현 희생사건(마-2940)	1948. 3. 25.	밀양군 상동면 신곡리	빨치산	우익인사(면사무소 근무)
5	밀양군 단장면 손제민 희생사건(마-10235)	1949. 7. 13.	밀양군 단장면 미촌리	빨치산	밀고자로 오해받음
6	산청군 단성면 권태국 희생사건(마-8320)	1949. 8. 11.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어천부락	빨치산	대한청년단장
7	양산군 동면 김일성 희생사건(마-9572)	1949. 6. 5.	양산군 동면 석산리	지방좌익	우익에 협조
8	울주군 범사면 김기오 희생사건(마-4246)	1949. 10. 6.	울주군 범사면 서사리 모래골	빨치산	빨치산의 은신처 발견
9	의령군 정곡면 전명권 희생사건(마-3465)	1949. 3. 6.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정남국민학교 앞	지방좌익	우익단체 활동(민보단)
10	창원군 북면 김기연 희생사건(마-7992)	1949. 12. 13.	창원군 북면 화천리 북면사무소 앞	지방좌익	우익단체 활동
11	하동군 양보면 이용규 희생사건(마-6006)	1949. 10. 11.	하동군 양보면 우북리 하성마을 뒷산	빨치산	대한청년단 활동

제 3 권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장소	가해주체	가해이유
12	함안군 군북면 이재근 희생사건(마-7380)	1949. 4. 26.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빨치산	우익인사 가족(면장)
13	함안군 산인면 이진호 희생사건(마-810)	1949. 10. 4.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빨치산	우익인사(부면장)
14	함안군 칠곡면 안기수 희생사건(마-6551)	1949. 10. 4.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마을회관	빨치산	우익인사(이장)
15	함양군 마천면 서오목 희생사건(마-8298)	1949. 5. 17.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빨치산	지방유지
16	합천군 합천읍 김영동 희생사건(마-6813)	1949. 7. 4.	합천군 합천읍 장계리	지방좌익, 빨치산	우익인사(이장)
한국전쟁 발발부터 인민군 후퇴 전까지 희생사건 15건(1950. 7. 5.~1950. 9. 17.)					
17	고성군 거류면 이정수 희생사건(마-10331)	1950. 7. 17.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인민군	인민군 보고 도망감
18	사천군 곤명면 임태용 희생사건(마-9983)	1950. 7. 30.	사천군 곤명면 완사리	지방좌익(곤명면 치안대)	우익인사(사천 축동 지서 순경)
19	사천군 삼천포읍 조두실 일가 희생사건(마-9856 등 5건)	1950. 8. 20.~8. 26.	사천군 삼천포읍 실안동 앞 바닷가	지방좌익(늑도 치안대, 실안동 치안대)	우익인사 가족(대한청년단 감찰부장)
20	사천군 삼천포읍 이내윤 희생사건(마-9855)	1950. 8. 26.	함양군	인민군	우익인사(남양도기 회사 사원)
21	양산군 동면 오차홍 희생사건(마-7671)	1950. 8월	양산군 동면 가산리	빨치산	우익인사 가족(대한청년단)
22	울주군 두서면 이기생 희생사건(마-6089, 8477)	1950. 7. 5.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양지편마을	빨치산	대한청년단장
23	진양군 대곡면 김기호 · 김성호 형제 희생사건(마-6664)	1950. 8. 17.	진양군 대곡면 설매리	인민군	우익인사(농촌지도자)
24	하동군 양보면 김순기 희생사건(마-9581)	1950. 8. 27.	하동군 양보면 양보파출소 앞 냇가	지방좌익, 인민군	우익인사(국민회 지부장)
25	하동군 금성면 엄갑수 일가 희생사건(마-10452 등 4건)	1950. 8. 29.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수협창고, 마도 백사장	지방좌익	우익인사 및 우익인사 가족(대한청년단)
26	함양군 안의면 이운택 희생사건(마-9587)	1950. 7. 28.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박골	인민군	우익인사(안의국민학교 교장)
27	함양군 서상면 박덕성 희생사건(마-2603)	1950. 7. 30.경	함양군 서상면 송계리	인민군	대한청년단장
28	함양군 마천면 김종환 희생사건(마-5718)	1950. 8. 7.	함양군 마천면 군유림관리사무소 도로변	지방좌익	군인
29	함양군 지곡면 허문석 희생사건(마-3983)	1950. 8. 7.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지방좌익	우익인사(이장, 대한청년단)

제 1 부 제 1 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장소	가해주체	가해이유
30	함양군 지곡면 정무생 희생사건(마-982)	1950. 9. 17.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마을회관 앞	지방좌익	우익인사
31	합천군 봉산면 이성주 희생사건(마-5559)	1950. 8. 1.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인민군	인민군의 검문에 응하지 않음
인민군 후퇴기 희생사건 12건(1950. 9. 25.~1950. 9. 27.)					
32	산청군 신안면 도태호 희생사건(마-9380)	1950. 9. 26.	산청군 신안면 심거마을	인민군	인민군에게 저항
33	진주시 명석면 박성준 희생사건(마-6206)	1950. 9. 26.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인민군	인민군에게 저항
34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강갑이 희생사건(마-6511)	1950. 9. 27.경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인민군	우익인사(이장)
35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김광호 희생사건(마-7475)	1950. 9. 27경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인민군	우익인사(면사무소 근무)
36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김윤찬 희생사건(마-980)	1950. 9. 25.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인민군	부역 동원
37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나승운 희생사건(마-9973)	1950. 9. 27.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지방좌익, 인민군	빨치산 신고, 대한청년단장
38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녹이 희생사건(마-8826)	1950. 9. 27.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지방좌익	1949년 빨치산 신고
39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박주원 희생사건(마-6118)	1950. 9. 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인민군	우익인사(군청 내무과장)
40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이동식 희생사건(마-3577)	1950. 9. 27.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지방좌익, 인민군	대한청년단 활동
41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전태식·전만식 형제 희생사건(마-2994)	1950. 9. 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인민군	우익인사(이장) / 대한청년단 활동
42	함양군 서하면 대항재 최만규 희생사건(마-8451)	1950. 9. 26.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지방좌익, 인민군	우익인사(이장, 청년단 간부)
43	진주시 칠암동 황학구 희생사건(마-9244)	1950. 9월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인민군	우익단체 활동
인민군 후퇴 이후 희생사건 12건(1950. 10. 27.~1953. 4. 2.)					
44	고성군 하이면 박동교 희생사건(마-9015)	1951. 6. 9.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빨치산	우익인사(이장)
45	동래군 장안읍 신명동 희생사건(마-6545)	1951. 7월	동래군 장안읍 임랑리	빨치산	마을 보초근무
46	산청군 단성면 이술조 희생사건(마-8759)	1950. 11. 13.	산청군 단성면 길리	빨치산	우익인사(이장)

제 3 권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장소	가해주체	가해이유
47	산청군 금서면 박계원 · 고해분 부부 희생사건(마-9379)	1951. 5. 22.	산청군 금서면 특리	지방좌익, 빨치산	우익인사(민보단 간부)
48	산청군 신안면 이상봉 희생사건(마-8828)	1953. 4. 2.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지방좌익	1949년 빨치산 신고
49	하동군 청암면 김영두 희생사건(마-10451)	1950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빨치산	빨치산의 습격
50	하동군 청암면 김대석 희생사건(마-7101)	1950년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빨치산	부역 동원
51	하동군 청암면 남강희 희생사건(마-8325)	1951. 3. 17.	하동군 청암면 때죽나무거리	빨치산	대한청년단 활동
52	하동군 청암면 김용세 희생사건(마-9452)	1951. 11. 26.경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빨치산	짐꾼으로 납치
53	하동군 옥종면 하춘섭 희생사건(마-8324)	1951. 12. 31.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빨치산	마을 보조근무
54	함양군 서상면 강인석 희생사건(마-6808)	1950. 10. 27.	함양군 서상면 서상국민학교 후문	빨치산	빨치산 습격(특공대원으로 보조근무)
55	함양군 백전면 박윤석 희생사건(마-4629)	1951. 3. 26.경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빨치산	우익인사(이장)

한국전쟁 중 강제연행사건 9건(1950. 8. 20.~1951. 12월)

56	고성군 영오면 최점림 강제연행사건(마-10336)	1950. 8. 20.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인민군	부역 동원
57	남해군 남해읍 박채영 강제연행사건(마-5551)	1950. 9. 25.	남해군 남해읍 북변동 후생병원	인민군	부역 동원
58	남해군 삼동면 하영모 강제연행사건(마-7216)	1950. 9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인민군	부역 동원
59	의창군 진북면 오성환 강제연행사건(마-1964)	1950. 여름	마산시 진북면 추곡리 내추마을	인민군	부역 동원
60	산청군 생비량면 공영진 강제연행사건(마-9883)	1950. 9월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지방좌익, 인민군	부역 동원
61	합천군 합천읍 이동수 강제연행사건(마-5670)	1950. 9월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인민군	의용군 징집
62	산청군 오부면 안학영 강제연행사건(마-9242)	1950. 10. 26.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인민군(잔병), 빨치산	부역동원
63	함양군 서상면 최순도 강제연행사건(마-9972)	1951. 5. 19.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빨치산	부역동원
64	하동군 북천면 김상곤 강제연행사건(마-7305)	1951. 12월	하동군 북천면 서항리	-	부역 동원

연번	사건명	발생시기	피해장소	가해주체	가해이유
상해사건 4건(1949. 8. 7.~1950. 10. 5.)					
65	함안군 군북면 조경래 상해사건(마-7433)	1949. 8. 7.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빨치산	우익인사
66	함양군 서하면 김정대 상해사건(마-10166)	1950. 7월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대항재	인민군	우익단체 활동
67	사천군 남양면 박문수 상해사건(마-110)	1950. 8월	사천군 남양면 와룡산	인민군	부역 동원
68	함양군 안의면 이업분 상해사(마-7533)	1950. 10. 5.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빨치산	안의지서 습격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경남지역 거창군 등 18개 시·군 일대에서 한국전쟁 전후(1948. 3. 25. ~ 1953. 4. 2.)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진실규명 대상자 총 80명과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54명 등 총 134명이 희생당하거나 강제연행, 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대한민국 정부, 1952),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내무부 치안국, 1954), 『월북자 명단』(공보처 통계국, 1951), 『순국 반공청년 운동자 명부』, 『거제 포로수용소 DB』,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인명 DB』 등의 문헌자료 및 사건이 발생했던 18개 시·군 일대의 거주자 136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사건을 확인하였다.

경남지역의 신청사건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전과 인민군 점령기에 발생했으며, 집단적인 규모의 사건보다는 개별적인 사건이 주로 발생하였다. 인민군 점령 전후로는 인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빨치산과 지방좌익에 의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인민군 점령기에는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인민군에 의한 희생과 강제연행이 발생하였다.

인민군 퇴각기에는 인민군의 퇴각 당시의 구금자 처리 과정에서의 대규모 살상과 부역을 인한 강제연행이 있었다. 인민군은 점령 당시에 각 지역의 내무서, 분주소 또는 진주형무소 등에 감금하였던 구금자들을 데리고 퇴각하면서 지리산 부근의 함양, 산청 등지

제 3 권

에서 대규모로 살상하였다. 그리고 퇴각시의 짐꾼 등으로 쓰기 위한 인민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 점령지역 대부분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이장, 지주, 공무원과 대한청년단 등 소위 '우익세력'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었다. 또한 인민군과 내무서원 등에게 의용군으로 징집 혹은 짐꾼 등으로 차출된 경우 행방불명되거나 산청, 함양 등에서 희생되기도 하였다.

경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강제연행사건, 상해사건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진실규명 대상자 58명 희생사실 확인 :

강갑이(姜甲伊, 마-6511), 강인석(姜仁錫, 마-6808), 고해분(高海分, 마-9379), 권태국(權泰國, 마-8320), 김광호(金光鎬, 마-7454), 김기련(金基鍊, 마-7992), 김기오(金基五, 마-4246), 김기호(金沂鎬, 마-6664), 김보배(金保排, 마-9858), 김성호(金成鎬, 마-6664), 김수광(金守光, 마-10302), 김순기(金舜基, 마-9581), 김영동(金榮東, 마-6813), 김영두(金榮頭, 마-10451), 김용세(金容世, 마-9452), 김일성(金一成, 마-9572), 김종환(金鍾煥, 마-5718), 김형락(金炯洛, 마-3589), 나승운(羅勝雲, 마-9973), 남강희(南剛熙, 마-8325), 도태호(都泰昊, 마-9380), 박계원(朴啓元, 마-9379), 박녹이(朴綠伊, 마-8826), 박덕성(朴德成, 마-2603), 박동교(朴東敎, 마-9015), 박봉기(朴鳳基, 마-9856), 박성준(朴性俊, 마-6206), 박주원(朴周元, 마-6118), 손제민(孫濟旻, 마-10235), 안기수(安基洙, 마-6551), 엄갑수(嚴甲守, 마-10452), 엄금암(嚴金巖, 마-10454), 엄재수(嚴在守, 마-10455), 엄재홍(嚴在洪, 마-10456), 오차홍(吳且洪, 마-7671), 이기생(李己生, 마-6089, 8477), 이내운(李來允, 마-9855), 이동식(李東植, 마-3577), 이상봉(李尙鳳, 마-8828), 이성주(李性柱, 마-5559), 이수용(李首龍, 마-9369), 이술조(李述祚, 마-8759), 이용규(李容奎, 마-6006), 이운택(李允宅, 마-9587), 이재근(李在根, 마-7380), 이정수(李貞洙, 마-10331), 이진호(李珍浩, 마-810), 임태용(林泰龍, 마-9983), 전만식(全萬植, 마-2994), 전명권(田命權, 마-3465), 전태식(全泰植, 마-2994), 조두실(趙斗實, 마-9857), 조종출(趙鍾出, 마-9860), 정무생(鄭武生, 마-982), 최만규(崔萬圭, 마-8451), 표영수(表瑛洙, 마-9178), 표정준(表正俊, 마-9178), 허문석(許文錫, 마-3983)

○ 진실규명 대상자 8명 희생사실 추정:

김대석(金大錫, 마7101), 김윤찬(金允贊, 마-980), 박윤석(朴允錫, 마-4629), 서오목(徐梧默, 마-8298), 신명동(辛明同, 마-6545), 조오현(趙五顯, 마-2940), 하춘섭(河春涉, 마-8324), 황학구(黃學久, 마-9244)

○ 진실규명 대상자 10명 강제연행 사실 확인:

공영진(마-9883), 김상곤(金相坤, 마-7305), 박채영(朴采英 마-5551), 안학영(安學榮, 마-9242), 오성환(吳成煥, 마-1964), 이동수(李東秀, 마-5670), 조종채(趙鍾彩, 마-9859), 최순도(崔淳道, 마-9972), 최점림(崔占林, 마-10336), 하영모(河永模, 마-7216)

○ 진실규명 대상자 4명 상해사실 확인:

김정대(金政大, 마-10166), 박문수(朴文守, 마-110), 이업분(李業分, 마-7533), 조경래(趙敬來, 마-7433)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53명 희생사실 확인:

권영석(權永碩), 김만제(金萬濟), 김수만(金守萬), 김연조(金連祚), 김연준, 김우성(金又聖), 김위태(金渭泰), 김재열(金在烈), 김종식(金鍾植), 민희식(閔熙植), 배동혁(裴同赫), 서상인(徐相仁), 신정욱(辛正郁), 양도봉(梁道鳳), 양문용, 엄기도(嚴基道), 엄기석(嚴基石), 엄기옥(嚴基玉), 엄기음(嚴基飲), 엄도선(嚴道善), 엄도세(嚴道世), 엄도식(嚴道식), 엄백문(嚴伯文), 엄범바우, 엄상문(嚴相文), 엄옥룡(嚴玉龍), 엄인섭(嚴仁燮), 엄재기(嚴在基), 엄재년(嚴在年), 엄점석(嚴占碩), 엄점세(嚴占世), 엄정준(嚴貞俊), 엄정중(嚴正重), 엄종열(嚴鍾烈), 이병학(李炳鶴), 이삼도(李三道), 이점섭(李点燮), 이종훈(李鍾勳), 이종열(李仲烈), 이진기(李震基), 임기봉(林基奉), 임송아지, 정귀홍(鄭貴洪), 정길수(鄭吉洙), 정문영(鄭文榮), 정상용(鄭相龍), 정야모(鄭也模), 정축생(鄭丑生), 조순재, 탁봉운(卓鳳允), 허근, 홍상도(洪相道), 홍태만

○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명 희생사실 추정: 정운조

2. 권고사항

첫째,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잘못 기재된 사망일시 및 사망 장소에 대해 신속하게 정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상남도 및 자치단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는 경상남도지와 지역별 시·군지 등의 각종 기관 자료에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